

연구보고 RRI 2016-11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

연구책임자 이경언
공동연구자 김정호 / 김용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

연구보고 RRI 2016-11

발행일 2016년 12월 31일
발행인 김 영 수
발행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 소 서울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전 화 (02)3704-3704
팩 스 (02)730-7487
홈페이지 <http://www.kice.re.kr>
인쇄업체 정문출판 주식회사(02-2269-9301)
I S B N 979-11-5788-387-5 93370

※ 본 자료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본 연구진의 견해를 밝히 드립니다.

연구협력진

강민지(교육부)	오경숙(강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강병직(청주교대)	윤지숙(조원중학교)
고용선(광주광역시교육청)	이근호(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황경(부천북여자중학교)	이해진(완주중학교)
고희송(제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민성(충남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구자희(서울시교육청)	이수연(서울시교육청)
길지희(논곡중학교)	이은경(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대원(교육부)	이은정(교육부)
김맹호(완주중학교)	이종임(충남교육청)
김명훈(제주도교육청)	임진순(충북교육청)
김병태(경상남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장재환(서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김안나(의정부여자중학교)	장호정(조원중학교)
김영순(광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지영(경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김정(충남여자중학교)	정금주(구로중학교)
김지혜(의정부여자중학교)	정영근(한국교육과정평가원)
류해석(경기도교육청)	정지현(충북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민빛나래(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현경(강원도교육청)
민선애(충남여자중학교)	조중현(한울중학교)
박은영(고양 교육지원청)	최민성(경남 진영중학교)
박주서(경상남도교육청)	최문정(진산중학교)
박혜정(건국대학교)	황연주(청주교육대학교)
백민경(Ecole des Beaux-arts)	홍진표(구로중학교)
서미숙(충남 대산고등학교)	
손민애(의정부여자중학교)	(이상 가나다 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창의융합형 인재의 덕목인 인간에 대한 공감과 이해, 인간, 사물, 자연에 대한 심미적이고 감성적인 능력 등은 예술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와도 일치하는 것이며, 예술교육을 통해 가장 잘 습득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는 미래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예술교육 중에서도 중학교의 예술 향유 교육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습니다. 보통 14세에서 16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시기에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어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등한시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예술은 학교교육을 떠나서도 평생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학교에서 기초적인 소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예술 향유 교육 실태에 대한 분석과 진단,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 중학교에서 예술 향유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이 예술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되어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연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연구개발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협조하여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김 영 수

□ 연구의 개관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학교 예술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중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위에서 제시한 필요성에 입각해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학생들의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술교육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 방법에 따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헌 연구	면담 조사	설문 조사	전문가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분석 • 국가 및 학교 교육과정 문서 분석 • 학교 예술교육 정책 및 예술 향유 지원 관련 연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교육부, 문체부, 예술교육 기관 담당자, 교사, 학교 관리자 대상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실태와 지원 요구 및 우수 사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교사, 학생 대상 학교 예술 향유 교육 실태 및 지원 요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시도교육청, 문체부 예술교육기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예술교육 전문가 대상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및 지원 실태, 지원 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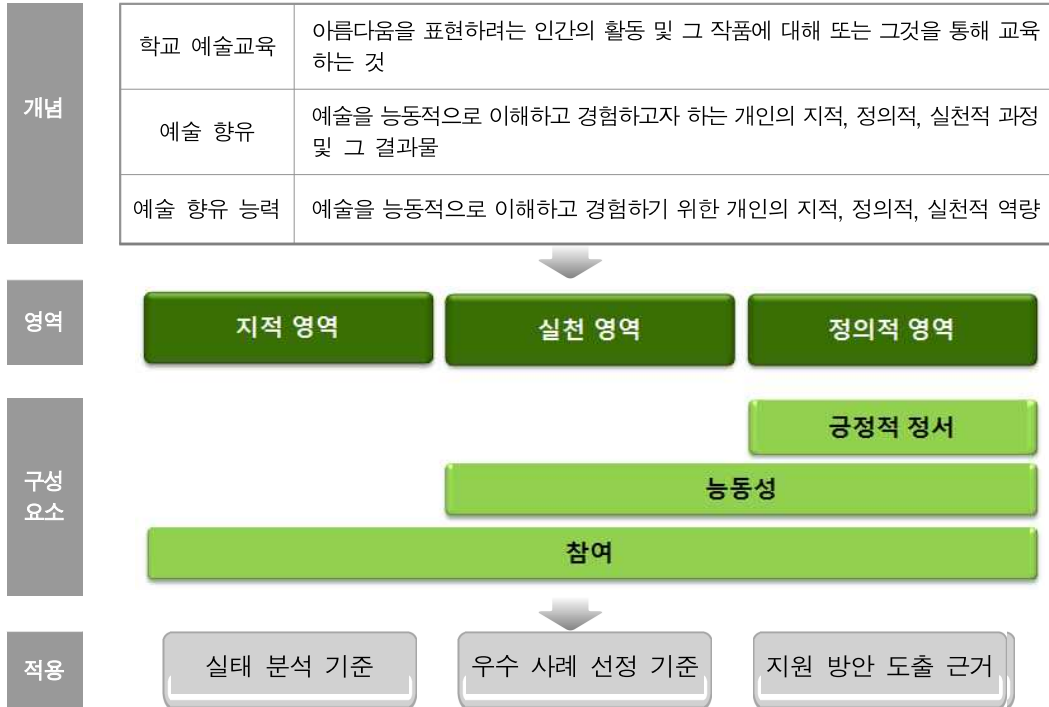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연구의 이론적 근거 및 적용

○ 예술 향유의 개념과 적용

중학교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제시를 위해 학교 예술교육, 예술 향유, 예술 향유 능력의 개념을 탐색하고 이를 예술 향유 교육 및 지원 실태 분석, 예술 향유

교육 우수 사례 분석,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도출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예술 향유 관련 개념과 연구의 적용

○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전달 체계와 지원 방안 틀

본 연구에서는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의 체계적인 제시를 위해 정책 수단, 지원 주체,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책 전달 체계이면서 지원 방안 제시의 틀을 만들었으며, 이 틀을 토대로 지원 방안을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전달 체계와 지원 방안 틀

□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및 지원의 쟁점과 개선점, 지원 방안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및 지원의 쟁점과 개선점 도출을 위해 문헌 연구, 면담 조사, 설문 조사, 전문가 협의회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중 예술 향유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표 1>의 ‘연구 결과’). 연구 방법에 따른 연구 결과를 다시 정책 수단에 따라 분류하고 공통된 내용을 묶어 지원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정책 수단에 분류되지 않는 내용은 기타에 포함하였다. 연구 방법 및 결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의 ‘관련 방안’은 연구 결과와 연관되는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표 1> 연구 방법 및 결과에 따른 지원 방안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관련 방안	지원 방안	정책 수단
문헌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관 등 예술 교육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 형성 필요 중앙 정부와 지역의 협업을 통한 지역 예술교육 지원 필요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실제적인 법적 지원 필요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필요 	ㄱ, ㄷ, ㅂ	ㄱ. 전문 예술교육 인력 지원	인적
		ㄱ, ㄴ, ㅂ ㅅ ㅇ	ㄴ. 교원 예술교육 역량 제고 지원 ㄷ. 학교 예술교육 시설 지원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예술교과, 비예술교과, 관리자 등)의 예술 교육 연수 및 교사학습공동체 지원 필요 지역의 인력 및 문화시설 활용을 위한 지원 필요 자유학기 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자원 지원 필요 예술 활동 및 표현의 기회 증대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필요 교과 연계 수업을 위한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필요 	ㄴ ㄱ, ㄷ, ㅂ, ㅅ ㄱ, ㄷ, ㄴ, ㅂ, ㅅ ㅇ ㄴ, ㅇ	ㄹ. 학교 예술교육 예산 지원 ㄴ. 교육부, 문체부 연계 조직 구축 ㅂ.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예술교육 기부 인력 조직	물적 조직
전문가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의 예술교육 및 사업 운영의 자율성 증대 필요(예산 편성 및 집행 등) 학교 예술 향유 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 강화 방안 필요 지역별, 학교별 예술 향유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 필요 예술 강사(문화예술교육사) 지원사업의 개선 필요 ‘문화예술’ 용어의 어려움으로 재정립 필요 	ㄹ ㄱ, ㄷ, ㅂ, ㅅ ㄱ, ㄴ, ㄷ, ㄹ, ㅂ ㅅ ㅅ	 ㅅ.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법령 제정 및 개정	법
설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의 흥미와 특성을 반영한 수업 지원 필요 학생들의 학교 안팎 행사 관람 및 참여 기회 확대 필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예술교육 지원 사업 분야의 다양화 필요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강사, 시설, 예산의 지원 필요(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분담하는 구조) 	ㄴ, ㄷ, ㅇ ㄴ, ㅅ, ㅇ ㄱ, ㄹ, ㅇ ㄱ, ㄷ, ㄹ, ㅂ	 ㅇ.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수립, 지원	기타

□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정책 방안

앞에서 제시한 중학교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추진 전략과 과제로 구체화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중학교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정책 수단	지원 방안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인적 지원	(1)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전문 예술 교육 인력 지원	(1)-1. 전문 예술교육 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예술교육 인력 대상 확대 및 자격 심사 과정 강화 • 국가 전문 예술교육 인력 정보 사이트 구축
	(2)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제고 지원	(2)-1.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교과 교사의 경력에 따른 정기적인 직무연수 도입 • 비예술교과 교사 및 관리자 대상 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 도입 • 교사학습공동체 학습 활동의 연수 이수 인정제 도입
물적 지원	(1)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	(1)-1. 시·도 교육청, 지자체 차원의 시설 및 기자재 지원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음악실, 미술실 설치 권장 조항 마련 • 지자체 및 기업과 연계한 학교 및 지역 예술교육 복합 공간 지원 • 예술교육 기자재 공유 시스템 구축
	(2)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2)-1. 시·도 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교육청 학교 지원 예산 중 학교 교수·학습 활동 예산 비중 확대 • 시·도 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교운영비 권장사업 목록으로 예술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 제시
		(2)-2. 중앙 정부 차원의 학교 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예산 집행의 타당성 제고 방안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분석을 통한 학교 예술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조직 적 지원	(1)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교육부와 문체부 연계 조직 구축	(1)-1. 교육부, 문체부 연계를 위한 통합 기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와 문체부의 정책 자문 및 집행 기구로서의 (가칭)'예술교육위원회' 설립
	(2)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예술교육	(2)-1. 예술교육 기부 인력 조직 및 사이트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개인 교육기부 매칭 사이트 및 교육기부 센터의 개편

정책 수단	지원 방안	추진 전략	추진 과제
	기부 인력 조직		
법직 지원	(1)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법령 제정 및 개정	(1)-1. 학교와 지역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 문화 자원 활용 관련 법령의 제·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 총론의 지역 자원 활용 관련 내용 개정 • 지자체 수준에서 ‘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2. ‘문화예술’ 개념의 재정립을 위한 법령의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정의)의 개정
		(1)-3.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한 법령의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법」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의 개정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의 필요성	3
나. 연구의 목적	10
2. 연구 내용	11
가. 학교 예술교육과 예술 향유의 의미와 범위 설정	11
나. 예술 향유를 위한 국내외 학교 예술교육 정책 분석	11
다. 중학교에서의 예술 향유 교육 실태 및 요구 분석	12
라. 중학교에서의 예술 향유 교육 우수 사례 분석	12
마.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 모색	12
3. 연구 방법	12
가. 문헌 연구	12
나. 면담 조사	13
다. 전문가 협의회	14
라. 설문 조사	14
마. 연구 성과 발표회	14
II 이론적 배경	15
1. 학교 예술교육의 의미와 범위	17
가. 예술 및 학교 예술교육의 의미와 범위	17
나.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예술교육의 의미와 범위	21
2. 학교교육에서 예술 향유의 의미와 구성 요소	22
가. 예술 향유의 의미와 구성 요소	22
나. 학교교육에서 예술 향유 구성 요소의 적용	27
3.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의 구조	31
가. 정책 목표로서의 예술 향유 능력 제고	31
나. 예술 향유 능력 제고 정책 수단의 유형	32
다. 예술 향유 능력 제고 정책의 전달 체계	35

III	예술 향유를 위한 국내외 학교 예술교육 정책	37
1.	국내 학교 예술교육 정책	39
가.	역대 정부의 문화 정책과 학교 예술교육 정책	39
나.	현 정부의 문화 정책과 학교 예술교육 정책	43
다.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쟁점	50
2.	국외 학교 예술교육 정책	52
가.	프랑스 학교 예술교육 정책	52
나.	아일랜드 학교 예술교육 정책	71
IV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실태 및 우수 사례	95
1.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실태에 대한 인식	97
가.	학생 대상 설문	97
나.	교사 대상 설문	109
다.	시사점	112
2.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우수 사례	112
가.	A 중학교 사례: 교과 간 협력 수업을 통한 뮤지컬 창작 프로젝트	114
나.	B 중학교 사례: 뮤지컬 페스티벌을 통한 지역 나눔	125
다.	C 중학교 사례: 합창으로 즐거운 학교	132
라.	D 중학교 사례: 학생과 공감하는 미술 수업	136
마.	E 중학교 사례: 예술교육에 대한 학교장의 철학과 전략적 지원	140
바.	F 중학교 사례: '예술 향유'를 위한 미술교육과 교육 환경 개선	145
사.	시사점	149
V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	153
1.	인적 지원	157
가.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전문 예술교육 인력 지원	157
나.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제고 지원	160
2.	물적 지원	162
가.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	162
나.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164
3.	조직적 지원	164
가.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연계 조직 구축	164

나.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예술교육 기부 인력 조직	166
4. 법적 지원	168
가.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법령 제정 및 개정	168
5. 기타	175
가.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수립, 지원	175
VI 요약 및 정책 제언	179
1. 요약	181
2. 정책 제언	185
가. 인적 지원	186
나. 물적 지원	191
다. 조직적 지원	195
라. 법적 지원	199
 • 참고문헌	 205
 • ABSTRACT	 215
 • 부록	 217
[부록 1] 학생용 설문지	219
[부록 2] 교사용 설문지	225

표 차례

<표 I-1-1> 교육부 업무보고 중 학교 예술교육 관련 내용(2013년~2016년)	5
<표 I-1-2>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중 학교 예술교육 관련 내용(2013년~2015년)	6
<표 I-3-1> 국외 수업 관찰 및 면담 조사 대상 국가 선정 사유	13
<표 III-1-1> 역대 정부 및 현 정부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성과 및 한계	47
<표 III-2-1> 프랑스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흐름	53
<표 III-2-2> 프랑스 미술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미술교육에서 형성되는 지식과 경쟁력	65
<표 III-2-3> 프랑스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공통 분야와 교과 내용의 연계	66
<표 III-2-4> Junior Certificate Examination	75
<표 IV-1-1> 학생 응답 현황	97
<표 IV-1-2> 예술 향유 구성 요소에 따른 학생 대상 설문 문항 구성 내용	98
<표 IV-1-3> 학교 음악, 미술 교과 수업에서 예술 향유 만족도	99
<표 IV-1-4> 학교 음악, 미술 교과 수업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99
<표 IV-1-5> 창의적 체험활동 중 예술 동아리 활동 참여 경험 여부	100
<표 IV-1-6> 예술 동아리 활동 참여 동기	100
<표 IV-1-7> 참여한 예술 동아리 활동 만족도	101
<표 IV-1-8> 자유학기 예술 활동 참여 경험 여부	101
<표 IV-1-9> 자유학기 예술 활동 참여 동기	102
<표 IV-1-10> 참여한 자유학기 예술 활동 만족도	102
<표 IV-1-11> 참여한 자유학기 예술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102
<표 IV-1-12> 방과후학교 활동 중 예술 활동 참여 경험 여부	103
<표 IV-1-13> 방과후학교 활동 중 예술 활동 참여 동기	103
<표 IV-1-14> 참여한 방과후학교 예술 활동 만족도	104
<표 IV-1-15> 참여한 방과후학교 예술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104
<표 IV-1-16> 중학생이 된 후 학교 밖 예술교육 경험 여부	104
<표 IV-1-17> 학교 밖에서 예술교육 받은 장소	105
<표 IV-1-18> 학교 밖에서 예술교육을 받게 된 동기	105
<표 IV-1-19> 참여한 학교 밖 예술교육 만족도	106
<표 IV-1-20> 참여한 학교 밖 예술교육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106
<표 IV-1-21> 중학생이 된 학교 밖에서 예술 행사 관람 경험 여부	106
<표 IV-1-22> 학교 밖 예술 행사에서 발표나 행사 지원 경험 여부	107

<표 IV-1-23> 학교 밖 예술 행사 관람 동기	107
<표 IV-1-24> 학교 밖 예술 행사에서 발표하거나 행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	107
<표 IV-1-25> 관람한 학교 밖 예술 행사 관람 만족도	108
<표 IV-1-26> 발표 및 지원한 학교 밖 예술 행사 만족도	108
<표 IV-1-27> 교사 응답 현황	109
<표 IV-1-28> 교사 대상 설문 문항 구성 내용	110
<표 IV-1-29>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의 유형	110
<표 IV-1-30> 중학교 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예술 향유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111
<표 IV-2-1>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우수 사례 대상 학교	113
<표 IV-2-2> 중학교 예술 향유 우수 사례 면담 내용	113
<표 V-1>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전달 체계의 틀에 따른 지원 방안	156
<표 V-4-1>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원 교과(교육과정 내 복수신청 가능)	174
<표 VI-1-1> 연구 방법 및 결과에 따른 지원 방안	184
<표 VI-2-1> 중학교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185
<표 VI-2-2> 전문 예술교육 인력 대상 확대 및 자격 심사 강화 방안	188
<표 VI-2-3>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 예시	191
<표 VI-2-4> 교육부 개인 교육기부 매칭 사이트 및 교육기부센터의 개편(안)	198
<표 VI-2-5> 교육과정 총론 지역사회 연계 지원 관련 개정(안)	200
<표 VI-2-6>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01
<표 VI-2-7> ‘문화예술’ 개념 및 범위와 관련한 법령 개정(안)	202
<표 VI-2-8>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관련 법령 개정(안)	204

[그림 I-1-1]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예술교육의 범위	11
[그림 II-2-1] 예술 향유의 개념과 구성 요소의 관계	27
[그림 II-2-2] 중학교 예술 향유 실태 및 우수 사례 분석 틀	30
[그림 II-3-1] 예술 향유 능력 제고 지원 정책의 목표 구조	31
[그림 II-3-2]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 수단의 구조	35
[그림 II-3-3]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전달 체계의 틀	36
[그림 V-1]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 도출 절차	155
[그림 VI-1-1] 연구의 내용과 방법	181
[그림 VI-1-2] 예술 향유 관련 개념과 연구의 적용	182
[그림 VI-1-3]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전달 체계와 지원 방안 틀	183
[그림 VI-2-1] 음악, 미술 활동 관련 시설 및 기자재 공유 시스템의 예	193
[그림 VI-2-2] 성과분석을 통한 학교 예술교육 정책 수립 및 실행 로드맵	19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1) 정부의 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지원 필요

우리 정부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문화행정 체계의 기반을 조성하며 꾸준히 새로운 문화정책을 발표해 왔다. 현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문화정책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2013년 3월 문화융성을 경제부흥, 국민행복, 평화통일과 함께 4대 국정기조로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 10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청와대 홈페이지 국정과제체계도).¹⁾ 첫 번째 전략으로 문화 참여 확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과제로 국가예산 대비 문화재정 2% 확보 및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 참여 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 문화 다양성 증진,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문화예술 진흥을 제시하고, 그 과제로 예술인 지원, 문화유산보존 강화, 인문정신문화 진흥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으로는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제시하고, 그 추진 과제로는 콘텐츠산업 육성, 고부가 관광 실현, 스포츠 활성화를 제시하였다(청와대 홈페이지 4대 국정기조 중 문화융성).²⁾

다음으로는 조직적 지원을 위해 2013년 7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를 설립하여 문화적 가치의 사회 확산과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며, 문화의 가치와 위상 제고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대통령자문을 얻도록 하였다(문화융성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소개).³⁾

현 정부의 이러한 문화정책은 법적, 물질적, 조직적 지원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책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제시한 국정기조로서의 ‘문화융성’은 “인문,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화 분야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시민들의 문화향유권과 사회 내의 문화다양성이 확대되는 것”(문화체육관광부, 2013a: 1)으로, 문화역량 강화, 문화향유권 및 문화다양성 확대 등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가 함축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중 문화향유권의 확대는 1980년대부터 정권을 달리 할 때마다 매년 문화부문

1) http://www1.president.go.kr/policy/major_government_project.php (2016.1.22. 검색)

2) <http://www1.president.go.kr/policy/keynote03.php> (2016.1.22. 검색)

3) http://www.pcce.go.kr/01_info/01_intro.html (2016.1.22. 검색)

의 목표로 제시되어 왔던 것이다.⁴⁾ 문화향유권의 개념은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 핵심 내용은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를 일종의 법적 권리로써 뒷받침하는 것으로, 즉 성, 종교, 인종, 신체조건 등에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이종수, 2015: 14).⁵⁾ 그러나 국민 모두가 차별 받지 않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의 확대가 2013년에도 문화정책의 하나로 등장한 것은 30년이 지나도록 문화향유권의 확대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2014년 문화향수실태조사⁶⁾에 따르면 예술행사 관람률은 2003년 대비 8.9%p 증가하였으며,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관람률 상승을 이끈 분야는 영화가 7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중음악/연예, 연극, 뮤지컬 순이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b: ii). 따라서 특정 예술 분야에 편중된 관람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술행사 직접 참여율 또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2014년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4b: vi). 결국 예술을 관람하거나 직접 예술 활동을 하는 직·간접적인 예술 향유 방식 모두에서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문화정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문화향유권 확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학교 예술교육 지원 필요

문화 향유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문화 소비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며, 문화예술 교육이 문화 소비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4) 1981년에는 새 문화정책 발표를 통해 ‘문화적 혜택의 복지적 분배’를 제시하였으며, 1983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문화부문 계획’에서는 문화부문의 목표로 ‘문화시설 확충과 지방 문화육성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경언, 2014: 84).

5) 이와 함께 「문화기본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라고 문화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http://www.law.go.kr/법령/문화기본법/> 2016.1.22. 검색).

6) 문화향수실태조사는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경로와 방식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민 문화 향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1988년부터 2006년까지는 3년 주기로, 2008년부터는 2년 주기로 조사하며, 조사 항목은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실태, 문화예술교육 실태,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 실태, 문화 자원봉사 활동과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활동, 역사문화유적지 및 축제 관람 실태 등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b: vi).

때문에 사회정책적으로 사회 양극화의 문제를 문화적 영역에서 해소하려면 유년 및 청소년기 아동들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실제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이호영, 서우석, 2011: 113~114). 이는 과거에 경험한 문화적 학습과 향유할 수 있는 한정된 여건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학습되거나 내재화된 문화만을 중심으로 문화를 향유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서인석, 2015: 338).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문화 향유 능력이 단기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축적되고 내재화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과 지역의 차이에 상관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문화교육의 경험 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정부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 개선 필요

정부가 제시한 ‘문화융성’이라는 문화정책의 방향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학교의 예술교육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각 부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통령 업무 보고 내용 중 학교 예술교육⁷⁾ 관련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1> 교육부 업무보고 중 학교 예술교육 관련 내용(2013년~2016년)

연도	2013	2014	2015	2016
비전	행복교육, 창의인재 육성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학습 병행
전략	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①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① 꿈과 끼를 길러주는 학교 ②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학교	③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인재 육성

7)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http://www.law.go.kr/법령/문화예술교육지원법/2016.1.22>, 검색).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http://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2016.1.22>, 검색). 이와 같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과 ‘예술’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지시하기 위해 ‘문화예술’이 아닌 ‘예술’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연도	2013	2014	2015	2016
추진 과제	①-1.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진로 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성 확대	①-2.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교육 내실화 <input type="checkbox"/> 자유학기제 확산 <input type="checkbox"/> 예술·체육·인문교육 활성화 • 학생들의 예술 소양 신장 및 소외 지역 학생들의 예술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단위학교 지원 확대 및 학생동아리 활성화(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예술동아리 확대)	①-1. 자유학기제 확산 및 내실화 ②-4.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문, 체육, 예술 교육 활성화 •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 과목 또는 단위 신설 검토 및 연극교육 강화(예술교과 선택과목에 연극과목 개설 등) • 학생연극, 뮤지컬, 예술동아리 등 학교예술교육 활동 지원 확대	③-1.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③-2. 창의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교육 혁신 <input type="checkbox"/>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교육 실시(문체부와 협업) • 학교오케스트라,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동아리 활동 활성화 • 1학생 1예술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악기 지원 및 학교 예술강사 파견 확대 • ‘예술드림학교’, ‘예술교육거점 연구학교’를 신규 지정하여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 제공

출처: 교육부(2013a; 2014; 2015a; 2016a) 대통령 업무보고

<표 1 -1-2>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중 학교 예술교육 관련 내용(2013년~2015년)⁸⁾

연도	2013	2014	2015
추진 방향	①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	⑦ 문화로 일자리 창출	③ 생활 속 문화 확산
추진 과제	①-1.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input type="checkbox"/> 초·중고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으로 확대 실시 •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지도하는 예술강사 파견 <input type="checkbox"/>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실시 •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⑦-2. 문화, 스포츠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성, 상상력 함양 <input type="checkbox"/> 자유학기제와 연계 창의세대 양상 기반 강화(교육부-문체부 협업) •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우선 선정, 지원 및 토요문화학교 사업에 ‘문화예술 진로탐색	③-1. 생활, 지역 속 문화의 일상화 <input type="checkbox"/> 자유학기제 연계 문화예술 지원 강화(교육부 협업)

8)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2016년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설정하고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업무보고 내용에 학교 예술교육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16년 부분은 생략하였다.

연도	2013	2014	2015
	예술강사 파견 • ‘예술꽃 씨앗학교’ 확대 운영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유아, 청소년 등 대상 문화예술 체험과 감상 기회 확대 • ‘예술꽃 씨앗학교’ 확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3a; 2014a; 2015) 대통령 업무보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비교해 보면 추진 과제에서 ‘교육부와 협업’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예술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예술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주관부처이며, 예술교육이라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두 부처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부처의 협력이 공식적으로 처음 나타난 것은 2004년 11월 교육부와 문화관광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에서다. 그리고 2010년 7월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 방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방안 제시의 배경으로 창의·인성 함양에 예술교육이 핵심 요소이자 중요한 수단이며, 이것이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전공학교 이외의 일반학교에서 예술교육 제공 자체가 미흡하고 타 분야와의 융합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을 들었다(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2010: 1). 이에 중점 추진 과제로 교과활동에서의 예술교육 강화(다양한 예술 수업 모델 보급, 적용 및 음악, 미술 등 예술 교과와 시수 확대 유도),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 강화, 예술·체육중점학교 활성화 및 확대 등을 발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2010: 3~9).

그리고 이러한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위의 두 부처의 업무보고에 제시된 2011년의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과 2013년의 ‘학생 뮤지컬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공교육 내 예술교육의 기회를 확산하고, 특히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정부의 문화향유권 확대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10; 2013b: 2).

이밖에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전교생이 참여 가능한 초등학교 10개를 선정하여 4년 동안 매년 학교별 1억원 규모의 지원금과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문화예술교육 우수 모델을 키워내는 데 목적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434).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지원법」(법률 제11312호)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16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국악운영단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국악, 연극, 영화, 무용과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사진 분야의 강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2015년 예술강사 지원 사업」 강사 모집 공고).⁹⁾ 또한 2013년부터 시행된 ‘예술동아리 운영 지원 사업’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자기계발뿐만 아니라 인성, 적성 개발, 사회성 함양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음악, 미술, 공연/영상 분야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다(교육부 2013b: 11).

그런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사업들에는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의 수가 한정되어 있으며, 기간 또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들이 대상 학교에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는 일회적이어서 일관되고 지속적이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이 한정된 지역과 계층, 기간을 떠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 사업들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기획과 집행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로 유사한 사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점이다.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과 2006년 6월 동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문화관광부가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주도하였지만 2010년부터 교육부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육성 지원하였던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 사업’,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실제적인 집행 부처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부처 간에 중복 지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문화부처와 교육부처 간의 역할 분담 문제가 발생하였다(정연희, 2013: 339).

나아가 학교의 예술교육에 관여하고 있는 집행 부서들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만이 아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자체, 시·도 교육청,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다양

9) <http://www.arte.or.kr/information/notice/detail.do?nttNo=101601> (2016.1.22. 검색)

하며 양적으로 팽창되어 있다. 따라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첩성이 나타나며, 다양한 행위자간의 인식 공유의 부족, 역할기능의 정립 부족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임채홍, 홍성만, 박소연, 2012: 41). 따라서 학교 예술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처와 문화부처 그리고 지자체, 교육청, 문화예술계 등 학교 예술교육과 관련된 부서들이 유기적 연계성을 갖고 사업을 기획, 실행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현재 교육과정 내 교과교육으로서의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업은 특별한 예술교육 사업을 만들어 지원하거나 학교의 교사가 아닌 외부의 강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한시적이거나 부분적이기 때문에 학교의 예술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예술교육이 아닌 보편적인 교육으로서의 학교 예술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교과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은 공통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 교육과정으로, 보통교과로는 음악, 미술, 연극을, 전문교과로는 예술계열에 속하는 음악, 미술, 무용, 문학, 연극, 영화, 사진 관련 과목들을 학습할 수 있다.

하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시스템 속에서 일반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은 교육정책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2010년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 방안’에서 제시한 일반 학교에서의 음악, 미술 교과 수업 시수 확대를 비롯한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13년에서 2016년까지의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학교 예술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2015년 교육부에서 ‘2014년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운영 성과’에 대해 발표한 내용에서도 문화예술 소외지역 학교 및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예술동아리, 예술교육선도학교, 예술중점학교 운영에 307억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학교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교육부, 2016b: 2).

이러한 특별한 예술 프로그램 지원 중심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이 307억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의 음악교육과 미술교육의 수준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음악교육과 미술교육이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이다. 하나는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이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누리는 예술 향유의 범위와 수준은 학교에

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 즉 음악교육과 미술교육의 범위와 수준에 가장 크게 좌우된다. 다른 하나는 음악교육과 미술교육은 예술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범주로 이를 기초로 다양한 통합적인 예술의 형태가 나타난다. 따라서 음악과 미술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경험은 다양한 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태도와 향유 능력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4)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필요

학교 예술교육 중에서도 중학교는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초등학교에서 음악이나 미술 수업 시수가 한 학년군(2년) 동안 136시간에서 중학교에서는 3년간 68시간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에도 예술교육을 선택한 학교의 비율이 2014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74%에서 중학교 44.6%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40). 따라서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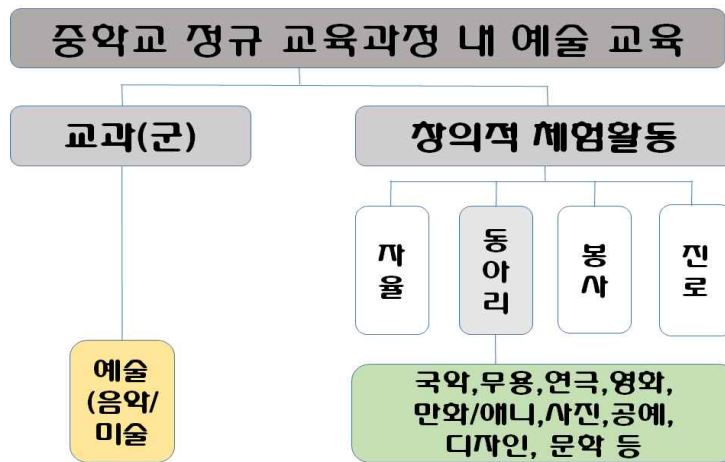
반면 중학교에서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 운영이 자유학기 활동에만 한정되지 않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되며, 자유학기에는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예술·체육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확대되었다(한혜정 외, 2015: 124). 따라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결국 중학교에서는 교과 수업 지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유학기 운영으로 예술교육의 기회는 열려 있는 상반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교과교육으로서의 음악, 미술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 등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로를 포함한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나. 연구의 목적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예술 향유를 위한 국내외 학교 예술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중학교 예술교육에서 예술 향유 실태 및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예술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1]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예술교육의 범위¹⁰⁾

2. 연구 내용

가. 학교 예술교육과 예술 향유의 의미와 범위 설정

- 학교 예술교육의 의미와 범위
- 학교교육에서 예술 향유의 의미와 구성 요소

나. 예술 향유를 위한 국내외 학교 예술교육 정책 분석

- 예술 향유를 위한 국내 학교 예술교육 정책
 - 학교 예술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법령, 계획, 자원 등)
 - 학교 예술교육 관련 세부 사업 및 과제(교육과정, 지원 사업 등)
 - 학교 예술교육 사업 집행 부서들의 역할 및 연계 체제
- 예술 향유를 위한 국외 학교 예술교육 정책
 - 프랑스, 아일랜드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

10) 교육과정 총론의 중학교 편제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자유학기 운영 기간에는 자유학기 활동이 추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예술교과(음악/미술),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 자유학기 예술활동을 모두 연구 내용에 포함하도록 한다.

다. 중학교에서의 예술 향유 교육 실태 및 요구 분석

- 중학교 음악, 미술 교과 예술 향유 교육 실태 및 요구
- 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예술 향유 교육 실태 및 요구
- 자유학기 예술 활동에서 예술 향유 교육 실태 및 요구

라. 중학교에서의 예술 향유 교육 우수 사례 분석

- 국내 중학교에서의 예술 향유 교육 우수 사례
- 국외(프랑스, 아일랜드) 중학교에서의 예술 향유 교육 우수 사례

마.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 모색

- 인적 지원
- 물적 지원
- 조직적 지원
- 법적 지원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 목적: 학교 예술교육 정책 관련 선행 연구 및 국내외 학교 예술교육 현황 분석
- 대상
 - 학교 예술교육 정책 지원 관련 선행 연구
 - 학교 예술교육 관련 법령 자료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 학교교육에서 예술 향유 국내외 우수 사례
 -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예술교과 교육과정
 - 학교 교육과정

- 시기: 2016. 3~6

나. 면담 조사

(1) 국내

- 목적: 예술 향유 우수 사례 및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현장의 요구 파악
- 대상: 중학교 음악, 미술 교사, 교장, 교감, 부장교사, 자유학기 예술 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교사
- 시기: 2016. 9

(2) 국외

- 목적: 외국의 중학교에서 예술 향유 우수 사례 수집 및 학교 예술교육 정책 담당자, 음악, 미술 교사, 자유학기 담당 교사, 교장, 교감 면담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대상 국가: 프랑스, 아일랜드
- 시기: 2016. 5. 17~28
- 대상 국가 선정 사유

<표 1-3-1> 국외 수업 관찰 및 면담 조사 대상 국가 선정 사유

방문 국가	선정 사유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교육 정책이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 하에 각 지방의 여러 관련 기관들의 공조로 기획, 진행되고 있음 ● 지역 문화 기관과 학교와의 연계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수학, 과학 등에 대한 국제성취도평가에서 상위에 위치하며, 대학입학경쟁이 치열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모들의 교육열과 교육 상황을 가지고 있음 ● 전환학년제를 운영한 지 40년이 넘어 우리나라 자유학기 운영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출처: 정연희(2008a); 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2009);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2010); 김왕준(2010)

다. 전문가 협의회

- 목적: 연구 방향 설정 및 각종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제고
- 대상: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시·도 교육청 장학사, 예술교육 전문가 등
- 시기: 2016. 3~10

라. 설문 조사

- 목적: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실태 및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요구 조사
- 대상: 중학교 320개교(전체 일반 중학교 3,204개교의 약 10%) 표집 후 학교별 음악, 미술 교사, 자유학기 예술 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교사, 중학교 학생
- 시기: 2016. 6~7

마. 연구 성과 발표회

- 목적: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연구 결과 확산
- 대상: 중학교 음악, 미술 교사 및 교장(감), 자유학기 예술 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교사와 강사, 교육부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음악교육과 미술교육 전문가, 예술교육 전문가 등
- 시기: 2016. 11. 24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예술교육의 의미와 범위
2. 학교교육에서 예술 향유의 의미와 구성 요소
3.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의 구조

1. 학교 예술교육의 의미와 범위

가. 예술 및 학교 예술교육의 의미와 범위

학교 예술교육의 의미와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제시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¹¹⁾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분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¹²⁾

그런데 위의 정의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법」에서의 문화예술의 범위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즉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몇 가지 장르로 한정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반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이러한 문화예술의 범위에 문화산업¹³⁾과 문화재¹⁴⁾를 포함하는

11) <http://www.law.go.kr/법령/문화예술진흥법/> (2016.1.22. 검색)

12) <http://www.law.go.kr/법령/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16.1.22. 검색)

1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는 문화산업을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건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건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http://www.law.go.kr/법령/문화산업진흥기본법/> (2016.1.22. 검색)

14)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① 유형문화재(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넓은 의미의 문화예술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의 좁은 의미에 의하면 문화예술의 범위가 예술의 범위와 다르지 않고, 후자의 넓은 의미의 문화예술의 의미와 범위를 따르게 되면 학교 문화예술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예술, 산업, 기술, 지식, 생활관습, 자연물, 자연현상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내용이 된다. 이는 「문화기본법」에서 정한 ‘문화’의 범위와도 충돌한다.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¹⁵⁾라고 문화에 대해 정의하여 자연물과 자연현상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 그런데 이 범위의 문제는 그 이전에 문화예술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예술이라는 용어는 문화와 예술의 합성어로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이다. 이로 인해 문화교육, 예술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까지 파생된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는 교육 내부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으로부터 그 발전적 모색의 일환으로 전래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문화 정책의 변화 속에서 발의된 것이다(정연희, 2008b: 149).

우선,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앞세워 교육을 시장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태도, 수월성 위주의 교육관에 의해 상존하는 무한 경쟁의 논리, 지식교육에 편향될 수밖에 없는 입시 위주의 교육 등 1990년대의 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반영한다(신승환, 연혜경, 2007: 27). 문화연대는 이러한 입장을 문화교육운동으로 연결한 문화운동단체이다. 문화연대는 복합적 인간능력을 단순화하는 기존 교육의 관행을 극복하고 지식 교육, 인성 교육, 예체능 교육의 균형 발달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교육체제가 필요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② 무형문화재(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③ 기념물(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④ 민속문화재(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다. <http://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 (2016.1.22. 검색)

15) <http://www.law.go.kr/법령/문화기본법/> (2016.1.22. 검색)

하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교육체제의 이념을 ‘문화교육’으로 설정하였다(신승환, 연혜경, 2007: 28, 재인용).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문화 정책을 주관하는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을 그 부처가 안고 있던 문화예술 인력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어 문화예술교육정책으로 성립시키게 된다. 구체적으로 2003년 4월 문화관광부 내에 문화예술교육 TF를 설치한 이후 2004년 11월 문화관광부와 교육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8: 21).

결국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도를 담고 있다. 첫째는 개개인의 문화예술 향유력 확대와 창의적 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사회·문화적 목표와 학교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전인적 인격형성을 하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여 우리사회의 문화적·교육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즉 교육의 입장에서는 학교교육의 문제점인 지식 위주의 교육내용과 입시위주의 교육체계를 보완하면서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에서 문화예술 영역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입장에서는 개인 및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이를 개선 혹은 확장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양극화와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분야 배출 인력의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접근되었다. 즉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예술 강사로 채용함으로써 국가가 나서서 문화예술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다(김세훈, 2012: 25).

결국 문화예술교육이 기존 교육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 형태로 출발했으나 문화예술교육의 교육 철학과 정책, 내용, 교육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즉 문화예술교육의 일차적 목표가 문화와 예술의 진흥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교육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계, 현장 교사, 연구자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폭넓게 연구, 논의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민 운동적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그 내용의 적절성이나 현실성 여부를 떠나 문제의식과 이해의 공유에 일정 정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신승환, 연혜경, 2007: 29).

이렇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을 근거로 정부 주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에 힘입어 역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개념화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¹⁶⁾ 첫 번째는 문화예술에서 문화를 상위개념으로 설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이 예술교육을 포괄하는 문화교육으로 보는 입장이다. 예술을 매개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문화교육의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와 예술을 병렬 개념으로 이해하여 문화예술교육이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이 합쳐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때 예술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는 확장된 개념이다(신승환, 연혜경, 2007: 36~37). 하지만 이 두 입장 모두 학문적 공감대 형성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각각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는 정책용어로 출발하여 법적 권한까지 부여 받았지만 이를 학문적이면서 사회적인 정의로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학문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예술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편 ‘예술’은 국어사전에 따르면 “① 기예와 학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②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 공간 예술, 시간 예술, 종합 예술 따위로 나눌 수 있다. ③ 아름답고 높은 경지에 이른 숙련된 기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되고 있다.¹⁷⁾ 이때 첫 번째와 세 번째 정의는 예술이 원래 기술과 같은 의미를 지닌 어휘로서, 어떤 물건을 제작하는 기술능력을 가리켰던 것과 관련된 것이다.¹⁸⁾ 따라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두 번째 의미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으로 이 연구에서의 예술을 정의하도록 한다.

이러한 예술의 정의에 따라 학교 예술교육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16) 신승환, 연혜경(2007)에서는 이를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으나 나머지 두 개는 각각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에 대한 개념 논의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제외하였다.

17)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6.5.2. 검색)

18) 예술이라는 한자에서 ‘예(藝)’에는 본디 ‘심는다(種 樹)’는 뜻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기능(機能)’ ‘기술(技術)’을 의미하며 고대 동양에서 사대부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였다. 서양에서도 예술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테크네(technē), 라틴어 아르스(ars), 영어 아트(art), 독일어 쿤스트(Kunst), 프랑스어 아르(art) 등도 일반적으로 일정한 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숙련된 능력 또는 활동으로서의 ‘기술’을 의미하였던 말로 오늘날 미적(美的) 의미에서의 예술이라는 뜻과 함께 ‘수공(手工)’ 또는 ‘효용적 기술’의 의미를 포괄한 말이었다. 이러한 기술로서의 예술의 의미가 예술 활동의 특수성 때문에 미적 의미로 한정되어 기술일반과 예술을 구별해서 ‘미적 기술(fine art)’이라는 뜻을 지니게 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7642&cid=40942&categoryId=32856> (2016.5.2. 검색)

그 작품에 대해 또는 그것을 통해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 예술교육에서 예술은 직접적인 교육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 예술교육에는 예술을 교육하는 것과 예술을 통해 교육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학교 예술교육의 범위에서도 예술과 마찬가지로 공간 예술, 시간 예술, 종합 예술 등 다양한 표현 양식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제시한 문화예술의 범위와도 다르지 않다.

나.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예술교육의 의미와 범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예술교육은 예술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예술동아리 활동, 자유학기 예술 활동을 포함한다.

예술교과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¹⁹⁾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편제와 수업 시수 배정에 있어 교과 이기주의로 인한 경직성과 폐쇄성을 탈피하여 교과 간 소통을 촉진하며,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탄력성 있게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군을 도입하였다. 또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10개 기본 교과 중 교육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실제 생활양식에서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음악과 미술이 '예술(음악/미술)'로 묶인 것이다(조난심 외, 2010: 34).

그런데 예술교과의 경우 다른 교과군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교과군의 경우 묶인 교과들의 이름이 교과군의 명칭으로 그대로 표기되는데 반해 예술교과의 경우 음악과 미술을 합하여 예술이라는 더 큰 범주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도덕과 사회는 '사회(역사포함)/도덕'으로, 과학과 기술·가정은 '과학/기술·가정'으로 묶인 것이다(교육부, 2015b: 10). 하지만 음악과 미술이 합하여 '음악/미술'이 아닌 '예술(음악/미술)'이 된 배경과 예술교과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보통교과에서 예술교과는 일반 선택으로 음악, 미술, 연극이 제시되어 있어 예술교과에 음악, 미술만이 속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와도 맞지 않는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지식 위주의 학교교육의 관행을 개선하고 전인적 성장이 가능한 학교 교육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것이다. 세부 영역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19)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예술 교과는 제5차 교육과정(1987년 고시)에서 만들어졌으나 이 당시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제외하도록 한다.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15b: 10). 이중 예술 활동이 가능한 영역은 동아리 활동이다. 동아리 활동 중 예술 활동에는 문예, 창작, 회화, 조각, 서예, 전통예술, 현대예술, 성악, 기악, 뮤지컬, 오페라, 연극, 영화, 방송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예술에 속하는 다양한 장르와 종합예술에 대해 경험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7).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2013년부터 시범학교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의 중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교육의 기본방향을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으로 설정하면서 자유학기제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였다(박근혜 외, 2014: 29).

자유학기제는 진로탐색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선택프로그램의 4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예술·체육활동 중 예술활동 프로그램은 음악과 미술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음악 프로그램으로는 합창, 뮤지컬, 국악, 오카리나, 우크렐라, 작곡, 밴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술 프로그램으로는 공예, 애니메이션, 조소, 감상, 패션디자인, 캐리커처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정애 외, 2015: 906).

따라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예술교육은 음악, 미술 교과 또는 음악과 미술 내 장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 실태로 볼 때 예술교육의 의미와 범위가 앞서 규정한 학교 예술교육의 의미 및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예술(음악/미술)’의 명칭은 예술의 의미나 범위와 맞지 않을뿐더러 실제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도 많이 다르므로 ‘음악/미술’로 수정되어야 한다. 각 분야에서의 명칭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다.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공통 교육과정에서의 교과는 음악과 미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범위의 예술 영역에 대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 예술 활동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학교교육에서 예술 향유의 의미와 구성 요소

가. 예술 향유의 의미와 구성 요소

‘향유(享有)’의 의미는 국어사전에 ‘누리어 가짐’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 ‘누리다’는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²⁰⁾ 따라서 이를 예술에 적용하면

예술을 향유한다는 것은 ‘예술을 생활 속에서 자기 것으로 하여 즐기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유’는 우리나라에서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정책에서 ‘향유’가 사용된 것은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시기 ‘문화시설 확충과 지방 문화 육성을 통한 국민 모두의 문화 향유 기회 확보’를 문화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면서부터이다. 이후 문화 향유는 문화 복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정책에서 사용되는 ‘문화 향유’는 위에서 제시한 사전적 의미에 따라 구체적인 용어나 내용에 대한 규정 없이 스스로 문화를 즐기고 누린다는 개인의 적극적인 의지에 대한 표현과 연관된 의미로 포괄적으로 사용된 것이었다(김태형, 김미현, 2015: 3; 이재호 외, 2010: 106; 홍윤미 외, 2015: 188; 최은용, 2014: 224).

문화 또는 예술정책 관련 연구들에서도 ‘향유’가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 일치된 용어나 내용을 내놓기 보다는 향수, 소비, 욕구 등의 다양한 용어를 향유와 동일한 의미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98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향수’는 ‘향유’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실태조사의 제목은 ‘문화향수’로 되어 있지만 조사의 목적에서는 문화 향유 실태 분석으로 제시되어 있어 향수와 향유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조사 항목이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실태, 문화예술교육 실태, 문화예술활동 공간 이용 실태, 문화 자원봉사 활동과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활동, 역사문화유적지 및 축제 관람 실태 등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b: vi).

또한 문화 향유를 문화 소비와 같은 의미로 보는 입장도 있다. 문화예술을 예술가 또는 제작자에 의해 생산(창작)되고 유통(공연, 전시)되어 마지막 소비자가 소비(향유)하는 과정으로 보아 문화예술 향유를 이 과정 중 마지막 단계로 보는 것이다(김수현 외, 2013: 525; 류태건, 2008: 69; 최은용, 2014: 224).

서인석(2015)은 ‘문화 향유’와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문화 욕구’를 제시하고, ‘사회의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 또는 그 결과물을 얻거나 그와 같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정의한다(서인석, 2015: 341).

한편 문화 향유가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화 향유 능력의 유무 및 수준에 따라서 차별화된 신분체계 내지 인정체계가 공고해져 왔다는 점에

20)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6.5.2. 검색)

서 평등권의 하나로서 문화의 보편적 향유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이종수, 2015: 11).

이에 문화 향유는 현 정부의 문화 정책에서 국민의 권리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권’이다. 문화권은 2013년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을 통해 모든 국민의 법적 권리로 인정받게 된다.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라고 제시하고 있다.²¹⁾

「문화기본법」을 통해 문화 향유가 권리로 인정됨과 동시에 문화 향유의 범위에 대한 구체화도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즉 문화 창조, 문화 활동 참여가 문화 향유의 범위로 규정된 것이다. 이러한 문화 향유의 개념을 예술 향유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예술 향유는 예술을 창조하거나 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예술을 즐기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 및 정책 연구들에서 향유는 즐기고 누린다는 포괄적인 의미부터 관람 및 참여, 욕구 등의 구체적인 의미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정책 또는 정책 연구에서 ‘향유’의 의미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는 한편 철학 및 심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도 ‘향유’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그 속성을 밝히려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우선 철학적 접근을 보면, 프랑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향유를 ‘세상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즐기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방식이 곧 향유라는 그의 주장과도 연결되는 것인데, 인간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세상을 느끼고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에게 있어 향유는 생존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앞서는 보다 근원적인 본능이라는 것이다(이경화, 2012: 169). 나아가 향유는 절대적 인간성, 절대타자성, 자아의 바깥으로 향해 나아가는 필수조건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향유를 위해서는 자아의 만족이 필수적인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자아의 만족이 통상적 개념의 즐거움(pleasure) 뿐만 아니라 고통, 타자에 대한 절대적 수동성(total passivity)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이재성, 2004: 99). 따라서 향유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초월적이며 근원적인 경험을 의미하게 된다.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이 통합적인 연구 분야의 하나로 등장하면서 긍정 정서성의 개념을

21) <http://www.law.go.kr/법령/문화기본법/> (2016.1.22. 검색)

제안한 왓슨(Watson, 2002)은 향유하기를 ‘현재 순간을 포착해서 마음껏 즐기는 행위’를 의미하는 Savoring이란 단어로 정의하고 향유하기가 긍정의 정서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향유하기를 Savoring으로 표현한 이유는 사람들이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포착한다는 점 때문이다. 즉 즐거움의 결과보다는 즐거움을 찾아나서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권오정, 윤영길, 2012: 5, 재인용).

또한 브라이언트와 베로프(Bryant & Veroff, 1984)는 향유하기를 ‘긍정적인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음미하면서 즐거움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향유는 단순히 즐거움을 경험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일부에 대한 반성적 통찰까지도 포함하며, 저절로 감상이 시작되거나 즐거움을 위해 개인이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조현석, 2007: 2~4). 따라서 향유하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지적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향유를 ‘문화 수용 행위에서 능동적으로 참여적인 자세로 참여적 수행과정을 통해서 텍스트를 주체적으로 즐기는 것’으로 정의한다. 특히 ‘텍스트에 참여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수용과 다르고 ‘참여적 수행을 통해 텍스트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소비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참여적 수행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텍스트의 지평은 확장되며 향유의 과정은 풍요로워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박기수, 2003: 203). 또한 즐긴다는 말은 주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개입을 전제로 한다. 텍스트 내적으로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인 가변적인 네트(net)로 인식하고, 텍스트 외적으로는 향유자의 체험이 텍스트의 일부가 되며, 이러한 개별 향유자들의 향유공동체를 형성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들이 바로 향유의 구체적인 양상들이다. 따라서 향유는 근본적으로 과정적이며, 조형적(plastic)이며, 대화적인 것이다(박기수, 2006: 53~54).

그런데 위의 연구들에서는 향유의 의미 규정에 그치지 않고 향유의 속성을 규명하고 이를 향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향유의 구성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능동성, 긍정적 정서의 경험, 참여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능동성은 주체성, 자발성과도 비슷한 의미로 예술 향유자가 남의 지시가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 스스로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성과 관련된 것이다. 능동성은 개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시작되지만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개인의 경험이 축적되고 그것이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유자들의 능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향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긍정적 정서는 좋아함, 의기양양, 기쁨, 즐거움, 희망 등의 정서적 표현 요인을 포함한다(나일주, 성은모, 2005: 53).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유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며,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은 사람들의 사고를 독특하고 유연하게 만들어 보다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36). 따라서 예술 경험이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것이 될 때 예술에 대한 향유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성향까지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일반적으로 참여란 집단의 목표에 기여하도록 격려하고 목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도록 개인의 집단 상황에 대한 지적이고 정서적인 관여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하지만 향유에서의 참여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성향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자신이 직접 향유 대상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행위에 더 가깝다. 또한 향유 대상의 선택, 이용 시간, 이용 방법 등을 선택하여 즐기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56). 따라서 예술 향유에서의 참여의 과정에는 참여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적, 정서적 성향이 반영된다.

이와 같이 예술 향유의 구성 요소는 예술을 향유한다는 것이 예술을 단순히 즐기거나 수용하고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유자의 지적, 정의적, 실천적 관여를 포함한 복합적인 과정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예술 향유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종합해 볼 때 예술 향유는 ‘예술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개인의 지적, 정의적, 실천적 과정 및 그 결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술 향유 능력은 ‘예술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한 개인의 지적, 정의적, 실천적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그 구체적인 속성 또는 구성 요소로는 능동성, 긍정적 정서, 참여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예술 향유의 정의에 따라 예술 향유의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능동성은 실천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 정서는 정의적 영역에, 참여는 지적, 정의적, 실천 영역 모두에 해당된다. 예술 향유의 개념과 구성 요소와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2-1] 예술 향유의 개념과 구성 요소의 관계

나. 학교교육에서 예술 향유 구성 요소의 적용

2000년대 전후로 두드러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웰빙이라는 용어와 함께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술 및 예술교육 정책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입시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지식 전달 위주, 엘리트 중심의 예술교육이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명칭이 제안되었다. 이는 전문가들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²²⁾

학문의 영역에서 인간의 삶의 질 또는 행복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웰빙은 단순히 돈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을 통해 해소될 때 비로소 가능함을 강조한다. 이중 문화소비 및 향유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서인석, 2015: 340). 특히 인구의 고령화, 명예퇴직, 여가 시간의 증가로 시간의 대부분을 컴퓨터와 TV, 주류 문화와 향락 문화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21세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들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평생학습은 더욱 요청되어지고 있다(노현정, 2013: 94).

학교 예술교육의 중요성 중의 하나는 한 인간이 평생 살아가면서 높은 삶의 질 즉 웰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향유 능력의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문화 향유 능력은 오랜 시간의 향유의 경험과 교육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며, 학교의 예술교육은

22)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2장 1절 참조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전 국민에게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예술교육의 효과를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인 것이다.

특히 예술교육이 자존감, 행복감, 창의성, 협동성, 사회성 등 다양한 인성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예술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정시설/소년원학교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임영식 외, 2011)나 서울문화재단의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효과성 분석 연구(정문성 외, 2011),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사업 효과성 연구(정문성 외, 2012)와 같은 사례들에서 예술교육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다(정문성, 2012: 112).

그런데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여전히 입시 위주와 지나친 경쟁구도 안에서 인성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학교 폭력이나 자살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포함한 교육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²³⁾ 특히 중등학교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홀대와 무관심은 학생들의 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우관호 외, 2013: 156).

결국 학교 예술교육에서의 예술 향유는 청소년들의 인성 형성과 평생 교육의 토대 형성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학교 예술교육을 통해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에 대한 실태 분석이 이루어지고 개선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술 향유의 실태나 정도를 측정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그 지표로 관람이나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가 수량이나 수치보다는 질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 온 것과 달리 예술 향유의 정도는 질적인 개념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향유 가치가 다른 사람보다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거나 아니면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이재호 외, 2010: 108~109). 따라서 예술 향유 정도를 의미할 때에는 측정 지표들을 기준으로 예술 향유 실태를 분석하거나 비교 분석을 통해 상대적 경향을 파악한다.

관람이나 참여(교육 포함)를 향유 측정의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홍윤미 외(2015)에서는 문화예술상품 향유를 문화예술 전체 관람 횟수, 순수문화예술 관람 횟수, 대

23) 2013년 청소년(9세~24세) 사망 원인의 1위가 고의적 자해(자살)로 나타났다(통계청 보도자료, 2015.4.28). 또한 2014년 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1만9천521건으로 2013년에 비해 10% 증가하였다(연합뉴스, 2015.6.25).

중문화예술 관람 횟수로 구분하고 있다(홍윤미 외, 2015: 196). 또 하수연(2012)은 문화예술 향유인식의 하위 요인을 문화예술관람과 향유 인식, 미적체험예술 교육과 향유인식, 문화예술활동과 향유인식으로 설정하고 있다(하수연, 2012: 66).

이와 달리 최은용(2014)은 문화향유의 측정 항목을 문화예술을 규칙적으로 즐김,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노력,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 문화예술 경험을 위한 투자 등 네 가지로 제시하여(최은용, 2014: 229)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규칙성, 노력, 정보, 투자 등 좀더 양적으로도 강화되고 질적인 가치도 측정하며 경제적 투입 정도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교육에서 예술 향유 실태를 분석할 때에는 관람이나 참여 또는 정보, 투자 등 개인의 향유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들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대부분의 관람이나 참여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람이나 참여는 학교의 행사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행사 또한 개인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예술 향유 실태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 참여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 개인의 예술 향유 실태에서는 학교 내외에서의 참여를 포함할 수 있다.

둘째, 관람과 참여 등 학생 개인의 예술 향유 정도만을 측정해서 상호 비교분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관람과 참여의 정도는 예술 향유 실태에 대한 양적 분석만을 가능하게 할 뿐 예술 향유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성향, 선호, 관심 등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 향유의 지적, 정의적, 실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태 분석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양한 요인들이 개인의 예술 향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개인의 예술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거론되는 것은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다. 개인적 특성에는 문화자본, 경제자본,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포함된다(홍윤미 외, 2015: 190~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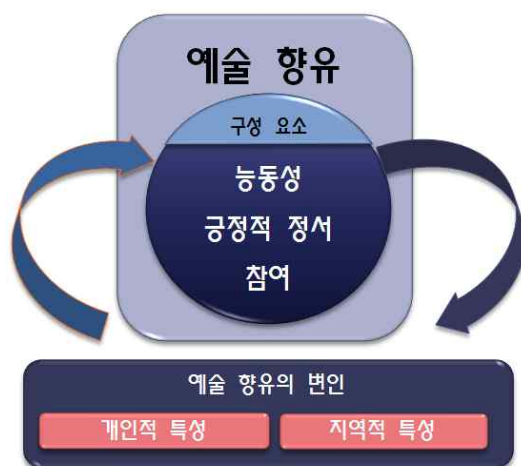
우선, 개인적 특성 중 문화자본은 개인의 문화에 대한 자본을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본인이 어린 시절 문화예술이 제공된 환경에서 성장하거나 정규 교육 이외에 문화, 예술 관련 교육이나 동호회 등에 참여하여 체화된 지식을 총칭한다(최은용, 2014: 223). 문화자

본은 개인의 예술에 대한 관심, 성향, 선호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자본은 소득 및 소득 창출원으로서 직업을 말한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및 가족 수, 자녀 양육 여부, 부양가족 수 등 가족 구성 유형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지역적 특성은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으로 지역의 규모, 예술 관련 시설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적, 질적 특성을 말한다. 지역차원에서 문화는 한 지역의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양식 등이 담겨있기 때문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형성과 인식에 중요한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이재호 외, 2010: 106).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예술 향유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로서의 능동성, 긍정적 정서, 참여, 상호작용과 함께 예술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인), 즉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함께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예술 향유의 구성 요소는 우수 사례를 선정할 때에도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규 교육과정으로서의 중학교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교과(음악, 미술), 창의적 체험활동 중 예술동아리 활동, 자유학기 활동 중 예술 활동에 대해 능동성, 긍정적 정서, 참여의 관점에서 실태를 분석하거나 우수 사례를 선정하며, 실태 및 우수 사례를 분석 과정에서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과를 도출한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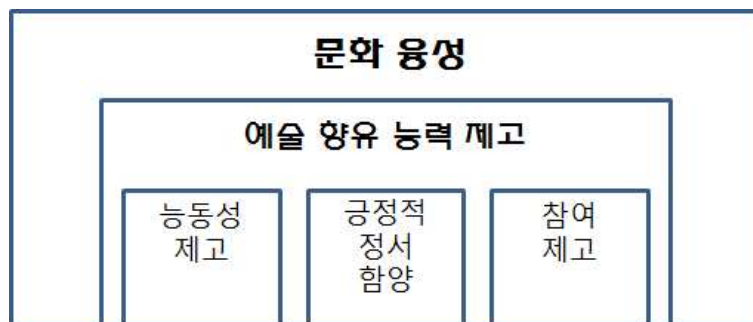
[그림 11-2-2] 중학교 예술 향유 실태 및 우수 사례 분석 틀

3.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의 구조

가. 정책 목표로서의 예술 향유 능력 제고

정책은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또는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공적 기관이 공권력을 발휘하여 행하는 각종 활동을 의미한다. 이 때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문제(problem)’는 사회 구성원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갈등이 빚어질 때 발생할 수도 있고, 현실과 구성원 다수가 지향하는 당위 사이의 간극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이종재 외, 2015: 163~164). 후자의 경우 구성원 간의 갈등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하며, 어떻게 하면 현실을 개선하여 당위와의 거리를 좁힐 것인가가 정책 문제가 된다. 이 연구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경우가 전형적으로 후자의 사례에 속한다.

정책은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의 결합으로 구성된다(정정길, 1997: 59). 정책 목표는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의미한다.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의 경우 ‘예술 향유 능력 제고’가 곧 정책의 목표이다. 그런데 대개 정책의 목표는 단일 차원에서 설정되지 않는다. 정책 목표는 다양한 차원에서 위계 관계를 형성한다. ‘예술 향유 능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의 경우 ‘문화 융성’이라는 정부 차원의 정책 목표의 하위에 위치하며, ‘예술 향유’의 범위에 예술 창조와 예술 참여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예술 창조 능력 제고’와 ‘예술 참여 정도 제고’는 ‘예술 향유 능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의 하위 목표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예술 향유 능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는 다음 그림과 같은 목표 체계를 구성한다.



[그림 II-3-1] 예술 향유 능력 제고 지원 정책의 목표 구조

일반적으로 정책 목표는 세 가지 기능을 한다(정정길, 1997: 58~59). 첫째, 여러 가지 정책 수단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정책 목표가 이용된다. 둘째, 정책 목표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모종의 활동을 할 때 길잡이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평가하고자 할 때 정책 목표가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의 경우 정책 목표로서의 ‘예술 향유 능력 제고’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후속되는 정책 수단의 선택과 정책 평가 작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예술 향유 능력’의 개념을 규정하는 문제는 이 정책의 전 과정에 심대한 의의를 지닌다.

나. 예술 향유 능력 제고 정책 수단의 유형

정책 수단은 말 그대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책 수단은 정책의 실질적 구성 요소가 되는 것으로서 흔히 정책 수단과 정책을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다. 즉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예술 관련 공적 기관을 설립하기로 하였다면 공적 기관 설립은 정책 수단이지만 대중들은 기관 설립을 곧 정책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정책 수단이 곧 정책을 의미할 만큼 정책 수단은 국민들 또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을 둘러싼 여러 집단은 각기 선호하는 정책 수단을 채택하고 선호하지 않는 정책 수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한다. 즉 정책 수단의 채택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곧잘 일어난다. 따라서 정책 수단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효과성과 능률성 같은 준거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같은 다양한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야 한다(이종재 외, 2015: 254).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정책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을 분석하고 각 집단이나 개인들이 어떤 정책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일에 앞선다.

정책 수단은 실질적 정책 수단(substantive policy means)과 실행적 정책 수단 또는 보조적 정책 수단으로 대별된다(정정길, 1997: 61~63). 실질적 정책 수단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을 의미하며 정책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하였다면 이 설립 방침이 곧 정책 수단이 된다. 이에 비하여 실행적 정책 수단은 실질적 정책 수단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인데 정책 대상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집행 기구, 집행 요원, 자금, 공권력 등이 이에 속한다. 실질적 정책 수단과 달리 실행적 정책 수단은 정책의 종류

와 관계없이 대동소이하다.

본 연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는 일은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학교 울타리 너머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는 사회 속의 예술 전문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정책이 집행되는 장소를 ‘학교’로 상정할 때 정책 수단은 제한된다. 즉 학교 너머의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수단과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의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현실 분석과 이해 관계자들의 소망 등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 제시하는 편이 온당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정책에 활용되는 실행적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인적 지원

대개의 사회 정책은 사람이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교육정책의 경우 실력과 품성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일은 중요한 정책 수단을 구성한다. 학교에서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기르고 배치하고 지원하는 일은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된다.

이 정책 수단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 향유 능력 제고 정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은 교사와 교사 아닌 강사가 될 것이다. 교사의 경우 물론 음악이나 미술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직접 지원 대상이 될 것이지만 학교 내의 교육 활동 전반을 예술 향유라는 관점에서 재구조화 또는 재조직화 하는 것을 정책의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 행정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강사의 경우 방과후학교나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자유학기제 기간 중의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둘째, 교사나 강사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양성, 충원, 사기 진작, 활동 개선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즉 학교에서 문화 예술 교육을 담당할 교사 자원을 기르는 일, 이미 양성된 교사나 강사 자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충원하는 일,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가 강사의 사기를 진작하는 일, 교사나 강사의 활동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등이 정책 수단에 포함될 수 있다.

● 물적 지원

물적 지원은 금전적 지원과 시설 지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학교에서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음악실이나 미술실을 신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경우 이는 시설

지원을 정책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설 지원은 재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금전적 지원과 시설 지원은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전적 지원은 시설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금전적 지원만을 명시하는 경우 확보된 재정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 지원과 별도로 시설 지원을 명시하는 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한편 물적 지원은 금전과 시설을 불문하고 새로 확보하거나 신축하여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활용 중인 시설의 운용을 개선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흔히 정책을 구상할 때 전자만을 중시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후자가 훨씬 정책 수립이 용이하며 집행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

● 조직적 지원

인적 지원과 물적 지원을 결합하여 특정한 조직을 창설하는 일은 자주 활용되는 정책 수단이다. 예를 들어 문화 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일은 조직적 지원의 대표적 사례다(문화사회연구소, 2012: 19, 71). 조직적 지원과 관련하여 흔히 쟁점이 되는 것은 설치 주체 또는 설치 단위이다. 즉 중앙정부 수준의 기관을 설립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기관을 설립할 것인지, 더 자세히는 광역 지자체 수준(시·도)의 기관이 적합할지, 기초 지자체 수준(시·군·구)의 기관이 적합할지가 종종 쟁점이 된다. 물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신설과 함께 기 설치된 조직의 운용을 개선하는 일 역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법적 지원

이상 살펴본 인적 지원, 물적 지원, 그리고 조직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두는 일은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정책 수단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여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전형적인 사례다. 학교에서의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고자 할 때에도 적절한 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법적 지원은 법원(法源)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

에 근거하여 전국을 단위로 통일적으로 시행할 정책이 있는가 하면 국회 제정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시행할 정책이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시행령이 정책 수단이 된다. 근래에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시·도 단위의 각종 사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경우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정책 수단이 된다. 한편 법적 지원 역시 법령은 제정하는 일과 함께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일도 정책 수단이 된다.

이상 검토한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단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1-3-2]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 수단의 구조

다. 예술 향유 능력 제고 정책의 전달 체계

단순한 정책의 경우는 하나의 공적 기관에서 정책을 결정하여 정책 대상에게 직접 집행되지만 많은 사회정책은 여러 단계의 전달 체계(policy delivery)를 거치게 된다.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학교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강사 포함)은 정책의 대상 집단이 된다.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결정하는 정책은 그 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시·도교육청이 될 수도 있으며, 학교가 될 수도 있다. 일부 경우에는 교사(또는 강사)를 직접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광역시)와 시·군·구(기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역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정책은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시·도교육청이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엄밀하게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연계·협력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학교와 교사를 직접 대상으로 삼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다. 기초 지자체가 결정하는 정책은 대개 그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에서의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한 정책 결정자가 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한다. 교육지원청도 학교에서의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 그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범위에는 포함할 수 없지만 개별 학교에서 소속 교사를 대상으로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정책 주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앞 절에서 살펴본 인적 지원, 물적 지원, 조직적 지원, 법적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지원 주체		지원 대상	인적 지원	물적 지원	조직적 지원	법적 지원	기타
학교		교사					
		학교					
교육청		교사					
		학교					
		지자체 (연계협력)					
		교육청 (연계협력)					
지 자 체	광역	교사					
		학교					
	기초	교사					
		학교					
국 가		교사					
		학교					
		교육청					
		지자체					

[그림 11-3-3]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전달 체계의 틀

이 틀은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주체와 대상에 따른 정책 수단별 지원 방안을 정리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III

예술 향유를 위한 국내외 학교 예술교육 정책

1. 국내 학교 예술교육 정책
2. 국외 학교 예술교육 정책

1. 국내 학교 예술교육 정책

이 장에서는 역대 정부 및 현 정부의 예술 향유와 관련된 문화 정책과 학교 예술교육 정책을 검토하고,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가. 역대 정부의 문화 정책과 학교 예술교육 정책

해방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문화 정책은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각 정부의 문화 정책에서 추구되었던 가치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다.

이승만 정부(1948.8~1960.4)에서는 한국전쟁과 정치적 격동의 시대적 상황으로 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국민의 문화 욕구가 미미하였다. 박정희 정부(1961.5~1979.10)에서는 문화를 경제 개발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였고, 문화 정책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민족주체성 확립’에 초점을 두었다(이경언, 2014: 84).

전두환 정부(1980.2~1988.2)에서는 ‘문화적 혜택의 복지적 분배 및 문화 복지 정책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지방문화육성을 통한 국민 모두의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을 문화 정책의 목적으로 삼았다(이경언, 2014: 84, 재인용). 이때부터 문화 정책에 ‘국민 모두를 위한 향유’의 개념이 포함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각 정부에서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문화체육관광부, 2013b: 6). 1980년대 이후 국민복지 추구의 문화 정책이 강조되었는데,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인간 소외 문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계층별, 세대별, 지역별 격차,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가 경제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며 문화적 공감, 이해, 소통 등을 통한 정신적 안정과 풍요가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사회 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에서 문화격차 해소에 기초한 전 국민의 문화 복지가 문화 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1988~1993)에서는 ‘문화복지 정책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예술의 지역적 확산’, 김영삼 정부(1993~1998)에서는 ‘문화의 산업적 접근 본격화 및 문화복지를 문화 정책의 핵심정책’으로 하는 문화 정책이 추진되었다(이경언, 2014: 84).

김대중 정부(1998.2~2003.2)에 들어서서 문화 정책에서 문화의 산업적 고려의 비중이 커지면서 문화 복지에 대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b: 10). 한편 2000년대 초부터 공급자 중심에서 향유자 중심으로 전환된 문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졌다(정연희, 2013: 329). 향유자 중심의 문화에

술교육 정책의 이념이 점차 학교 예술교육 분야로 확산되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예술과 문화의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술강사지원사업과 학교연계지역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문화 정책의 방향이 ‘창의적 문화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문화산업 육성에 편중되면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요청되는 창의성 함양을 위한 순수 예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문화체육관광부, 2013a: 12). 인간의 삶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정책 형성에의 의지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 학교 예술교육을 위한 정책은 학교 연계 예술강사지원사업 뿐으로 그 정책의 목적이 예술인 일자리 창출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예술 향유 능력 함양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정연희, 2013: 341).

노무현 정부(2003.2~2008.2)는 참여 정부의 슬로건인 ‘자율’, ‘참여’, ‘분권’의 3대 가치를 문화 분야에서도 구현하고자 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b: 12). 2004년 6월에는 ‘창의한국,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을 발표하고, 3대 정책 목표로 창의적인 문화 시민, 다원적인 문화 사회, 역동적인 문화 국가를 제시하여 문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2004년 6월에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을 발표하고 4대 정책방향 중 첫 번째를 ‘향유자 중심의 예술 활동 강화’로 제시하였으며, 그 정책 내용에는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향유 능력 개발, 생활 속의 예술 참여 활성화, 예술의 공공성 제고가 포함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b: 12).

‘문화 향수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복지 구현’이라는 문화 정책의 방향이 문화예술교육 정책에도 반영되어 문화 정책의 대상이 창작자 중심에서 향유자 중심으로, 예술가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된 시점은 노무현 정부 때라고 볼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b: 12). 즉 문화 정책의 수혜자가 취약 계층, 소외계층, 예술가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국민의 예술 향유 능력’을 증진하려는 취지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화예술을 통한 ‘창의한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과 사회의 창의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대두되기 시작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b: 13). 문화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 발전을 추구하였는데 이것이 문화 정책의 키워드로 ‘창의성’이 부각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창의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2005년부터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문화 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2004.11)’을 국회에 발표하고,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이경언, 2014: 92). 이를 계기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 12월 건강한 문화예술교육의 성장과 국민 모두가 진정한 문화복지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로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하고, 2006년 6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을 공포하여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2004.11)’의 추진 목표 중 첫 번째를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로 제시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강조하였다(이경언, 2014: 92). 그 구체적인 내용은 ‘초·중등학교의 문화예술교육과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안 등을 개발·보급하며, 이를 위한 전문 예술강사로 이루어진 강사풀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었던 예술강사지원사업은 더욱 확대되게 되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2004.11)’에 의거하여 문화관광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인 업무 수행과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해 2005년 2월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하였다(정연희, 2013: 329).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을 시발점으로 학교 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명박 정부(2008.2~2013.2)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를 문화 정책의 이념으로 설정하고 선진 일류 국가를 추구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b: 14). 문화를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개념으로 확장하여 사회 및 국가 발전의 목표로서 문화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예술의 수월성 제고, 문화향수권의 신장, 국가정책에서의 문화적 관점 확산, 문화 정책의 역할 분담(cultural governance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추구하였다.

‘문화와 일상생활과의 연계’ 및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소통하는 사회 정책으로서 사회 취약 계층,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공감 사업, 다문화가정 문화 예술체험 및 교육 지원 등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문화 정책의 주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b: 14).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던 ‘문화 향수 및 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 문화 복지 정책의 범주는 이명박 정부에 와서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문화 정책으로 문화 정책 수혜자의 범주가 축소된 경향이 있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문화산업이 국가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인식되었고, 창의산업의 기반인 창의성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b: 14).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에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정연희, 2013: 331). 이 업무 협약의 체결로 2008년에는 전체 초·중등학교의 32.9%(3,626개소), 2009년에는 에 달하는 학교에 총 5개 분야의 예술 강사를 지원하였다. 2007년부터 추진해왔던 문화예술교육선도학교 지원사업과 예술꽃씨앗학교 등을 집중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43%(4,699개소)에 예술 강사를 지원하였다.

201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의 평생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 증가에 힘입어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이 증가되었다(정연희, 2013: 331). 그러나 이 예산 또한 2011년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전체 초·중·고교의 49%인 5,772개교에 4,003명의 예술 강사를 배치하는 데 집중되었다(정연희, 2013: 332).

이명박 정부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증액될 때마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수혜 학생 수 확보에 집중되었고, 선도학교지원사업 및 예술꽃씨앗학교 사업의 학교 수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를 정책 성과로 제시하였다(정연희, 2013: 332~333). 또한 ‘문화예술 향유권 확보’라는 문화복지 정책의 이념과는 달리 문화시설확충,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성인층에 편중된 문화 정책, 문화산업 진흥 위주의 문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반면 전 학생들의 예술 향유를 위한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였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문화의 수요자인 모든 학생의 향유 능력 향상에 내실있게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정연희, 2013: 331).

국가 사회적으로는 창의성,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교 예술교육 강화에 대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 협력을 기초로 시행한 정책이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2010)’이다(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2010: 3). 이 방안에서는 6대 중점 추진과제를 ‘교과활동에서의 예술교육 강화, 예술·체육중점학교 활성화 및 확대, 각급 교육기관의 예술심화교육 지원 확대, 과학과 예술의 통합 교육 실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 강화, 예술교육 지원 협력체계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입시교과 중심 교육으로 학생·학부모의 체육과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 저하, 기초 체력 저하, 인성교육의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창의성, 인성 기반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예술·체육교육 내실화 방안’(11.4)’을 추진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1~13). 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술 과목 기준 수업 시수 준수, 실기·참여 중심의 예술 교육과정 운영, 융합·연계 중심의 예술 교과 수업 방법 개선, 체험 중심의 예술 프로그램 확대,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학교 예술교육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나. 현 정부의 문화 정책과 학교 예술교육 정책

박근혜 정부(2013.2~)의 문화 정책은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채택하고 ‘국민 행복’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삶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b: 21). 정부는 높은 자살률, 우울증, 중산층의 감소, 소득 양극화와 문화여가 격차, 학교 폭력 등의 사회 문제들은 행복 지수가 낮은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문화로 행복사회를 열어간다’는 문화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문화융성을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3대 전략 10대 추진 과제와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 문화 참여 확대, 문화예술 지원, 그리고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제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c: 45). 여기에는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를 통한 행복한 나라 만들기, 나아가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 지원, 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한다는 ‘문화 융성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2016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예술꽃 씨앗학교’, ‘꿈의 오케스트라’, ‘예술강사지원사업’이다.

‘예술꽃씨앗학교’는 2008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었다.²⁴⁾ 지역 및 빈부의 격차와 관계없이 전교생이 모두가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대상이며, 단기 지원이 아닌 4년간의 장기 지원을 통해 예술꽃씨앗학교의 학생들이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4) <http://flower.arte.or.kr> (2016.5.10. 검색)

2008년 10개교(1기), 2011년 16개교(2기), 2012년 10개교(3기), 2013년 4개교(4기), 2014년 13개교(5기), 2015년 20개교(6기)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예술 분야는 국악, 서양악, 영화, 연극, 뮤지컬, 디자인, 공예 등으로 다양하다. 교육부 학생오케스트라 사업, (지역연계)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운영 모델 개발 공모 사업, 예술중점학교 등 유사 문화예술교육 관련 타 부처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15.11.기준) 학교는 중복수혜를 받지 않도록 공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었다.²⁵⁾ 해당 지역에서 오케스트라 교육의 중심으로 활약하고 지역 내 다른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와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행정과 교육을 지원하는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거점기관으로는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의 전당, 청소년 수련관, 음악재단, 오케스트라단 등으로 다양하다. 이를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는 아동·청소년들이 문화예술전문기관에서 전문적 오케스트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지역에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2010년도 8개소, 2011년도 9개소, 2012년도 19개소, 2013년도 30개소, 2014년도 35개소, 2015년도 38개소를 운영해오고 있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은 2016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²⁶⁾ 김대중 정부에서 2000년 국악강사포럼을 시작으로 2003년 예술강사지원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예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였으며, 현재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전문 예술 강사를 파견 및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12.2.17. 법률 제11312호) 및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협력 사업 계획’ 등을 근거로 추진된다(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2015: 1~2).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협력 하에 17개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시·도의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의 협력으로 지역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학교에서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일반교과, 선택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및 토요 동아리 수업, 초등학교 돌봄 동아리와 결합하여 8개 분야(국악, 연극,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문화 정책의 목표인 ‘문화융성’에는 첨단 문화산업이 창조 경제를 견인하고, 문화를 통해서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러한 ‘문화융성’

25) www.orchestrakids.or.kr (2016.5.10. 검색)

26) <http://www.arte.or.kr/introduction/businessguide/educationsupport1.do> (2016.5.10. 검색)

이라는 문화 정책의 취지는 학교 교육정책에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계발하여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도모하고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연계된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한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의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육·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반성에서 사업의 일부를 재구조화하거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보완·강화할 필요에서 ‘학교예술·체육교육 강화 지원계획(2015.10)’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5c: 3~4). 이 계획에는 학생들이 학교 예술교육을 통하여 평생 예술을 즐기고자 하는 예술 향유 능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안과 밖에서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교육부, 2015c: 3~4).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1,000개 초·중학교에 악기(바이올린 15,000여대) 및 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시·도 교육청 직속기관(학생문화센터, 학생문화회관) 등을 악기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1학생 1악기 교육의 허브(Hub) 기관으로서 통합적 지원을 관리한다는 것이다(교육부, 2015c: 3~4). 1학생 1악기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15년 하반기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63억을 이 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둘째,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학교예술교육 지원을 다각화한다는 것이다(교육부, 2015c: 3~4). 문화체육관광부와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 11,00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예술 강사를 파견하고 분야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소외지역 학교 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교육부, 2015c: 3~4). 예술드림 학교를 운영하여 소외지역 학교·학생들의 예술교육 다양성 및 수준 높은 예술교육 제공을 위한 부처 및 학교급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예술거점연구학교를 운영하여 다양한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일반화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1학생 1예술 활동 정착을 위해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교육부, 2015c: 3~4).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 학교예술교육협의체를 '16년에 100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고, 학교예술교육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 수요와 예술 유관기관과의 프로그램 및 자원 매칭을 확대하며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2016년에는 ‘2016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16.2)’를 제시하였다. 이 계획에는 ‘학교 예술교육 내실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예술 활동 기회

확대’,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예술교육’, ‘학교예술교육지원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6c: 7~25).

첫째, ‘학교 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예술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학교예술교육지원 사업의 내실화, 교원의 예술교육 전문성 제고, 전문 인력(예술강사지원사업과 연계한 예술교과 협력 수업 포함) 등 학교 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기본으로 정규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6c: 7~25).

둘째, ‘학생들의 예술 활동 기회 확대’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방과후학교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 예술 특성화 학급 및 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을 경험하게 하고, 보다 심화된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이다(교육부, 2016c: 7~25). 이를 위해서 1학생 1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 확대, 감성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학생예술동아리 확대 및 활성화, 다양한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예술중점학교, 예술교육거점학교, 예술드림학교)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예술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예술교육인프라 활용, 지역 연계 학교예술교육 협력 모델 개발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교육부, 2016c: 7~25).

마지막으로 ‘학교예술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관으로서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운영, 교육기부와 연계한 학교예술교육자원 확충 및 자원 발굴, 학교예술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홍보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교육부, 2016c: 7~25).

그러나 이 계획에 나타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정 악기 및 교육 지원, 예술 강사 파견 분야 확대, 소외 지역 학교 예술교육 지원(예술 드림학교, 예술거점학교), 학교예술교육협의체 확대 운영 등으로, 정규 학교 예술교육 강화에 직결되는 지원 정책들이 없어 학교 예술교육을 실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현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 정부의 문화 정책과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내용 및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I-1-1> 역대 정부 및 현 정부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성과 및 한계

정부	학교 예술교육 정책			성과 및 한계
	주요 정책 및 계획	추진 사업	정책 목표	
김대중 정부 (1998~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강사풀제(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예술교육의 질 제고 •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노무현 정부 (2003~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강사지원사업(200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문화예술 교육 향유기회 확대 •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유자 중심의 문화 정책 및 전 국민 대상의 예술 향유 능력 증진을 위한 학교 예술교육 추진에의 의지 •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양적 확대 • 취약계층 및 농산어촌 지역 지원에 편중된 문화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체육 교과 평가 체제 개선 추진 계획(2003.4) • 체육·예술 교과평가 결과 기록 방식 개선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예술 교과 평가 결과 기록 방식 개선 시행(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추구하는 음악, 미술, 체육 교과의 취지에 맞는 평가방법으로 예술·체육 교육 정상화 • 사교육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추진계획 (2003.7) •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200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200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향수 및 사회 참여 기회의 확대 • 지역별로 특성화된 문화예술교육 제공 •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의 문화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 개정 교육과정 (200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 유지하되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20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지역 및 농산어촌 지역의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교육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예술강사 파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정부	학교 예술교육 정책			성과 및 한계
	주요 정책 및 계획	추진 사업	정책 목표	
	중장기전략 (2007~2011) (2007.6)	선도학교 운영 지원)	사회의 문화역량 강화	
이명박 정부 (2008~ 2013)		• ‘예술꽃씨앗학교’ 지원 사업 (2008.7)	• 공교육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집중화를 통해 우수 교육모델 창출과 확산 • 사교육비 경감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 추진 사회 취약 계층에 중점을 둔 문화 정책 추진 학교 예술교육 지원 정책의 다양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 예술교육 정책 추진 예술중점학교, 예술선도학교, 예술꽃씨앗학교 등 소수의 학교 선정 지원 정책 추진 특정 예술 분야 중심의 정책 추진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양적 확대
	• 문화예술 ·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과부-문체부 업무협약 체결 (2008.10)	• 예술강사지원사업 확대 개편	•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문화예술 · 체육 교육 활성화	
	•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2009.12)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	
	• 2009개정 교육과정(음악과, 미술과) (2011.8)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	
	• 중 · 고교 단계의 예술 체육교육 활성화방안 (2009)	• 예술 중점학교 운영(2011.3)	• 소질과 적성 계발	
	•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 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2010.7)	•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 (2011.1) • 음악, 미술 등 정규예술 교과의 시수 확대 유도	•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 • 문화격차 해소 기회 제공	
	• 학교 체육 · 예술교육	• 고교에서 실기 중심의 예술(음악/미술) 과목 개설,	•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의 국가	

정부	학교 예술교육 정책			성과 및 한계
	주요 정책 및 계획	추진 사업	정책 목표	
	내실화 방안 (2011.4)	예술 중점학교 확대, 융합·연계 중심의 예술 교과 수업 방법 개선	경쟁력을 위한 체육·예술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박근혜 정부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꽃씨앗학교(2008~) • 꿈의 오케스트라(2010~) • 예술강사지원사업(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빈부의 격차 관계없이 문화예술교육의 혜택 지원 • 아동·청소년의 전문적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 예술가 일자리 창출 및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융성’을 위한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추진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정책목적으로 지향하지만, 실질적 학교 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거의 없음 • 사회 취약 계층 중심의 정책 • 특정 예술 분야, 특정 학생 대상에 제한된 정책 • 물적 지원 중심의 정책 추진 •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양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예술· 체육교육 강화 지원 계획('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000개 초·중학교 악기 및 교육 지원에 63억 투자 •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학교 예술교육 다각화(예술강사파견 확대) • 소외지역 학교 예술교육 지원 강화(예술드림학교 운영) •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제 마련 (학교예술교육협의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된 학교 체육·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의 재구조화 및 보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학교예술교 육 활성화 추진 계획 (‘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오케스트라('11~) • 학생뮤지컬운영학교('13~) • 연극교육활성화('16~) • 예술중점학교('11~) • 지역연계학교예술교육 활성화('14~) • 학교예술교육성과확산('15~) •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운영('16~) • 악기지원시범사업('15~) • 예술교육거점학교('16~) • 예술드림학교('16~) • 교원의 예술교육 전문성 제고('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학생들의 예술 활동 기회 확대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예술교육 • 학교 예술교육 지원체제 구축 	

출처: 이경언(2014: 84)의 <표 1>, 이경언(2014: 89-91)의 <표3> 재구성

다.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쟁점

역대 정부와 현 정부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방향 및 내용이 정부의 문화 정책의 방향과 일관되게 ‘예술 향유’에 초점을 둔 학교 예술교육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학교 예술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학교 예술교육 활동 지원을 통해 삶 속에서 예술을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술적 소양이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에서 예술교육은 경제적 가치 창출이나 정책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악기지원사업의 경우 학생들이 하나의 악기를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평생 동안 연주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특정 악기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하고 악기 활용 방안, 가르칠 교사 지원 등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예술강사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파견 강사 수와 이에 비례하여 수혜 학생 수가 확대되었다는 점이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주요 성과로 제시되고 있어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향상에 대한 성과, 교육적 효과에 대한 점검이 더 중요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전문가협의회, 2016.2.18.).

둘째, 정부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이 정책의 수혜자인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술 중점학교 사업, 학교 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은 모두 일부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적 지원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인력 및 예산 지원 방식의 변화를 통해 좀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 정부가 전국의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을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역할 및 재정을 분담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예술교육 정책들이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청사진을 갖고 그 안에서 연계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예술교육 정책들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정책들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향후 최소 5년, 10년간의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장기적 청사진 없이 진행되어 왔다. 예술 향유 능력은 어릴 때부터 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습관화되고 육성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들이 1인 1악기

교육, 1학생 1예술 활동, 학생 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단기적인 사업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떤 교육적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교육적 방법을 활용하여 어떠한 단계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등의 중장기적 계획 및 구체적인 전략이 담긴 학교 예술교육의 매핑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 정부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예술교육거점학교나 예술드림학교 등은 차기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현 정부 내에서도 정책 추진에 대한 장기적이고 연계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향후 지원의 지속성 및 교육적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정책의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일련의 과정을 이수하여 예술 향유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하여 예술교육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정책 설계를 큰 틀로 구상하고 이와 연계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되 각 정책에 대한 교육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술 향유를 위한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이 지속, 심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적 연계가 좀더 긴밀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 양 부처 사업의 중복성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 주관의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과의 중복성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부처의 협력 하에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예술교육의 지원이 좀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기획과 집행의 주체가 교육부가 되어야 한다. 학교 예술교육 정책은 무엇보다 학교와 예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학교 예술교육과 실제 문화예술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전문가협의회, 2016.3.24.). 이를 토대로 학교 예술교육 정책 관련 부처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이해, 협력이 담보될 때 보다 학교 예술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2. 국외 학교 예술교육 정책²⁷⁾

가. 프랑스 학교 예술교육 정책²⁸⁾

(1) 프랑스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흐름

프랑스에서 군주체제 하에서의 예술은 왕이나 귀족의 취향을 위해 존재함으로써 국왕의 사적 소유에 속하는 것이었고, 대혁명과 제 3공화국(1870년~1940년)을 거치는 동안 공적 서비스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전적으로 문화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부서가 필요하기에 이르러 1959년 최초로 문화컴뮤니케이션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이하 문화부)라는 정부 내의 장관급 부서를 탄생시켰다(신옥근, 2013: 246). 그리고 문화부 창립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예술교육 또한 실기 지도가 주가 되고, 실기를 통하여 전문적인 예술가를 길러내는 것이 예술교육의 목표였던 것이 1950년 전후로 학생들의 삶을 여유롭고 향유롭게 하는 것으로 목표가 변화되었다(나애리, 2015: 251). 또한 교육부/고등교육연구부(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이하 교육부)와 문화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 예술교육의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지원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프랑스 정부에서는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대통령 당선 이후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며 문화 분야의 예산을 확대했으며, 예술문화교육을 우선순위 정책으로 선정하고 문화민주화를 내세우며 예술문화교육의 예산 또한 15% 증액하였다(홍유진, 2014: 10).

프랑스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흐름을 공식적인 예술교육이 나타나게 된 왕정시기부터

27)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 기술은 선행 연구 및 국가별 특성에 따라 기술 방식을 달리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오랜 예술교육 역사만큼 선행 연구도 풍부하여 ‘프랑스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흐름’을 기술하고, ‘프랑스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특징’은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면담 조사 내용으로 보완하였다. 반면 아일랜드의 경우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 역사가 길지 않으며 선행 연구 또한 많지 않다. 따라서 ‘아일랜드 학교 예술교육 정책 현황’을 기술하고, 면담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선행 연구 내용으로 보완하였다.

28) 프랑스에서 예술의 영역은 매우 포괄적이다. 음악, 미술뿐만 아니라 건축, 도시계획, 환경, 문서 보존, 조형미술, 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적인 영역을 아우르는 의미로 예술교육이 아닌 예술과 문화 교육(é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프랑스 학교 예술교육 정책을 논할 때에는 ‘예술문화교육’으로 지칭하도록 한다.

현 정부시기까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2-1> 프랑스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흐름

시기	학교 예술교육 정책		성과 및 한계
	내용	목표	
왕정 시기	예술교육이 미술(보자르 beaux-arts)에 속하는 데생, 회화, 조각, 건축 분야에 한정됨	미술 견습생 양성(직업인으로서의 예술가 양성)	
	예술학교가 생기고 회화, 조각, 건축이 교양 과목에 소속됨	예술가 양성	
혁명 정부 시기	성직자들의 재산을 모두 국가 소유의 문화 예술품으로 간주하고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 소장품 목록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의 기념물이자 후속 세대들에게 교육적 의미로 예술작품이 보존 대상이 됨
	la Convention 협약으로 루브르 궁에 예술 박물관 개장, 루브르궁을 예술과 산업 기술 관련 기념품 소장 장소로 지정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 모아 전시하여 프랑스 시민 모두에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민주주의의 시초가 됨 이때부터 박물관, 미술관이 교육의 장소로 인식됨 이를 계기로 점차 예술과목이 학교 교과목으로 자리 잡게 됨
제3 공화국 (1870~1940)	수상이었던 쥘 페리는 대중을 위한 공교육이라는 학교 교육 개혁을 시행하여 비종교, 무상, 의무 초등교육(6세~13세)을 실시함. 이로 인해 예전에는 인문교양과목으로 간주되던 예술과목이 산업과 과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배우는 과목의 성격을 띠게 됨	문화는 시민 양성을 위한 교양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화주의 문화의 공적 개념에 근거하여 국왕과 귀족의 지배에 봉사하는 특권 문화가 아니라 시민에 봉사하는 문화로 개념이 바뀜 하지만 실제 예술정책의 실행에서는 전통적 군주제나 귀족의 엘리트주의 예술 개념에 속하는 보자르를 내세우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재원이 집중됨으로써 모순을 안게 됨
	1880년 카미유법(loi Camille)을 제정하여 여학생들에게 예술교육 분야의 중등교육을 제공하게 됨. 데생과 음악을 교과목에 포함 시킴	소녀들이 예술을 통해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이끌어가도록 함	
	1925년 교육개혁 시행으로 예술교육이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됨. 고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예술', '명작의 설명' 과목이 신설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강사가 없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을 선정하여 작품 및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됨 이때 처음으로 '조형예술(arts plastiques)'이라는 용어 생겨남
	인민전선(1935~1938) 정부는 1925년의 개혁을 폐지하고 대대적인 교육 개혁을 시행함.	교육이란 단순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학교 예술교육 정책		성과 및 한계
	내용	목표	
	예술교육은 '취미생활'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토요일 오후시간에 기존 교과와 달리 특별한 프로그램(데생, 독서, 스포츠, 음악, 가정 생활 등)으로 즐기도록 함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하도록 유도하는 것	
제5 공화국 (1958 ~ 현재)	1959년 문화부가 창립되고 앙드레 말로가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문화정책의 기틀이 마련됨 - 드골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맞게 국민 통합을 목적으로 고급문화를 제도적으로 확산시키는 시도가 이루어짐 - 문화의 민주화가 핵심 정책	예술과 국민과의 만남을 통한 사회적 결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에서 본격적인 예술교육에 대한 논의 시작됨(1968) • 예술교육의 체계적인 확대 이루어짐 • 하지만 문화부를 교육부로부터 독립시킴으로써 예술교육과 문화 민주화의 결합에 실패함²⁹⁾ • 예술작품의 양적 보급과 접촉 기회 확대만을 강조하여 진정한 문화 민주화에 한계를 가짐
	1964년 음악관련 부처 간 혼합위원회 설립 - 음악관련 기관의 구조 개혁을 위한 10개년 계획 수립 - 레지옹의 공세르바투아르를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개방 - 교육부 주도하에 음악교육을 위한 교육 자문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예술교육 정책의 기반 형성
	1969년 자크 뒤아멜 장관이 말로의 정책에 대한 전환으로 문화 민주화를 이룩하려 함 - 예술에 대한 접근권보다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화프로젝트들이 시도됨 - 1971년 교육부, 문화부, 정부, 지방공공 단체 등과 공동으로 '문화참여재단' 창설	모두를 위한 문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년 사회당 정부의 자크 랑 문화장관으로 이어지는 문화민주주의의 초석을 쌓음 • 문화부 외의 정부 부처들이 문화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견인차 역할을 함
	1982년 자크 랑이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1983년 교육부 장관 알랭 사바리와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문화부 예산을 두 배로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에게만 향유되던 순수예술로부터 대중의 일상에 다가가는 다양한 예술과 문화를 교육과 연계하는 기틀 마련 • 예술 전문가를 학교에 강사로 초빙하여 많은 예술가들이 학교 진출
	1988년 1월 교육부의 '예술교육과정법' 시행 - 음악과 미술과목을 초·중·등 학 교에서 기본 필수 과목으로 규정 - 연극, 영화 등의 예술과목들도 선택과목으로 인정 - 학교 안의 예술교육을 학교 밖의 문화 기관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과 조형예술 과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까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학교교육 내 예술교육이 의무화됨. 하지만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용화됨 • 문화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문화수업 및 예술 실기활동이 증가

시기	학교 예술교육 정책		성과 및 한계
	내용	목표	
	- 예술교육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조		
	1988년 3월 예술교육위원회 설립		• 예술교육이 교육부만이 아닌 문화부와 협력해서 결정해야 할 과제임을 천명함
	1996년 문화부 장관 필립 두스트 볼라지가 구성한 국가문화정책연구위원회는 ‘프랑스 문화정책의 재정립을 위하여’라는 정책 보고서 출간 - 지난 30년 동안의 문화 민주화정책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야 함을 역설		• 문화적 욕구는 채울수록 늘어나며, 문화생활을 해 봤거나 문화적 소양이 있어야 관심을 가지고 문화에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지적
	1998년 ‘예술문화교육최고회의’ 설립 - 교육부, 문화부의 예술교육 정책의 방향과 목적, 방법론, 조정 등에 관한 중요한 결정 시행		• 교육부, 문화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공동으로 예술교육 논의
	2000년 자크 랑이 교육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예술교육이 프랑스 교육개혁의 중심축이 됨 - 1997년 폐지되었던 ‘예술교육 및 문화 활동 개발 담당관실’ 부활		
	2000년 교육부와 문화부가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술문화교육 협약 체결 - 예술교육의 중요성 강조 - 모든 예술기관에 대해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화 - 예술문화교육 5개년 계획 수립		
	2000년 예술문화교육 5개년 계획 발표 - 학교에서의 미술교육 강화 - 예술전문학교 장려 -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미술센터 등 약 6000여 개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예술교육 활성화 - 예술문화인력 충원 및 관련 일자리 확대	• 예술문화교육의 강화 • 예술문화교육의 일반화 • 예술문화 매개자 및 교사 교육	• 모든 학생들이 예술문화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기반으로 평생 동안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함 • 예술과목을 다른 주요 과목들과 동등시함으로써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서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는 주요 기초 과목으로 자리매김 함
	2002년 1월 ‘박물관 특별법’ 발표 - 박물관 법령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박물관에 부여하는 공식 인증 제도	• 박물관의 교육 기능 강화 • 국립박물관의 법인화	• 타 박물관들이 교육적 활동을 강조하는 추세가 자리 잡음

시기	학교 예술교육 정책		성과 및 한계
	내용	목표	
	2003년 우파 출신의 총리 집권 후 예술문화 교육에 배정되었던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지난 2년 간의 예술문화프로젝트의 수도 빠르게 감소		
	2005년 1월 문화부와 교육부 장관 교체 후 다시 '예술문화교육에 관한 공동정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10월 '예술문화교육최고회의'의 구조 개혁		
	2005년 4월 '학교의 미래를 위한 가이드 및 프로그램 법' 발표 - 인문적 문화소양 강조 - 예술을 통한 통합교육 강조	• 학생들이 의무 교육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가져야 할 지식과 능력 전반에 대한 중심 지표의 역할	• 음악-텍스트와 언어, 시각예술-원근법과 지리, 체육-스포츠와 무용, 리듬과 음악 등 예술과 다른 과목 간 연관 고려 만들어 지도하는 방식 장려
	2007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당선 후 문화부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예술 문화교육에 대한 지원도 감소, 반면 교육을 통해 미래의 예술향유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예술사 교육에 관심을 가짐		• 예술사교육이 학교 예술문화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부각되기 시작함
	2012년 올랑드 대통령 당선 후 '학교 재정비를 위한 2013년 7월 8일 법 시행령' 발표 - 예술문화 관련 지식 습득, 실습, 감상, 작가와의 만남 유적 및 기관 탐방 진행 - 학교 지역단체, 문화기관, 협회 간 파트너십 기반 과정 도입	청소년에게 평등한 예술 문화의 접근성 제공	•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교육과 교내외에서의 다양한 예술 체험 활동으로 예술 향유 가 가능하도록 함

출처: 원형미(2016: 26~5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259); 나애리(2015: 251~25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51~52); 신옥근(2013: 256~265); 이가야(2013: 461~469); 조희연(2011: 42~44); 이구슬(2006: 55~57)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게 된 역사가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왕정시기까지는 예술이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었고, 그러한 예술을 하는 사람들 또한 전문가들이었으며, 예술교육은 그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29) 앙드레 말로는 교육을 역사적이고 추상적인 활동으로, 문화 활동은 이성보다는 감수성 영역에, 지적 교육보다는 감정적 영역에 교류에 속한다고 보았다(신옥근, 2013: 261).

제 3공화국 시기부터 학교교육 개혁이 이루어지고 예술이 교과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중을 위한 예술교육이 이루어졌다.

제 5공화국 시기는 학교 예술교육이 정책적 지원 하에 크게 도약을 하는 시기이다. 우선, 문화 정책의 기틀이 마련되고, 문화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학교 예술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때부터 교육부와 문화부, 문화 기관 등이 협력하여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연계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졌다.

물론 프랑스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술교육이 활성화되거나 축소되는 부침을 반복해 왔지만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을 통해서 전 국민의 예술 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점은 현재 프랑스 학교 예술교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지난 정책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통해 학교 교육을 통한 예술교육을 강화하고 예술교육 자체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프랑스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특징

(가) 교육부와 문화부의 연계 지원

1964년 음악관련 부처 간 혼합위원회가 만들어진 이래로 예술의 발전을 위한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 노력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두 부처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책임분배의 문제, 교육부의 예술교육 홀대로 인한 예산 배분의 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협력 효과를 내지 못했으며, 20년 넘게 문화부가 교육부에게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설득하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결국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예술교육 프로그램들도 실험적 수준을 넘지 못하였다(이구슬, 2006: 65).

1992년 자크 랑이 교육부 장관과 문화부 장관을 겸임하면서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두 부처의 관계도 더욱 공고하게 된다. 2000년 발표된 ‘예술문화교육 5개년 계획’에 따라 조직적 지원도 이루어지면서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2005년 ‘예술문화교육에 관한 공동정책 활성화 방안’을 통해 두 부처의 협력은 더욱 공고해졌으며, 2013년 「학교 재정비를 위한 2013년 7월 8일 법 시행령」을 통해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게 되었다.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 관계를 나타내는 조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술문화교육최고회의(Haut Conseil de l'é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1988년에 설립되어 교육부, 문화부에서 이끌어가는 예술교육 정책의 방향과 목적, 방법론, 조정 등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을 시행한다. 양 부서의 관련 담당자, 지방자치단체,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4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고 교육부와 문화부 장관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밖에 운영되지 않아 2005년 구조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인원이 40명에서 15명으로 줄었고, 이중 3명은 지방자치단체 문화전문가, 7명은 교육전문가(교사 1명, 지방문화행정국(DRAC)의 예술교육 담당자, 출판 또는 문화산업 관련자 1명을 포함), 2명은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다(이구슬, 2006: 59).

□ 예술문화교육학군대표부(Délégation académique à l' e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이하 DAAC)

교육부 내 기관으로, 각 지방 학군(academie)마다 설치되어 해당 학군의 예술문화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한다. 해당 지방의 지방문화행정국(DRAC), 문화 기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며 예술교육과 관련한 정부 부처와 지방 학군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을 한다. 수업 내외의 예술, 과학, 문화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지원하며 평가한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예술과목, 예술사과목 교육을 관리하고 조사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58).

DAAC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문화 사막화를 막기 위해 이 기관을 통해 문화 자원을 조직, 관리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기도 하며, 교사들이 제출한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예술가들의 인력풀을 가지고 지방문화행정국(DRAC), 현대미술지방진흥재단(FRAC) 등에게 인력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면담조사, 2016.5.23.).

교육부 내 기관이지만 예산은 교육부에서 일정 금액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역별로 예산이 다르다. 예를 들어 교사들이 지원서로 제출한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하고 채택된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3개 지역에서 450여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적게는 400유로에서 많게는 1500유로까지 지원을 받는다. 프로젝트 선발의 기준은 문화적 개방성(학제 간 통합)과 교

육과정 연계성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력 등 세 가지이다(면담조사, 2016.5.23.).

현재 DAAC은 현 정부의 통합교육 방향을 구현하는 것을 주요한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술교사뿐만 아니라 예술교과와 통합교육을 원하는 모든 교과 교사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및 DAAC의 통합교육 방향에 교사들이 모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따라서 DAAC에서의 프로젝트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끌고 있다. DAAC의 관계자는 이러한 점에서 DAAC이 일종의 실험실과 같다고 말했다(면담조사, 2016.5.23.).

□ 국립교육자료센터(Services Culture, Éditions, Ressources pour l'Éducation Nationale-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 이하 SCÉRÉN-CNDP)

2000년 교육부와 문화부가 함께 계획한 ‘예술문화교육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예술문화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을 담당할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육부 산하의 국립교육자료센터(CNDP) 안에 예술문화과를 설치하였다. 기존 국립교육자료센터(CNDP)의 낡은 이미지와 운영 정책을 개혁하기 위해 2002년부터 세렌(SCÉRÉN)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세렌(SCÉRÉN)은 전국 지역에 분포된 31개 지역교육자료센터(CRDP)와 부속 지방 및 현지 센터들로 구성된 국립교육자료센터의 국가 네트워크를 일컫는 말이다.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정책의 전체적인 동향에 맞추어 출간된 다양한 교육 자원들(서적, 잡지, 멀티미디어 출판 등)을 전문가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예술과 문화가 학교 안에 토착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 수업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조형미술이나 음악 등의 예술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목의 기본으로서 예술문화를 다루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들이 포함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58~59).

□ 지방문화행정국(Directions Régionales des Affaires Culturelles, 이하 DRAC)

문화부 산하 기관으로 프랑스 예술의 지방분권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969년 지역분권화 차원에서 5개 지역에 중앙정부를 대신하는 지방문화행정국(DRAC)을 세웠으며, 1977년 전국으로 확대되어 프랑스 문화정책은 이곳에서 결정되고 실행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 프랑스 문화정책의 핵심기관이 되었다(신옥근, 2013: 267).

문화부의 문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며 문화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고문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를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 문화산업 촉진 등 지방문화행정국(DRAC)의 주요 목표 중 예술교육은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각 지방문화행정국(DRAC)마다 예술교육 담당관이 있어 음악학교, 조형예술학교와 같은 전문 예술학교 재정을 지원할 뿐 아니라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의 예술교육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신옥근, 2013: 268).

□ 현대미술지방진흥재단(Fonds Regional d'Art Contemporain, FRAC)

1980년대 프랑스 문화정책의 전반에 반영된 지방분권화 정책을 기조로 하여 1982년 자크 랑에 의해 시작된 문화부 산하 기관이다. 지방 단위로 운영되나 작가의 출신 지방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전 세계 현대 미술의 최근 동향을 다루는 데 목표를 둔다. 현대미술지방진흥재단(FRAC)은 전시 설명과 함께 하는 전시 관람 프로그램 제공 및 다양한 수준을 고려한 전시 기획, 예술 실기 아틀리에 시간 지원, 예술가들과의 만남, 교육 기자재 제공, 교사들의 사전 방문 및 관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자체 소장품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장품을 학교 공간에 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교육과 협력한다. 작품의 작가가 직접 학교에 동행하여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학교 간 협력 관계는 현대미술지방진흥재단(FRAC)의 예술교육 지원 활동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중, 고등학교 미술 교사들을 현대미술지방진흥재단(FRAC)에서 채용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이러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교사들은 각 지방의 현대미술지방진흥재단(FRAC)에서 3년 정도 파견직 형태로 근무하고, 다시 학교로 복귀하여 두 기관 사이의 효율적인 매개자 역할을 한다. 미술가들이 학교 수업에 직접 참여, 학생들이 작가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현대미술지방진흥재단(FRAC)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이다. 이러한 예술가의 학교 현장 참여에 예술가들의 사전 재교육 차원의 참여예술가 자격 제도가 활용된다.³⁰⁾

위에서 제시한 기관들은 프랑스에서 교육부와 문화부가 조직적으로 연계하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준다. 첫째는 예술문화교육최고회의와 같이 중앙 차원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부장관이 공동 위원장이 되어 관련 기관들의 전문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30) <http://www.arte365.kr/?p=4089> (2016.10.12. 검색)

학교 예술교육에 대해 공동의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육부 내 국립교육자료센터의 예술문화과와 같이 한 부처에 교육부와 문화부의 연계를 지원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교육부의 예술문화교육학군대표부(DAAC)와 문화부의 지방문화행정국(DRAC), 현대미술지방진흥재단(FRAC)과 같이 지방 차원에서 각 부처의 기관들이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지방 차원의 기관들로 교사와 수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학교와 문화기관과의 연계 교육

혁명 정부 시기부터 박물관, 미술관이 교육의 장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이후 문화기관의 교육적 활용은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77년 교육부가 학교교육문화활동담당관실을 창립하면서 교육부와 문화기관과의 연계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와 문화기관과의 연계 또한 본격적이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문화기관에 공연, 전시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장려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

1982년 자크 랑이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예술 전문가를 학교에 강사로 초빙하여 예술가들이 학교에 진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0년 ‘예술문화교육 5개년 계획’을 통해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미술센터 등 약 6000여 개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예술교육 활성화를 꾀하였다. 2013년에는 교내외 다양한 예술 체험 활동을 보장하는 시행령을 발표하여 학교와 문화기관의 상호 교류를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미술관 및 박물관, 도시 문화센터와 같은 문화기관에서의 교육 기능이 강화되어 있으며, 일찍이 관객 연구와 문화중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학에도 관련 학과가 설치되고, 문화기관의 교육담당자(animateur pedagogique) 시험, 미술관 및 박물관의 소장품들과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가이드 자격시험 제도를 정비하여 다양한 문화중재자들을 양성, 예술과 문화교육의 인력을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학교 교사들은 이렇게 각 문화기관의 교육담당자, 지방문화행정국(DRAC), 현대미술지방진흥재단(FRAC) 등의 교육담당자들과 협력하여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게 된다. 문화기관을 이용할 경우 예술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얻을 수도 있고 한정된 학교 공간을 벗어나 해당 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³¹⁾

31) <http://www.arte365.kr/?p=4089> (2016.10.12. 검색)

문화기관이 학교와 교류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식은 예술가를 학교에 소개하고 교사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 또한 2000년 ‘예술문화교육 5개년 계획’을 통해 시작된 것으로, 예술가와 예술 분야의 전문인들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어 교육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에서는 학교 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예술가는 참여예술가 또는 협력예술가(*artiste intervenant*, *artiste partenaire*)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예술가뿐만 아니라 영화감독, 카메라맨, 무대 미술가 등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모두 포함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64).

참여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예술가, 미술대학 졸업생, 참여조형예술가교육센터(Centre de formation des plasticiens intervenants, CFPI)와 참여음악가교육센터(Centre de formation des musiciens intervenants, CFMI)에서 교육을 받는 예술가들이 지방문화행정국(DRAC)이나 학교의 심사에서 참여예술가의 전문성 여부 및 예술문화프로젝트 수업과 관련하여 합당한지 등의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³²⁾

2002년부터는 국립자원체(Poles nationaux de ressource, PNR)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예술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총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부와 문화부의 공동 지원 하에 교원양성원(IUFM), 국립교육자료센터(CNDP) 그리고 미술관 등 여러 문화기관들이 예술문화교육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공유하여 교육현장에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 수학교사가 학생들과 예술수업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할지 모를 경우 국립자원체(PNR)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국립자원체(PNR)는 전국에 분포된 학군단(Academie)을 중심으로 조형미술, 건축, 사진 등의 특화된 주제들을 가지고 있어 교사들과 참여예술가들이 이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³³⁾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참여예술가는 수업 자체를 담당한다든지 혹은 학생들을 책임지고 인솔하는 등 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학교 교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예술가의 수업에는 반드시 교사가 동참한다. 왜냐하면 예술가와 교사의 관계는 서로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가면서 보완하는 관계이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는 관계라고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예술 작품이나 문화유산을 접할 때 참여예술가는 교사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도록 돕기 위한 인력이자 교사를 대신하기 위한 인력은 아니라는

32) <http://www.arte365.kr/?p=4103> (2016.10.12. 검색)

33) <http://www.arte365.kr/?p=4103> (2016.10.12. 검색)

것이다. 결국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의 교육자적 자질에 대해서는 교사가 보완해 주면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67; 이구슬, 2006: 59~60).

(다) 예술적 국민의 배출을 위한 예술교육

프랑스에서 예술문화교육의 목적은 미래의 예술가를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닌 예술적 국민의 배출에 있다. 감성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어 개발될 때 어린이는 조화롭고 균형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며, 감수성을 일깨우는 것이 다른 형태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법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³⁴⁾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들이 예술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해야만 가능해진다는 취지에서 2004년부터 교원양성원(IUFM)에서 예술교과 이외의 전공 교사들도 예술문화교육 수업(영화 및 시청각, 무용, 미술사, 연극 등)을 위한 선택교과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예술교육의 목적이 예술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예술을 통해 다른 교과를 배움으로써 예술적 감수성과 비판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조희연, 2011: 46~47).

이와 같이 예술적 국민의 배출을 위한 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03년 개설된 국립교육자료센터(CNDP) 예술문화과에서는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음악, 미술 등의 예술교과와 내용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교육의 기본으로서 예술을 다루는 데 필요한 업무들을 지원한다. 기술로서의 예술교육을 넘어서 교육의 기초로서 예술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59).

(라) 학교교육과 접목 가능한 예술 관련 축제의 조직적 운영

프랑스에서는 학교교육과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문화 관련 축제 및 행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51).

대혁명기 이후 공화정 이념에 충실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다양한 축제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다양한 축제들은 국가가 국민을 만드는 하나의 전략이 되었다. 하지만 68혁명 이후 자크 랑 장관은 국민이 주도하는 문화축제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기획하여 새로운 문화질서를 창출한 젊은이들을 다시 화합의 장으로 이끌

34) <http://www.arte365.kr/?p=4089> (2016.10.12. 검색)

수 있는 대중 참여의 문화를 새롭게 개척했다. 이러한 대중문화 확산 정책은 음악축제와 문화유산의 날, 박물관의 밤 축제로 이어졌으며, 축제의 성공은 영화축제, 독서축제, 사진축제, 재즈축제 등을 파생하게 된다(원향미, 2016: 43~44).

이러한 축제와 행사는 교육의 경로를 다양화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문화 및 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교육부, 문화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문화기관의 연계 하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 학교교육을 통한 예술교육의 강조

2000년 ‘예술문화교육 5개년 계획’ 수립 이후 학교를 예술의 민주화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규정하였다. 예술 작품을 일찍 접하게 하기 위한 곳으로 학교보다 나은 장소는 없다는 것이다. 가정 및 사회 환경에 따라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보다 나은 환경을 지닌 사람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므로 학교에서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근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³⁵⁾

이러한 배경에서 프랑스에서는 과외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장려하면서도 정규 과목 이외의 예술교육을 강조하기보다는 기존 교육 구조에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하여 접목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70).

예를 들어 2001년 시작된 예술문화교실 프로젝트(Project Aristique et Culturel, Classes à PAC)는 ‘예술문화교육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계획의 하나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교사의 책임 아래 각 분야의 전문가나 예술가들과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필수교육의 형태로 정규수업 시간표와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켜 고등학교 졸업까지 4번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문화부는 각 지역에서 학교와 협력할 예술가를 확보하여 교사의 책임 하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학교 주변의 문화자원(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황혜진, 2010: 544~545). 같은 학교나 기관 내의 예술문화교실 프로젝트(PAC) 수업들은 네트워크 형식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지원하며 이 수업에 대한 재정은 지방교육청(rectorat)과 지방문화행정국(DRAC)이 함께 지원을 심의, 결정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78).

이와 같이 학교 내에서 다양한 예술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학교 예술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5) <http://www.arte365.kr/?p=4089> (2016.10.12. 검색)

(바) 공통 기초과목 학습과 교과통합을 위한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프랑스 교육부는 2015년 3월 2016년 새 학기부터 적용할 중학교 교육과정 개혁 내용을 발표하였다.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과목을 중점적으로 다지기 위한 개혁이다. 여기에는 이론적 측면과 실용적 측면을 병행한 기초과목의 강화를 위해 오늘날 중요하게 여겨지는 8가지 주제(지속가능한 개발, 사회와 과학, 안전과 건강, 정보와 소통과 시민성, 문화와 창의성, 경제, 고대 언어와 문화, 외국어 및 외국 문화, 지역 문화)를 중심으로 연간 최소 2개 주제를 가지고 교과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학생들의 표현, 참여, 창의성을 이끌도록 하고 있다.³⁶⁾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예술교육과 관련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 경쟁력과 함께 문화 역량이 의무교육 기간 성취해야 할 기초적인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예술교육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경쟁력을 교과별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미술과 교육과정 사례이다.³⁷⁾

<표 III-2-2> 프랑스 미술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미술교육에서 형성되는 지식과 경쟁력

미술교육에서 형성되는 지식과 경쟁력	
조형	다양한 조형 언어로 다양한 미술 작업 실행, 기획 의도의 실행, 작업의 소개 또는 전시 등
문화	공동 문화에서의 기준의 성취
사회	자율성, 자주성, 타인 존중, 자신감 등
방법론	작업과 연구 과정, 창의성, 창조력, 상상력, 호기심, 개인 작업, 공동 작업 등
언어	언어적 표현, 적합한 표현 찾기 등
신체	감수성, 감각·운동 능력

둘째, 지식, 경쟁력, 문화 역량이 음악이나 미술교육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지식, 경쟁력, 문화역량은 다섯 가지 분야(생각하고 소통하기 위한 언어, 배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 인성과 시민성의 형성, 자연시스템과 기술시스템, 세상과 인간 활동의 묘사)에 대한 학습으로 구체화되는데, 이것이 예술 교육과정과 연계되

36)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일반기사(2015.04.15.), “중학교 개혁: 높은 학업 성취를 위해 더 잘 배우기” http://edpolicy.kedi.re.kr/EpnicGlobal/Epnic/EpnicGlobal01Lst.php?Ac_Group=1&Ac_Code=D0060104 (2016.10.20. 검색)

37) <http://eduscol.education.fr/pid34175-cid99287/ressources-d-accompagnement-enseignements-artistiques-aux-cycles-2-et-3.html#lien0> (2016.10.20. 검색)

는 것이다.³⁸⁾

이중 ‘생각하고 소통하기 위한 언어’ 분야와 음악과 교육과정의 연계 내용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³⁹⁾

<표 III-2-3> 프랑스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공통 분야와 교과 내용의 연계

분야 1: 생각하고 소통하기 위한 언어들	
지식, 경쟁력, 문화 역량에 관한 공통 초석에서 발췌한 경쟁력	제 3기 과정의 음악 교육 프로그램에서 발췌한 경쟁력과 기대하는 결과
불어로 말하기와 쓰기를 이용하면서 이해하고 표현한다.	
학생들이 명확하고 조직화된 방식으로 말하고 소통하고 논증한다.	<p>듣고 비교하고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개의 음악 작품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열거한다. • 음악 작품에서 단순한 구성을 발견하고 이의 명칭을 안다.(음률의 반복, 리듬 요소의 반복, 주제의 반복, 특징적 부분의 반복, 등. 단순한 형태를 추론한다) <p>교환하고 공유하고 논증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적인 해석의 차원에서 선택을 논증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고려한다.	<p>교육 과정 말에 기대하는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인 취향과 심미관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한다. <p>교환하고 공유하고 논증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관점과 감각의 표현에 귀 기울이고 존중한다. • 타인의 평가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평가를 제시한다. • 집단 음악의 책무를 이해한다: 타인의 의견 듣고 제안을 존중한다.
말하기와 마찬가지로 글쓰기에서 정확하고 명확한 어휘를 이용한다.	<p>노래하고 해석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의 어휘를 숙달한다: 단순한 몇 가지 미묘한 차이, 템포, 특징 등. <p>듣고 비교하고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을 묘사하기 위해 간단한 어휘를 숙달한다 • 탐구하고 상상하고 창작한다: • 음의 높낮이와 음색, 길이, 강세 분야에서 악기의 소리, 목소리, 그리고 소리를 내는 물체들을 묘사하기 위한 어휘력을 발달시킨다. <p>교환하고 공유하고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에 대한 개인적 관점의 주장과 표현에 적합한 어휘를 숙달한다.
외국어로 필요할 경우 지역 언어를 이용하여 이해하고 표현한다.	

38) <http://eduscol.education.fr/pid34175-cid99287/ressources-d-accompagnement-enseignements-artistiques-aux-cycles-2-et-3.html#lien1> (2016.10.20. 검색)

39) <http://eduscol.education.fr/pid34175-cid99287/ressources-d-accompagnement-enseignements-artistiques-aux-cycles-2-et-3.html#lien1> (2016.10.20. 검색)

한편 이전 교육과정의 방향을 이어받으면서 더욱 심화시킨 내용이 있는데 ‘감각 교육의 강화’가 그것이다. 감각 교육은 2000년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자크 랑과 문화부 장관이었던 카트린느 타스카에 의해 제출된 ‘학교 예술문화교육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학생의 발전과 기본적인 인지적, 방법론적, 사회적 경쟁력을 습득하고 학습에서 감각적 지성의 주요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다음은 그 내용의 일부이다.⁴⁰⁾

아이들은 이성적 능력과 감각적 능력이 조화롭게 상호 보완적으로 발달되어야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다. 교육은 각 학생을 중요시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지나친 합리성은 예술교육을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감수성의 자각은 언어 습득의 조건이며 다른 형태의 지성을 쌓는 중요한 방법이다. 예술과 문화교육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정되지 않은 유연한 사고를 발달시킨다. 예술은 정서, 감각적 지성,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지식들을 적응시키는 학문이다. 예술 활동은 지루함의 치유책이며 동기 부여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예술교육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성장시키고 정신력을 향상시키며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며 타인에 대한 이해심을 깊게 하는 감수성을 가져다준다. 합창, 연극, 무용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인격을 형성하며 창의적이고 구조적인 토대에서 타인과의 만남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효과가 2015년의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것이며,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따라 감각적 지성의 위치 또한 지식, 경쟁력, 문화 역량과의 관계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의무교육 기관 동안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경쟁력 중 예술 언어, 창의력, 창작력, 상상력과의 관계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⁴¹⁾

(사) 문화정책의 방향에 따른 학교 예술교육 정책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이념에서 출발한다. 즉 민주국가는 국민 모두가 예술작품과 문화 활동에 접근할 수 있고 아울러 문화 활동의 선택에서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창작자들이 창작과 배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지난 50년간의 문화정책은 예술접근에 있어서의 민주화를 시도한 것이

40) <http://eduscol.education.fr/pid34175-cid99287/ressources-d-accompagnement-enseignements-artistiques-aux-cycles-2-et-3.html#lien0> (2016.10.20. 검색)

41) <http://eduscol.education.fr/pid34175-cid99287/ressources-d-accompagnement-enseignements-artistiques-aux-cycles-2-et-3.html#lien0> (2016.10.20. 검색)

라고 할 수 있다(이원, 2012: 334; 문시연, 2009: 285).

1959년 최초로 설립된 문화부의 초대 장관인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와 그 후임자들은 국민 누구나 동등하게 문화자산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화 민주화(démocratisation culturelle)’를 주창하면서 국민의 문화적 작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문화적 자산을 갖추고 교육을 받아 문화생활을 이미 누리던 계층이 이러한 풍요롭고 접근성이 좋은 공급정책의 혜택을 더 받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이에 1971년 문화부 장관으로 취임한 자크 뒤아멜(Jaques Duhamel)에 의해 문화적 자질이 없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의 창조성과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킨다는 내용의 ‘문화개발(développement culturel)’이라는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또한 1980년대 자크 랑 시절에는 국민 각자의 문화 참여가 수단이자 목적인 ‘문화 민주주의(démocratie culturelle)’라는 보완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문시연, 2009: 288).

그런데 80년대 문화정책을 보면 기존에 예술로 간주되지 않았던 재즈, 샹송, 거리예술, 의상, 디자인, 사진, 광고, 만화 등의 분야에까지 문화부의 활동 및 지원 영역이 확장되어 문화 민주주의가 문화 민주화를 대체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문화부 예산의 대부분은 여전히 전통적인 문화유산, 박물관, 현대예술, 공연계와 같은 고급문화의 지원에 집중되었다(이원, 2012: 336). 또한 1980년대 프랑스 사회 전반에 걸쳐 단행된 지방분권화(décentralisation) 정책과 문화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세지면서 프랑스 전역에 예술 문화시설이 없는 곳이 사라졌을 정도로 예술문화의 양적인 보급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예술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었다(이가야, 2013: 462). 결국 80년대 자크 랑의 정책은 문화 민주화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고 문화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실현한 것도 아닌 두 가지 정책이 함께 구현되고 있던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화 민주주의의 추구에도 불구하고 예술문화 향유자를 늘릴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수요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예술문화교육으로 관심이 집중되게 된다.

이후 자크 투봉(Jacques Toubon)이 90년대 초 주창한 ‘문화적 예외exception culturelle⁴²⁾’는 다른 지역, 사회, 국가 문화의 발전까지 포괄할 수 있는 ‘다양성’으로 대체되고, 2001

42) 자크 랑 문화부 장관 시기인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되면서 문화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 간 개방의 논리가 거세졌다. 1993년 GATT 협상에서 문화 분야도 그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했던 미국의 주장에 프랑스는 문화는 자유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정신적 산물이라는 ‘문화적 예외exception culturelle’ 논리로 대응한다. 실제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프랑스 영상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문화를 통한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문화다양성’ 논리로 진화하면서 문화산업의 종류에 따른 선별적 개방의 근거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프랑스의 사회통합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원항미,

년 11월 2일 “유네스코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보편적 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된다. 2002년에는 평등, 창작, 정체성과 다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예술교육이 공공 서비스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이후 문화 다양성은 민주주의 이념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프랑스 문화정책의 중요한 이념적 축으로 작동하면서 실제적인 정책적 실천으로 드러나게 된다(이원, 2012: 337).

현 정부에서도 문화부 2016년 네 가지 정책 우선 순위 중 첫 번째를 ‘전 국민 대상 문화접근성의 민주화 추구’로 정하고, 지역 간 문화접근성 균형 강화, 사회통합과 시민의 권리 증진 도모, 청년 대상 정부정책에 새로운 차원의 우선 순위 부여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 248).

결국 프랑스 문화정책 이념의 뿌리는 문화 민주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새로운 이념으로 대체되기보다는 보완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본격적으로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3) 시사점

(가) 교육부와 문화부, 문화기관 등 예술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학교 예술교육 지원

프랑스의 경우에도 문화부가 20년 넘게 교육부에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설득하고자 했던 역사가 있으며, 교육부가 예술교육을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할 경우 예산 삭감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상호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두 부서의 협력은 문화기관들과의 협력으로 이어져 학교를 지원하는 막강한 네트워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력은 예술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그간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계획안을 발표하기는 했으나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기보다는 예술 강사를 학교에 배치하기 위한 계획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었다. 따라서 학교 예술교육에 미친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교육부와 문화관광부와 연계는 좀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조직적 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조직적 연계는

2016: 49).

인력과 물적 기반을 가지고 실천력 있게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 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학교 예술교육을 계획, 실행하여야 한다. 둘째,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센터, 지역협의회 등으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술관련 교육기관들을 통합하여 지방문화행정국(DRAC)과 같이 지역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 예술가 지원, 교육 등 지역의 예술문화 전반을 다루는 통합적 기구로 재편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기구는 중앙 차원의 계획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교육기관과 문화기관을 연계하여 학교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프랑스에서는 전 국민의 예술 향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예술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 이후 학교 예술교육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1988년의 「예술교육 과정법」, 2000년 ‘예술문화교육 5개년 계획’, 2005년 「학교의 미래를 위한 가이드 및 프로그램 법」, 2013년 「학교 재정비를 위한 2013년 7월 8일 법 시행령」 등이 대표적이다. 이 법들에는 교과 교육을 포함하여 학교 예술교육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조직적, 물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강제성을 가진 법령으로서가 아니라 학교 예술교육을 위한 매뉴얼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예술교육에 관한 내용을 매년 새로운 법령으로 공포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는데 장애가 되는 법령들은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하고, 모호한 표현들을 명확하게 고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인력 정책이 아닌 학교 교육에 대한 정책의 관점에서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이 속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 국가 차원의 예술교육 철학 정립과 정책의 일관성

프랑스의 예술교육 정책의 철학적 뿌리는 ‘문화 민주화’이며, 이것이 50년 이상 지속되면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보완되고 있다. 또한 중앙집권적 교육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의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특히 지역의 환경에 적합한 예술교육

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도 일관된 방침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용어는 다를지라도 문화향유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표를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 하나는 문화향유권의 확대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불평등 요소들, 즉 경제적인 차이, 지역적인 차이, 학력에 따른 차이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문화를 향유하도록 한다는 것은 전문가나 기능인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는 문화정책에 따른 학교 예술교육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첫 번째는 학교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주며, 두 번째는 학교 예술교육의 방향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을 통해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같은 목표를 향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다양한 방법들이 과연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나. 아일랜드 학교 예술교육 정책

(1) 아일랜드 학교 예술교육 정책 현황

아일랜드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은 예술위원회(Arts Council)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이하 교육부)와 예술, 문화유산, 게일어사용지구부(Arts, Heritage and the Gaeltacht, 이하 문화부)의 상호 공조 하에 2013년도에 예술교육헌장(Arts-in-education Charter)을 발표하고, 교육부와 문화부의 예술교육 정책 입안에 대한 자문 및 집행을 위한 중앙의 정부 기관인 예술위원회(Arts Council)를 2012년에 설치하여 국가 예술교육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⁴³⁾

예술위원회(Arts Council)는 1951년의 예술 시행령(Arts Act)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그 기능은 세 가지로 집약된다(Long, 2015: 283).

- 1) 예술에 대한 흥미 증진, 예술 관련 지식·예술 감상 및 표현 능력 향상
- 2) 다양한 자금 지원 정책 및 예술 관련 보고서 발표
- 3) 다른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예술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함

43) <http://www.artscouncil.ie/> (2016.10.20. 검색)

으로써 공공 단체의 자문 역할

이중에서도 학교 예술교육과 관련한 예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부와 교육 관계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1973년에 공포된 「예술시행령(Acts Act)」에 따라 1976년에 발표된 Richard Report에서는 아일랜드 예술교육의 방향을 크게 아일랜드 정부의 사회 속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학교 예술교육의 충실 및 발전, 예술 교과를 국가 졸업 시험에 포함시킬 것, 예술가 양성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인의 예술적 소양을 보다 고양시킬 것 등을 골자로 제시하였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 Department of Arts Heritage and the Gaeltacht, 2012: 283). 이어 3년 후 발표된, 오늘날 아일랜드 예술위원회의 예술 정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Beson Report(1979)에서는 예술교육(Arts Education)과 교육에서의 예술(Arts-in-Educatio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 Department of Arts Heritage and the Gaeltacht, 2012: 283).

‘예술교육(Arts Education)’과 ‘교육에서의 예술(Arts-in-Education)’, 두 영역은 상호 의존적이지만, ‘예술 교육(Arts Education)’은 정규 교육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류의 예술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을 일컫는다. 반면, ‘교육에서의 예술(Arts-in-Education)’은 예술가들이 모든 일반 교과 교육에 관여하는 등 예술의 영역이 일반 교육 시스템 안으로 개입하거나, 학교가 공공의 장소로 찾아가 전문적 예술 체험을 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즉 아일랜드 학교 예술교육의 큰 범주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교과를 포함한 교육(Arts Education)’과 예술 교과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의 예술교육(Arts-in-Educ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술교육헌장(Arts-in-education Charter)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술교육의 방향은 두 방향을 모두 포함하되, ‘교육에서의 예술교육’로 학교 예술교육의 범주를 확장하고 있다. 예술교육헌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Junior Cycle 예술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NCCA, 2015a: 22).

- '21세기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서 Junior Cycle에서 제시하는 핵심 기술을 발달시키는 방안 이자 예술가 및 예술 세계와 학생들의 경험을 연계하는 방안으로서 '예술'과의 융합을 도모한다.
- 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하여 실행한다. 예를 들면, 국가 차원 예술교육 온라인 포털을 구축하는 것이다.
- 학교교육 정책 차원에서, 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 생활 전반에 예술이 융합되어 풍요로운 학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arts-in-education 정책이 안착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아일랜드의 학교 예술교육을 '예술 교과 교육(Arts Education)'과 예술 교과가 아닌 학교교육 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의 예술교육(Arts-in-Education)'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예술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교과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술 교과 교육(Arts Education)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6개 영역과 11개 교과로 구성되며, 예술 교과는 미술(visual arts), 음악(music), 드라마(Drama)의 세 교과이다(Government of Ireland, 1999: 52). 무용은 체육 교육에 포함된다. 미술의 영역은 Drawing, Paint and Colour, Clay, Construction, Print, Fabric and Fiber, 음악은 Listening and responding, performing, composing으로 구성된다. 드라마는 Drama to explore feelings, knowledge and ideas, leading to understanding으로 구성된다. 주당 시수는 학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교육과정의 6개 영역별로 균형을 이루되, 영역별 주당 최소 4시간을 확보하여 시간표를 구성하여야 한다(Government of Ireland, 1999: 67).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한하는 예술 교과 교육과정의 주당 시수는 3시간으로, 미술, 음악, 드라마를 각 1시간씩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중등과정 1, 2, 3학년(Junior Cycle)이 한국의 중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한다(윤형한, 2013: 174). 아일랜드의 학제는 초등학교 전 단계의 아동을 위한 Pre-primary(약 6년), 초등학교 과정의 Primary(6년), 중등과정의 Second Level I (3년), 전환학년(Transition Year: TY, 1년), 중등과정의 Second Level II로 구성된다. 이 중, Second Level I의 Junior Cycle 1, 2, 3학년이 한국의 중학교 교육과정에 해당된다. Junior Cycle 과정 수료 후, 졸업시험인 Junior Certificate Examination을 통과하면 비로소 Junior Cycle 과정을 완료하게 된다. Second Level II는 2년으로, 한국의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된다. Second Level II는 Senior Cycle 과정 수료 후, 졸업시험인 Leaving Certificate Examination을

통과해야 Senior Cycle 과정을 완료하게 된다.

Junior Cycle에서 예술 교과에는 미술(Art, Craft, Design)과 음악(Music)이 있다.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Drama는 문학에서 학습하게 된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2015: 10). 아일랜드의 예술 교과 교육은 초등학교와 Junior Cycle 1학년까지 필수 과목이며, 이후부터는 선택과목이 되어 아일랜드의 모든 학생들이 예술을 배우는 의무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은 Junior Cycle 1학년에 중단된다.

Junior Certificate Examination은 English, Irish, Mathematics 세 과목의 필수 시험 교과를 포함하여 10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7개 과목은 선택하여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예술 교과는 선택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2015: 10).

• Junior Cycle: Art, Craft, Design

현재 적용 중인 Junior Cycle의 미술과 교육과정(Art, Craft, Design Syllabus)은 1989년에 개발된 것으로 2008년에 1차 개정되었다(NCCA, 2015a: 4). 2016년 9월에 다시 개정되어 새 교육과정이 발표되었고, 2017년 9월에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2016년도에 발표된 Art, Craft, Design Syllabus는 1) 초등학교의 미술교육과 고등학교의 미술교육과의 연계성과 Art, Craft, Design의 발전을 도모하며, 2) 2008년 개정된 미술과 교육과정에 근거한 Junior Certificate Examination이 학생들에게 과중한 학업 부담을 준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2016년도에 개정된 Junior Cycle Certificate Syllabus는 5개의 내용 요소로 구성된다(NCCA, 2015a: 8).

- 1) Appreciation of Art, Craft, Design, and the Built Environment
- 2) Drawing
- 3) 2-D Art, Craft, Design
- 4) 3-D Art, Craft, Design
- 5) Craft. Junior Certificate Examination

이와 같은 5개 내용 요소에 대해 Junior Cycle의 3학년의 1년에 걸쳐 작성하는 미술 경험

의 과정을 기록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Drawing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된다.

• Junior Cycle: Music

현재 적용 중인 Junior Cycle의 음악과 교육과정(Music Syllabus)은 1989년에 개발된 것으로 2008년에 1차 개정되었다(NCCA, 2015b: 13). 2017년 9월에 다시 개정되어 새 교육과정이 발표될 예정이며, 2018년 9월에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2017년도에 발표된 새 음악과 교육과정은 1989년도 교육과정의 틀을 유지하되 ‘연주 또는 가창(performing)’ 영역이 경시되어 왔다는 반성이 있었고 이를 새 교육과정에서 강화하고자 하였다.

2017년도에 개정될 새 교육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에 개정된 현행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보면 아일랜드 음악과 교육과정은 전통적 영역인 연주(performing), 창작(composing), 감상(listening)으로 구성된다. Junior Certificate Examination의 시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NCCA, 2015b: 10~13).

<표 III-2-4> Junior Certificate Examination

영역	선택 시험 내용
연주(perform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ngs as part of a group (2 or 4) • Solo instrumental pieces (2 or 4) • Instrumental pieces as part of a group • Music technology option
창작(compo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riting a melody to given text • A continuation of a given bar/phrase • Identify and determine locations in the music
감상(liste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t songs(8 songs, 2 groups) • Set works(5 works, 2 groups) • No choice of songs and works • Dictation in contextual setting

• 선택과정(Short Courses)에서의 예술교육

2015년에 개정된 Junior Cycle에 따르면, NCCA는 학교 또는 다른 유관 기관에 선택과정(Short Courses)으로 최대 4개까지의 Short Courses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역의 학습을 지원하고자 한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2015: 21). 여러 가지 Short Courses 분야⁴⁴⁾ 중 하나가 ‘artistic performance’이며, 학교의 지원 상황에 따라 학생

44) Short Courses의 7개 분야: Coding, Digital Media Literacy, **Artistic Performance**, Chinese Language and

들은 예술 교과 교육에서 체험하지 못한 예술 분야를 학습할 수 있다.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의무적인 예술 교육은 Junior Cycle의 1학년에서 종료되지만,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선택과정으로 제공하고 있어 제한된 범주의 예술 교육을 확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NCCA, 2015a: 23~25).

•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에서의 예술교육

아일랜드의 학교 예술교육은 예술교과 교육, 선택과정 이외에도 전환학년제에서 다양화, 심화할 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는 1974년 당시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심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자아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김나라, 2013: 6~7). 전환학년제는 1974년 도입된 후 1980년대에 교육부가 3년의 주니어 과정을 도입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1994년의 시니어 과정 재구조화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전환학년제는 전체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다. 전환학년제 운영에 있어 학교장의 리더십, 학교 전체 교사들의 관심과 협력, 전환학년제 코디네이터의 역량, 전환학년제 핵심팀의 협업이 성공을 결정한다(김나라, 2013: 8). 전환학년제는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프로그램 편성 방식이나 평가방식이 존재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시하는 전환학년프로그램 가이드라인(Transition year programmes-guidelines for schools)에 따라 단위 학교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전환학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김나라, 2013: 8). 즉 전환학년제는 단위 학교의 구체적인 상황(역사, 전통, 가치 등)을 반영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인성, 사회성 발달 및 진로 탐색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 현재 전국 중학교의 약 50%(550개 중학교)가 전환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다(면담조사, 2016.5.18.;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 Department of Arts Heritage and the Gaeltacht, 2012: 9). 전환학년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윤형한, 2013: 160~161).

전환학년의 의미는 학습의 강점, 약점을 파악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기술을 향상하고 Leaving Certificate을 위한 기반을 다지며, 한편으로는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Culture, Social, Personal and Health Education(SPHE), Physical Education(PE), Civic, Social and Political Education(CSPE)

있다(면담조사, 2016.5.18.). 따라서 단위 학교의 전환학년 프로그램 구성 방향은 학습의 기본 능력 향상 및 탐구를 통한 학습의 심화, 융합적 사고 및 통합적 관점, 직업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 능력 등을 촉진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직업 체험을 한다(면담조사, 2016.5.18.). 평가는 학습결과에 대한 성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노력하고, 많은 경험을 주도적으로 하였으며,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기회를 찾았는지 등 자기계발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발전을 토대로 평가한다. 평가 방식은 수행 능력에 중점을 두고, 보고서 작성, 포트폴리오 제작, 개인 성장에 대한 기록물 제출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학점제로서 이수 여부 및 참석과 참여도 정도로 평가한다.

전환학년프로그램 가이드라인(Transition year programmes-guidelines for schools)에서는 전환학년 개설 영역을 16개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⁴⁵⁾ 이 중에서 Aesthetics Education은 음악, 미술, 무용, 드라마, 사진 등의 다양하고 생생한 예술 세계를 체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단위 학교는 학교의 상황과 학생들의 예술에 대한 흥미에 따라 다양한 모듈을 개설할 수 있다(The Department of Arts, Heritage and the Gaeltacht &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2012: 9). 아일랜드의 Transition Year Programs에서 예술교육은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실기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음악의 경우, 뮤지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전환학년의 프로그램을 점검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수업 장학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발달 정도를 연 2회 점검하여 운영 결과를 보고한다(면담조사, 2016.5.18.). 학생의 개인적인 발전과정을 중시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학교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학교의 전환학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점검은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중시하여 많이 개입하지는 않는다.

45) 전환학년프로그램 가이드라인(Transition year programmes-guidelines for schools)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환학년 개설을 위한 16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Civic, Social and Political Education, Personal and Social Development, Health Education, Guidance, Philosophy, Aesthetics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Language Studies, Language Studies, Mathematics, Science Studies, Environmental and Social Studies, Information Technology, Practical Studies, Business and Enterprise Studies, Preparation and Adult and Working Life.
<http://www.education.ie/en/> (2016.10.6. 검색)

□ 교육에서의 예술교육(Arts-in-Education)

• 예술위원회(Arts Council)의 ‘교육에서의 예술교육(Arts-in-Education)’ 정책

‘교육에서의 예술교육(Arts-in-Education)’은 예술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 전반에서 예술교육의 범주를 확대한 개념이다.

아일랜드는 예술교육의 목표를 창의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예술과 문화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국민의 예술적 소양을 육성하는 것으로 본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 Department of Arts Heritage and the Gaeltacht, 2012: 7).

그러나 아일랜드에서 보통교육으로서 학교 예술교육은 중학교 1학년에서 종료되며, 그 결과 10명중 6명이 초등학교 이후 예술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실정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예술과 문화 이해에 대한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면담조사, 2016.5.18.).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일랜드 정부는 학교와 예술 세계를 연결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교과 교육을 강화하고 예술 학습의 경험을 풍부하고 충실하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문화부, 두 기관의 공조 하에 구축한 것이 ‘교육에서의 예술교육(Arts-in-Education)’ 정책이다. ‘교육에서의 예술교육(Arts-in-Education)’ 정책을 통해 정규 예술과 교육과정 내에서의 예술 교과 교육(Arts education)뿐만 아니라 학교가 사회 속 예술 세계와 연계(Arts-in-education)하여 학생들에게 예술적 체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미션을 구현하고자 한다. 운영 예산은 50%를 교육부에서 나머지 50%는 지역에서 지원받는다(면담조사, 2016.5.18.). ‘교육에서의 예술교육(Arts-in-Education)’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 밖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일랜드의 예술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교육에서의 예술교육(Arts-in-Education)’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예술 세계를 학교교육의 영역에 편입하는 방식과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공공 영역에서 제공되는 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 Department of Arts Heritage and the Gaeltacht, 2012: 10). 따라서 ‘교육에서의 예술교육(Arts-in-Education)’은 학교 안과 밖에서 모두 실시될 수 있으며, 예술가, 예술 조직, 학생들, 교사가 모두 함께 예술 경험을 창조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보다 풍부하게 하며, 학교의 교육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교육에서의 예술교육(Arts-in-Education)’정책은 아일랜드의 교육부와 문화부 간, 부문 간 대화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다. 2012년도에 교육부와 문화부는 공동으로 학교 예술

교육 정책 문서인 예술교육헌장(Arts-in-Education Charter)을 발표하였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 Department of Arts Heritage and the Gaeltacht, 2012: 12~18). 이 문서에 제시된 ‘교육에서의 예술교육(Arts-in-Education)’ 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 Department of Arts Heritage and the Gaeltacht, 2012: 12~18).

첫째, ‘교육에서의 예술교육(Arts-in-Education)’ 정책 구현을 위한 교육부와 문화부의 파트너십 구축과 공동의 정책 집행 조직인 High-Level Implementation Group의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그룹은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 예술 정책 입안 및 예산 지원을 위한 업무 및 국가와 지역, 지역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국가의 예술교육이 지역의 상황에 맞게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무엇보다도 정책 입안자와 교육 관계자들이 국가 차원, 지역 차원에서 ‘교육’이라는 넓은 일반적 범주 안에서의 예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둘째,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 받는 예술 기관 또는 예술 조직의 학교 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술가들 또는 세금을 면제받는 예술가들이 1년에 최소 2시간씩 학교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예술가들의 의무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학생들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 문화예술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할인 표(할인표의 값은 5유로 이하로 제한함)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일 년에 최소 한번 이상 National Gallery, National Music Hall, National Theatre 등의 국가 문화예술 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 문화예술 기관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사 전문성 교육과 연구 지원을 위한 자금과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예술교육을 둘러싼 관련 기관, 조직, 예술가 등의 정보 및 자원 공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웹 기반의 정보 공유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를 비롯한 예술교육 관련 기관, 조직, 예술가들이 좋은 수업 자료,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와 정보 등을 공유하고 아일랜드의 예술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 협력적 접근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좋은 예술 수업 사례나 프로젝트 사례는 교사의 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자원 공유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에서의 예술교육Arts-in-Education’ 정책은 어디까지나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을 강조한다.

여섯째, 생존 작가 작품을 학교 예술과 교육과정에서 활용하며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예술가는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해야 함을 강조한다.

일곱째, 예술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평가원(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and Assessment: 이하 NCCA)의 자문을 받아서 예술교육 정책이 학교 예술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덟째, 예술가, 예술 조직들, 문화 기관들, 지방 교육청의 장학사 등이 참여하여 함께 국가와 지역과 파트너십 기반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을 강조한다.

아홉째, 교육부와 문화부는 예술교육을 위해서 학교 밖의 다양한 시설 및 방과 후 학교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함을 강조한다.

열 번째, 예술위원회의 주요 역할로서, 예술가와 예술 조직을 지원하여 그들의 작품에 대한 접근성과 영향력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사, 부모, 직원들 등 ‘학교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 예술을 두는 학교(Arts Rich Schools: ARIS)’를 만들어 가도록 학교 기반의 창의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Music Generation’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문 음악인과 공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음악의 세계와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예술위원회의 임무로서 ‘교육에서의 예술(Arts-in-Education)’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술가 및 예술 전문가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연수, 워크숍 등을 지원한다.

• 국가 예술기관에서의 학교 예술교육 지원의 책무

아일랜드 예술교육헌장에 국가 예술기관의 학생에게 할인표 제공, 국가에서 지원받은 예술가들의 학교 예술교육 참여의 의무 등 학교 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 Department of Arts Heritage and the Gaeltacht, 2012: 13).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국가 예술기관인 National Concert Hall과 National Gallery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담당자와 면담한 내용에 따르면, 국가 예술기관의 학교 예술교육 지원을 법으로는 정하여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국가 예술기관으로서의 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두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거나 예술가 또는 예술조직의 창의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자금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National Concert Hall에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면담조사, 2016.5.20.a).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은 학생 수준에 맞게 조정한다. National Concert Hall에서는 세 가지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음악적 경험을 고양하는 것, 학교 교육과정을 보다 가치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학생들이 학교 안팎으로 음악적 체험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면담조사, 2016.5.20.a).

National Concert Hall의 예술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디렉터 Nigel Flegg에 따르면, National Concert Hall에서 추구하는 음악교육의 목표는 ‘음악을 통하여 학생들의 사회성, 팀워크, 창의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을 육성하는 것이다(면담조사, 2016.5.20.a). 전인 교육의 성과를 위한 음악의 활용인 것이다. 이러한 음악 교육의 목표 하에, 정규 학교 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음악의 다양한 장르를 여러 종류의 워크숍을 통하여 소개하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음악을 배우지 않는 중등학생들을 위한 워크숍도 마련하여 학생들이 음악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National Concert Hall에서는 음악과 과학과의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접하도록 한다. 또한 아일랜드 교육부와 문화부의 공동의 예술교육 정책인 ‘교육에서의 예술교육(Arts-in-Education)’에 National Concert Hall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 정책의 목표 중 하나가 학생들이 지역의 미술관, 콘서트홀, 갤러리, 도서관 등 국가 예술 기관에 1년에 최소 2회 정도 방문할 수 있도록 티켓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주 예술에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단순한 방문의 차원을 넘어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의미 있는 예술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연이나 전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Arts Education Charter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체계화되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사회에서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지역의 축제나 공연 등이 있다. 지역 커뮤니티 아트센터가 전국에 있으나 체제가 갖추어진 것은 아니고, 개인이나 그룹에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역의 예산을 받아오면 National Concert Hall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발전시켜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면담조사, 2016.5.20.a).

Nigel Flegg은 National Concert Hall에서 정규 학교 음악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면담조사, 2016.5.20.a).

우리(National Concert Hall)는 정규 예술 교육과정을 보다 확장하여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는 학교 교사, 예술 단체 연합, NCCA(국가교육과정평가원), 정규 학교 교육 관련자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 학교 음악 교육은 암기와 복습 중심의 학습이기 때문에 음악 시험은 잘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음악의 자기 주도적 학습’, 그리고 ‘다양한 능력(창의력, 상상력 등 21세기에 요구되는 능력들)’이에요. 학생들은 다양한 수준의 능력과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션은 학교 음악 교육과정의 좁은 분야의 음악 체험에서 폭넓은 분야의 음악을 접하게 해서 음악의 체험을 가능한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이에요... (중략) 우리의 역할은 학교 음악 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자신의 진로로 선택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학교 음악교육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다양한 음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학교 음악교육과 넓은 음악 세계와의 간극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Nigel Flegg은 학교 음악 교육과정은 그 내용이 미리 규정되어 있고, 범위가 음악과 미술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음악, 미술 교육의 내용도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과 흥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학교 예술교육의 한계로 지적하였다(면담조사, 2016.5.20.a). 아일랜드의 학교 예술교육의 중요한 이슈는 중등과정 졸업 시험에 너무 집중되어 음악, 미술의 예술 교과 교육마저 지식, 암기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학교 예술 교사들의 강한 항의가 지속되었다. 즉 예술 교과를 시험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예술 교과의 위상은 타 교과와는 동등하게 유지되지만, 한편으로는 예술 교과마저 시험 준비를 위해서 수업이 실시되는 폐단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예술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현장 교사들의 시위가 있었고 그 결과, 2016년도 개정된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Junior Cycle Certificate 시험 내용이 지필 중심에서 노래, 연주, 작곡 등의 음악적 능력 수행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National Concert Hall의 예산은 문화부(department of arts)가 30%, 티켓 판매 수익금이 70%, 마지막으로 약간의 기부금으로, 세 군데에서 제공된다(면담조사, 2016.5.20.a). National Concert Hall의 다양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실정이다. 인적자원의

부족과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National Concert Hall 또는 National Gallery와 같은 국가 예술 기관은 교육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법적(규칙)으로 정해져 있다(면담조사, 2016.5.20.a). 그렇다고 해서 National Concert Hall과 같이 타 기관에 예술 분야와 예술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모두 갖춘 자가 디렉터를 맡거나 채용되어 있지는 않다. National Concert Hall의 음악 교육이 오로지 예술가 양성을 위한 교육, 즉 음악 자체에 대한 교육으로 편중되지 않고, 학교 교육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 교육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력이 바로 예술 교육 총괄 담당자를 두 분야의 전문성을 모두 갖춘 자로 선택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Nigel Flegg은 중등학교의 음악 교사였으며, 재즈를 전공한 음악가이다. 또한 국가 예술과 교육과정 개발에도 참여하였고 현재도 국가 예술과 교육과정 연구와 관련하여 자문을 하고 있다. Nigel Flegg은 학교 교육에 대한 통찰로 교과 간 통합 및 융합 교육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National Concert Hall의 음악 교육 프로그램도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고 있다.

National Gallery에는 학교 초·중등 미술과 교육과정 지원 부서,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 부서, 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부서로 세 개의 부서로 구성된다(면담조사, 2016.5.20.b). 이 중, 학교 초·중등 미술과 교육과정 지원 부서에서는 National Gallery의 홈페이지 ‘resource’라는 섹션에서 National Gallery의 전시와 관련하여 학교 미술 수업에 실제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Junior Certificate Exam과 Senior Leaving Certificate Exam의 미술 과목 시험(artistry)에서 미술과 방문에 대한 문항이 있다(면담조사, 2016.5.20.b). National Gallery에서 제공하는 워크숍과 가이드 투어가 시험과도 관련이 깊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다양한 워크숍들이 있는데 워크숍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전시를 감상하고 난 후, 학생들이 작품을 제작해 보도록 하여 보다 깊이 있게 작품을 이해하도록 한다. 워크숍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즉 학교 내 미술실에서 학습하기 어려운 학습 내용을 갤러리에서 선정한다. 미술 교육의 선두 주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정책들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워크숍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National Gallery 뿐만 아니라 National Museum, National Concert Hall과 같은 국가 문화 기관에서는 교육부 정책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이것은 2013년도 문화부와 교육부에서 공동으로 실시하게 된 Arts Education Charter 정책을 기반으로, 국가의 예술 기관들이

학교 예술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출발점으로서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을 제공하는 데 보다 집중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갤러리나 뮤지엄과 같은 예술 기관들이 학교 예술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전통으로서 당연시 되고 있다. 더블린시에 약 500개의 중학교가 있고, 한 달에 약 100개의 학교가 National Gallery 워크숍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전환학년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다. 프리랜스 예술가들(freelance artists)에게 투어 일주일전에 연락을 해서 워크숍을 계획하고 실시한 후에 갤러리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예산은 문화부에서 지원하였으나 최근 지역 발전부로 변경되어 지역 사회 주민들을 위한 워크숍을 주말에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 아일랜드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특징

(가) 기관 간 공조 체제에 기반한 예술교육 정책 전담 기관 설치

아일랜드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특징은 아일랜드 교육부와 문화부의 상호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와 문화부의 공조 체제하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에서의 예술교육(Arts-in-Education)’ 정책의 주관 기관은 예술위원회이다(Long, 2015: 268).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아일랜드에서도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교육부, 문화부, 예술위원회 등 국가 기관들뿐만 아니라 예술, 예술교육 그리고 교육 분야의 교류나 협력이 부재하여 서로 분리된 채 예술교육 정책을 시행해왔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 Department of Arts Heritage and the Gaeltacht, 2012: 3).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의 예술교육의 부족에 따른 학생들의 문화적, 예술적 소양의 미비, 21세기의 핵심 역량인 창의성과 상상력 육성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면서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일랜드 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두 부서의 공조 체제 구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전담기관인 Arts Council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전 지역의 예술교육을 연결하여 아일랜드 전체적인 예술교육의 지원과 발전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술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와 문화부가 함께 국가 차원의 예술교육 포털을 구축하여 관리하는 것이다.⁴⁶⁾ 포털 구축을 통하여 전국의 예술 및 예술교육 관련 기관, 조직,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를 조직하고, 지식과 자원 공유 및 예술교육에 대한 연대감을 조성하고자 한다. 포털에서는 사회 속 예술분야와의 연계 및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우수한 예술 수업 사례, 세미나, 워크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포털을 통하여 예술교육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참여하여 예술교육 이론과 실제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포털 편집 위원회는 총 10명인데 예술 분야에서 5명, 교육 분야에서 5명으로 구성된다.

둘째, 예술위원회는 타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실시한 학교 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다수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Long, 2015: 269). 가장 대표적인 보고서인 Arts, Education and Other Learning Settings: A Research Digest(2007)은 1979년부터 2007년까지의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72개의 보고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2004년(2007년 개정)에는 초중등 학교들과 예술 조직들과 함께 작업한 디렉토리인 Arts in Education Directory, 2006년에는 예술가와 교사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북인 Artists-Schools Guidelines(2006)을 교육부와 함께 개발·보급하였다.

셋째, 예술위원회는 학교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Long, 2015: 269). 예술위원회는 다양한 지역의 예술 권위자들과 연계한 Artist in Schools Scheme과 Poetry Ireland가 운영하고 있는 Writers in Schools Scheme에 자금을 지원한다. 전환학년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National Architect in School은 아일랜드 건축 기금(Architecture Foundation)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아일랜드 교사 협회(Association of Teacher Education Centres of Ireland)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예술위원회, 교육부, 문화부도 자금을 지원한다.

학교 음악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예술위원회는 Music Generation과 최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예술위원회를 포함한 지역의 음악 기관들이 Music Generation 사업⁴⁷⁾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Long, 2015: 269). 18,500여 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질 높은 음악교육을 받고 있으며 220명 이상의 음악인들이 직업을 얻게 되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술위원회가 자금을 지원하는 예술교육 사업은 Fighting Words: The Write to Right이라는 창의적 글쓰기 센터이다(Long, 2015: 269). 2009년 1월에 더블린 시내에 설립되었는데, 창의적 글쓰기에 대한 무료 튜터링과 멘토링 및 작사, 작곡, 극본, TV

46) <http://www.artscouncil.ie/> (2016.10.6. 검색)

47) Music generation은 예술적 체험 수준을 넘어서 0세부터 18세의 모든 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 단순히 예술 체험의 수준을 넘어 악기로 연주할 수 있을 정도의 학교 밖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예술 단체와 기관의 자원 봉사와 기부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향후 국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면담조사, 2016.5.18.).

글쓰기, 미디어 글쓰기 등의 예술 이벤트를 6세에서 17세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를 지닌 성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The Irish Times, The National Gallery, The Print Museum, The Science Gallery, Brown Gag Film Animation, 그리고 5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술위원회, 더블린시 위원회, Arts Office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대대적인 협력으로 9-11세 어린이들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작품을 2012년 국제 영화 페스티벌에 출품하였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Fighting Words이 주최하여 40,000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수많은 창의적 글쓰기 워크숍,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나) 국가와 지역 연계 파트너십에 기반한 Arts-in-Education 정책 구현

아일랜드의 예술교육 체제는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예술 및 예술교육 유관 기관 및 조직, 예술가들, 지역교육청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큰 규모의 예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국가와 지역 연계 예술 및 예술교육 사업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ssociation for Creativity and Arts-in-Education(ACAIE)는 예술을 통한 창의성과 상상력 증진이라는 교육 목적을 위해 모인 교사와 예술가의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이다. 더블린 시내의 The Ark에서 매년 2-12세 어린이를 위해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창의적 교수·학습을 실천한 학교에 Creative Schools Award를 수여하고 있다(Long, 2015: 270).

Encountering the Arts Ireland(ETAI)는 2013년 11월에 문화부와 교육부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30개 예술, 교육, 문화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Long, 2015: 270). 예술가, 문화 기관, 교육 기관들의 다양한 협력적 파트너십의 상징이다. ETAI에서는 개최한 두 가지의 중요한 회의인, Lightening a Fire Conference와 Schools: Access to Culture Conference에서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열린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였고, 초·중등 교사들이 참석하여 초·중등 교육에서 창의성과 문화 교육과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삭감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학교 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다수의 학교 예술교육 지원체들은 교육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공론화하였다.

아일랜드의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 예술교육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예술위원회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 정부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 시행에서의 지속적인 성공을 가져올 수 있었다. 예술위원회는 Arts Rich Schools(ARIS)을 발전

시키고 새롭게 구축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Music Generation이 이끄는 기획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Long, 2015: 270). 예술위원회는 학교 예술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술 조직들이 정부의 자금을 받도록 지원할 것이며, 학교 예술교육 서비스와 학교 예술교육에서 발전이 거의 없는 예술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아일랜드의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 및 평가를 담당하는 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and Assessment(NCCA)와 연계하여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 교사 교육 센터(teacher education center)와의 협업을 통한 연계 강화

아일랜드의 예술교육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중앙의 교육부, 문화부, 예술위원회의 삼각 구도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다. 그런데 중앙의 예술교육 정책은 다시 지역의 예술교육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구도이다. 지역 단위에서 중앙의 예술교육 정책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현할 때 아일랜드 정부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교사 교육 센터(teacher education center)’와의 협업이다(면담조사, 2016.5.18.). 교사 교육 센터는 각 지역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고, 지역 카운티 교육청의 예술 담당자와 협력하여 현장의 교사들이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하고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앙의 예술위원회가 교사 교육 센터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세 가지 정책이 있는데, 하나는 Arts Rich School Award와 Music Generation이다(면담조사, 2016.5.18.). 이 정책들은 예술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수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학교의 예술교육에 대한 문화와 풍토의 정착에 목적을 둔다. Arts Rich School Award는 학교가 어떻게 예술을 수용하고, 예술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예술에 좀 더 친숙해지도록 하는 문화 형성 여부에 따라 학교를 선정하여 매년 상을 수여한다. Music Generation은 학생들에게 예술가들과의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Music Generation은 ‘교사-예술가 파트너십(teacher-artists partnership)’에 기반을 두고 운영된다. 아일랜드의 6명의 수석 교사와 6명의 수석 예술가가 모여서 전문성 증진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각각 12명의 예술가들과 교사들은 전국 21개의 지역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대표로 선정된 예술가들과 교사들의 연수를 담당한다. 지역의 교사교육센터에서 교사는 각 1명씩 21명의 교사를 선정하고, 예술가는 미술관, 박물관 등의 조직들로 구성된 ETAI(Encountering The Arts

in Ireland)에서 21명을 선정하여 연수에 참여한다. 21명의 교사들과 예술가들은 각 지역으로 돌아가 해당 지역의 교사 교육 센터에서 지역의 교사와 예술가를 연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라) 전환학년을 통한 다양한 예술 장르 참여 및 학교 예술 향유 문화의 정착

• 다양한 장르의 예술적 체험의 통로 제공

아일랜드 사회는 한국만큼 대학 입시에 과열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초등학교부터 세 번의 국가 학업 성취도 평가와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 이수 후, 중학교 졸업시험이 있다. 학업 부담이 과중되어 있고, 지식 중심의 학습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직업 세계를 체험하게 하고, 미흡하거나 흥미 있는 분야를 깊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전환학년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면담조사, 2016.5.19.a).

전환학년제에서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한다. 전환학년제에서는 교과목도 학교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교사가 자신의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면담조사, 2016.5.18.). 단 학생들의 이전 학습 경험 수준과 내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 능력, 학습 경험 등에 대한 조사와 학부모들과의 논의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계획한다(면담조사, 2016.5.18.). 일반적으로 Junior Cycle 3학년말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나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과거에는 무엇을 어느 정도 학습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한다. 교육부에서 전환학년제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만 이를 기초로 학교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한다.

전환학년에서의 예술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전에 예술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지식 학습에 편중된 교육에서 벗어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단순히 예술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 예술에 대한 깊은 경험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즉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한되었던 다양한 예술 장르를 경험하고 하나의 장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전환학년제의 가장 큰 목적은 자기 개발 및 자기주도적 학습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있다(면담조사, 2016.5.19.a). 학습형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여 학습하는 동료 협동 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학습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력적 마인드를 체득한다. 팀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 교육 내용도 달라진다. 한 팀당 학생 수는 15-23명이며, 23명이 넘으면 분반하여 운영한다. 전환학년에서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

습에 참여하여 완수해야 하는 탐구 및 수행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전환학년제 담당 음악 교사는 전환학년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학습 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담조사, 2016.5.19.a).

전환학년에서의 학습 방식은 완전히 달라서 학생들은 커다란 변화를 느껴요. 팀 단위의 프로젝트 학습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원으로서 자식의 역할을 수행해 내야하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성취도 중요한 거예요. 평가는 지필로 하지 않고, 학점 이수로 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끊임없이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자신의 개인적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야 해요. 자기 스스로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개인적 성숙을 추구하는 거예요.

Nortre Dame Secondary School는 학생과 학부모의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여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다음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고 있었다(면담조사, 2016.5.19.a). 전환학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매우 높다고 한다. 그 이유는 중등 과정 5, 6학년의 학습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이다. Mildred Brannigan 교장은 Nortre Dame Secondary School에서 전환학년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학교는 전환학년제에서 다양한 예술교육을 하기에 정말 장점이 많아요. 학생들이 정규적으로 갤러리나 음악홀이 주변에 가까이 있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밤에 더블린 시에 있는 연극을 보러 다녀왔고, 뮤지컬, 드라마, 발레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특정 교과에서 가르치니 않는 예술 분야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미술이나 음악을 2, 3학년 때 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고등학교에서 음악이나 미술을 다시 선택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전환학년에서 자기계발을 하면서 다른 모든 과목들도 공부함으로써 앞으로 자기가 무슨 과목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게 하는 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환학년 프로그램을 지역 예술기관이나 조직과 연계하여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면담조사, 2016.5.19.a). 학교 음악, 미술시간이 일주일에 한 시간밖에 없어 그 시간을 미술관 방문 등에 사용하기 어렵고, 지역 예술기관은 이미 다른 학교들의 방문으로 차버리기 때문에 지역 예술기관 방문 및 예술가 방문을 요청하기에는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전환학년 예술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수업 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미술 교사는 미술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학생들이 세계를 보다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사회 속에서 미술을 감상할 줄 알며, 미술 교육 안에서 다양한 영역과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삶 속에서 미술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면담조사, 2016.5.19.a). 음악 교사는 ‘무엇보다도,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사랑을 촉진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자신의 음악 교육에 대한 교육 철학을 말하였다.

St. Colmcille’s Community School의 음악과 미술교사는 예술교육을 위한 전환학년의 의미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한다(면담조사, 2016.5.19.b). 전환학기의 음악 수업에서 학생들은 음악 콘서트, 합창, 크리스마스 송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맛보고 집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Junior Level Course에서 음악, 미술을 선택하여 배우지 않았어도, 전환학기에서 학습해서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Leaving Certificate에서 음악, 미술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전환학년에서 예술 교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개인차는 크지만, 학생들이 집중하여 연습하면 연주 및 노래 능력이 발전하게 된다고 한다. 수준별로 전환학기에서 예술교육은 1년 내내 하는 프로그램과 1년을 7주로 나누어 네 파트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1년 내내 운영되는 프로그램에는 예술을 중등과정 5, 6학년에서 선택하고 자신의 진로를 예술 분야로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주로 참여한다.

St. Colmcille’s Community School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예술교육을 운영한다(면담조사, 2016. 5.19.b). 학생들은 교회에서 지역의 음악가들과 밴드 연습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지역 사회에 보다 연대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 미술 교과의 경우에도 지역의 박물관이나 갤러리로부터 예술가와의 만남, 워크숍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학교에 먼저 하게 되고 학교는 선택한다. 이번에는 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갤러리에서 학생들의 미술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전환학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하나 현실적으로는 교사의 전문 분야와 역량에 따라 개설될 수 있다(면담조사, 2016. 5.19.b). 예를 들면, 하나의 프로그램은 7주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있다면 1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이 가능하게 된다. 가톨릭 학교인 St. Colmcille’s Community School에서는 종교 음악에 전문성을 가진 음악 교사가 있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종교 음악을 선택하여 배우게 된다. 저널리즘, 중국어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교사가 있어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환학기에서의 평가도 학교마다 다르다. 어떤 학교에서는 지필 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St. Colmcille's Community School에서는 출석, 면담, 저널 작성 등의 방법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다.

• 모두가 참여하여 즐기는 학교의 예술 향유 문화의 정착

Nortre Dame Secondary School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 음악과 미술은 주당 1시간 20분씩, 드라마와 노래는 각각 40분씩 실시하고 있다(면담조사, 2016.5.19.b). 3학년과 6학년을 제외하고 학교 전체가 매년 수요일 두 시간씩 방과 후 교육과정(after school curriculum)과 extra curriculum activities(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예술 활동을 한다. 교사들은 정규 예술 교과 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예술 활동에서 예술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자 한다. 이러한 예술 교육에 대한 철학을 전환학년에서 보다 강조하여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학생의 요구에 따라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음악 교사는 예술교육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를 예술 공연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고양시켜준다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음악 교사는 예술 공연 발표회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담조사, 2016.5.19.a).

중등과정 1학년 1학기가 끝나치고 학생들의 음악, 드라마, 연극 공연 및 미술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학부모를 초청해요. 학기말, 학년말에 모든 학생들이 하는 갈라 콘서트가 있는데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매우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되요....또한 학교 내 음악 경연 대회는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의 음악의 향유(the enjoyment of music)의 기회인 것 같아요. 학교 전체의 축제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음악가, 고전음악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의 연주를 듣고, 학생들도 참여하고, 교사와 학부모도 음악 퀴즈 대회에 함께 참여해요.

아일랜드에서는 다양한 예술 공연 경연 대회가 개최되고, 학교에서는 이러한 경연 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아일랜드의 경연대회의 이미지는 한국과 사뭇 다르다. 아일랜드 학교에서는 경연대회에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함께 즐기는 학교의 축제, 가족의 축제이다. 학생들은 학교 대표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게 된다. 학교에 대한 자긍심, 삶에 대한 용기, 성취감, 배려, 예술에 대한 넓은 식견을 갖게 되는 것, 교사들은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술교육의 목표라고 한다(면담조사, 2016.5.19.a). 학교는 음악, 미술 등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학교 전체가 함께 예술 향유 활동에 참여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Nortre Dame Secondary School의 전환학년제 담당 교사(음악 교사)는 전환학년제에 대해서 학부모와의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한다고 하였다(면담조사, 2016.5.19.a).

우리 학교는 전환학년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학부모에게 북클릿(booklet)을 제작해서 제공해요. 이것은 홍보의 또 다른 방식이죠. 또한 온라인에서 학부모들은 음악과 미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뉴스 레터도 발간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전환학년제 프로그램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있어요.

(3) 시사점

아일랜드의 학교 예술교육의 핵심은 정규 교과 교육과정에서 예술교육을 내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선택교과나 학교 밖에서 다양한 예술교육 및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 환경과 시스템을 조직화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학교 예술교육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가) 학교 예술교육의 범주 확대를 통한 학교교육과 예술 세계의 연계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예술교육의 범주가 지역 연계를 활성화하는 학교 예술교육 정책을 통해서 확대되고는 있으나 예술 교과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 영역에서의 예술교육의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못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예술교육이 학교교육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술 교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예술적 소양을 충실하게 육성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술 교과 이외의 학교교육 영역에서 다양한 예술 체험을 통하여 학생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학교 예술교육의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면담조사, 2016.9.5.a, 2016.9.6., 2016.9.19.). 즉 학생들의 예술 향유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전반으로 학교 예술교육의 범주를 확대하여 예술이 학교교육 활동 전반에 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단 예술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후학교 등의 예술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고 내실있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일랜드에서 2013년부터 교육부와 문화부의 공조 하에 추진하고는 있는 ‘교육에서의 예술(Arts-in Education)’ 정책은 예술교과 교육에 제한되어 있던 학교 예술교육의 범주를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예술 체험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의 예술 교과 교육을 기본으로, 선택교과(short courses)와 전환학기를 통하여 지역 사회의 국가 예술기관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예술위원회가 타 예술조직들과 협업하여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예술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Junior Cycle 1학년 이후 예술교과는 선택교과로 예술 수업 시수가 한국에 비해서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제공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교 예술교육의 경계를 넘어 자연스럽게 사회 속 예술 세계에의 참여를 통하여 평생에 걸쳐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소양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교 예술교과 교육은 음악과 미술로 한정되어 있으며 적은 수업 시수 안에서 충분한 예술적 체험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연극, 영화,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및 음악과 미술 분야의 세분화된 분야에 대한 학습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예술 교과 교육은 학생들이 배워야할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학생들이 미래에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 기관의 프로그램들은 학교 예술교과 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아일랜드 정부는 학교 예술교과 교육의 충실을 기본으로 다양한 예술적 체험 활동이 가능한 통로를 마련하여 학교 예술교육을 보완하고 있다. 실제로 아일랜드 학교교육에서 예술교과의 위상은 영어, 수학, 과학 등 소위 주지교과에 비해서는 높지 않는 편이지만 Junior Certificate Exam과 Leaving Certificate Exam에서 예술 교과를 시험 교과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학교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충실하게 실시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 적성,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환학기, 선택과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학습을 위한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아일랜드 학교 예술교육의 범주를 확대한 ‘교육에서의 예술(Arts-in-Education)’ 정책으로부터 한국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방향 설정에 대한 방안들을 얻을 수 있다. 즉 학교 예술교과 교육의 내실화 및 예술교과 교육 외 학교교육 영역에서 학생들의 예술적 체험을 다양화하고 심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나) 기관 간 공조 체제에 기반한 지역 연계 학교 예술교육 정책 시스템 구축

우리나라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주관 부처는 교육부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 예술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예술교육 활동이 예술적 체험을 풍부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예술 세계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학교 예술교육 안으로 생생한 예술 세계를 끌어들여 예술적 체험을 풍부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과 예술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예술교육과 예술의 세계를 보다 긴밀하게 연결하여 학생들의 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중앙의 정책이 학교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을 매개해 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규 교과 교육 이외의 예술 교육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추진 주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문화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일랜드는 2012년도에 예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교육부에서 학교 예술교과 교육을 담당한다면, 예술 위원회는 학교를 학교 밖 예술 세계와 연결하여 학교 예술교육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예술 위원회는 교육부와 문화부 정책들을 연결하여 학교교육 안에 예술가, 예술조직, 예술기관 등 예술 세계를 끌어들인다. 중앙에서 다양한 예술 분야의 예술단체 및 예술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이들과 함께 협업하여 국가 차원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때, 국가 차원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전국 단위의 예술전문인들이 모인 회의 등을 추진하기 위해 21개 지역 교육청의 교사 교육 센터(teacher education center)와 협업한다. 즉 중앙의 주요 부처의 정책을 연계·통합하고 지역의 교사 교육 센터 등과 함께 국가 차원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을 추진하여 중앙의 예술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까지 안착될 수 있도록 한다.

아일랜드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의 이원화된 학교 예술교육 정책을 통합·관리하고, 중앙의 정책이 지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역의 학교 예술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국가-중앙-지역 파트너십 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IV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실태 및 우수 사례

1.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실태에 대한 인식
2.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우수 사례

이 장에서는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실태에 대한 인식과 우수 사례에 대해 제시하였다.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실태에 대한 인식은 교사와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우수 사례는 문헌 연구, 면담 조사, 전문가 협의회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1.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실태에 대한 인식

가. 학생 대상 설문

(1) 설문 개요

중학교 학생의 예술교육 향유 실태와 요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술교육 향유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지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학교를 고르게 선정하고, 3,1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를 변인별로 정리하면 <표 IV-1-1>과 같다.

<표 IV-1-1> 학생 응답 현황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3120	100.0
학년	1학년	1017	32.6
	2학년	1020	32.7
	3학년	1083	34.7
성별	남	1426	45.7
	여	1694	54.3

(2) 학생들의 실태 인식 및 요구

중학교 학생들의 예술교육 향유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질문을 제기하였다.

<표 IV-1-2> 예술 향유 구성 요소에 따른 학생 대상 설문 문항 구성 내용

지표	참여		능동성	긍정적 정서
기준	교내 외 예술 활동 참여 여부		자신의 의지대로 스스로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도	활동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 만족감의 정도
문항 구성	교 내			1. 음악, 미술 교과 수업에서 예술 향유 활동 만족도
		2. 창의적 체험활동 중 예술동아리 활동 참여 경험 여부	2-1. 참여 동기	2-2. 참여 만족도
		3. 자유학기 활동 중 예술 활동 참여 경험 여부	3-1. 참여 동기	3-2. 참여 만족도
		4. 방과후 활동 중 예술 활동 참여 경험 여부	4-1. 참여 동기	4-2. 참여 만족도
	교 외	5. 예술 교육 경험 5-1. 교육 경험 여부 5-2. 교육의 종류 5-3. 교육 경험 장소	5-4. 참여 동기	5-5. 참여 만족도
		6. 예술 행사 관람 경험 6-1. 관람 경험 여부 6-2. 관람의 종류 6-3. 관람 방법	6-4. 참여 동기	6-5. 참여 만족도
		7. 예술 행사 발표 또는 지원 경험 7-1. 발표 또는 지원 경험 여부 7-2. 발표 또는 지원 경험 종류	7-3. 참여 동기	7-4. 참여 만족도
		8. 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예술의 종류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예술 교육에 참여하는 동기 및 만족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학교 예술교과 활동

중학교 학생들이 예술을 직접 체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통로는 음악과 미술 교과 수업이다. 예술 교과에 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70%를 넘는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만족하지 않는 학생 비율은 7%에 그쳐서 학교 예술 교과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다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미세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1학년 80.9% > 2학년 70.5% > 3학년 67.9%)(<표 IV-1-3> 참조).

<표 IV-1-3> 학교 음악, 미술 교과 수업에서 예술 향유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1124	36.0	1122	36.0	659	21.1	114	3.7	101	3.2			3120	100.0
학 년	1	473	46.5	350	34.4	162	15.9	19	1.9	13	1.3		1017	100.0
	2	331	32.5	388	38.0	224	22.0	44	4.3	33	3.2		1020	100.0
	3	320	29.5	384	35.5	273	25.2	51	4.7	55	5.1		1083	100.0

학생들이 학교의 예술 교과 교육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수업이 재미있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 대상 중 63%를 넘는 학생들이 수업이 재미있지 않아서 예술 교과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반응하였는데, 기타 응답 중 유사한 응답이 다수 나타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그 비율은 70%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표 IV-1-4> 참조).

<표 IV-1-4> 학교 음악, 미술 교과 수업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구분	수업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음악실이나 미술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재미가 없어서		기타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25	11.6	19	8.8	136	63.3	31	14.4	4	1.9	215	100.0

‘수업이 재미있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서술한 불만족의 이유를 살펴보면, 예술 교과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수업이 지루하고 어렵고’, ‘이론 중심이고 활동이 부족하며’, ‘수행 평가가 아닌 지필평가의 비중이 높다’는 등이다. 예술 교과 교육에 대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만족도를 더 향상하고자 하면 교사들이 수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성찰하고 개선할 점이 여전히 많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업이 더 재미있게 진행될 수 없는’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즉 음악과 미술 교과 수업 시간이 제한되어 장시간에 걸친 수업을 계획하기 어렵거나 학교 주변에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 자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부담 때문에 평가 방법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예술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어떤 조건에

처하여 있으며,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에 고민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나)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의 예술교과 교육 외에 창의적 체험 활동은 중학생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다. 특히 가야금,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댄스, 도예 등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예술 동아리는 학생들이 예술을 가깝게 체험하는 중요한 매개라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 대상 학생 중 30%는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예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V-1-5> 참조). 이들은 ‘관심이 있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60.7%), ‘예술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해서’(13.0%), ‘예술 동아리 활동을 하는 친구와 함께 어울리고자’(8.8%),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서 참여를 권유받아서’(8.3%) 예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표 IV-1-6> 참조).

<표 IV-1-5> 창의적 체험활동 중 예술 동아리 활동 참여 경험 여부

구분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936	30.0	2164	69.4	20	0.6	3120	100.0

<표 IV-1-6> 예술 동아리 활동 참여 동기

구분	예술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해서		관심이 있거나 취미로 활동하고 싶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서 참여를 권유하셔서		예술 교과(음악, 미술) 수행평가 점수 향상을 위해서		친한 친구들이 예술동아리에 참여하기에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기타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122	13.0	568	60.7	78	8.3	27	2.9	82	8.8	37	4.0	22	2.4	936	100.0

예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75%가 넘는 학생들이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5%를 밑돌았다(<표 IV-1-7> 참조).

<표 IV-1-7> 참여한 예술 동아리 활동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379	40.5	329	35.1	162	17.3	27	2.9	17	1.8	22	2.4	936	100.0

많지는 않았지만 예술 동아리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은 ‘재미가 없어서’(50.0%), ‘학업이나 진로에 도움을 주지 못해서’(15.9%)라는 이유로 예술 동아리 활동을 불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다) 자유학기 활동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자유학기 활동으로 진로 체험이나 주제 탐구 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중요한 것이 예술 활동이다.

설문조사 대상 학생 중 자유학기 기간에 예술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30%를 조금 웃돌았다(<표 IV-1-8> 참조).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관심이 있거나 취미로 활동하고 싶어서’(56.9%), ‘예술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해서’(14.3%), ‘친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10.4%) 등의 이유로 참여하였다. 이 밖에 ‘교사나 부모의 권유로’(7.3%), ‘예술 교과 수행평가 점수를 향상시키고자’(6.3%)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도 있었다(<표 IV-1-9> 참조).

<표 IV-1-8> 자유학기 예술 활동 참여 경험 여부

구분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978	31.3	2088	66.9	54	1.7	3120	100.0

<표 IV-1-9> 자유학기 예술 활동 참여 동기

구분	예술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해서		관심이 있거나 취미로 활동하고 싶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참여를 권유하셔서		예술 교과 (음악, 미술) 수행평가 점수 향상을 위해서		친한 친구들이 예술동아리에 참여하기에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기타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140	14.3	547	55.9	71	7.3	62	6.3	102	10.4	39	4.0	17	1.7	978	100.0

자유학기 예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예술 활동에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하는 학생 비율이 95%에 육박하였을 만큼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예술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표 IV-1-10> 참조). 이들은 참여한 자유학기 예술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활동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20.9%), ‘재미가 없어서’(18.6%), ‘학업이나 진로에 도움을 주지 못해서’(18.6%)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없어서’(16.3%), ‘시설이 열악해서’(4.7%) 만족하지 못한다는 학생도 상당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표 IV-1-11> 참조).

<표 IV-1-10> 참여한 자유학기 예술 활동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427	43.7	491	50.2	31	3.2	12	1.2	17	1.7	978	100.0

<표 IV-1-11> 참여한 자유학기 예술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구분	재미가 없어서		활동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쳐서		시설이 열악해서		학업이나 진로에 도움을 주지 못해서		활동 시간이 부족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없어서		기타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체	8	18.6	9	20.9	2	4.7	8	18.6	3	7.0	7	16.3	5	11.6	1	2.3	43	100.0

(라) 방과후학교 활동

방과후학교 활동에서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학생들이 예술을 접하는 통로가 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 활동에 비하여 방과후학교 활동에서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24.5%)(<표 IV-1-12> 참조). 방과후학교 활동 중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참여 동기 역시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관심이 있거나 취미로 활동하고 싶어서’(60.2%), ‘예술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해서’(15.2%) 방과후학교 활동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았다(<표 IV-1-13> 참조).

<표 IV-1-12> 방과후학교 활동 중 예술 활동 참여 경험 여부

구분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764	24.5	2271	72.8	85	2.7	3120	100.0

<표 IV-1-13> 방과후학교 활동 중 예술 활동 참여 동기

구분	예술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해서		관심이 있거나 취미로 활동하고 싶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참여를 권유하셔서		예술 교과 (음악, 미술) 수행평가 점수 향상을 위해서		친한 친구들이 예술동아리에 참여하기에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기타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116	15.2	460	60.2	74	9.7	18	2.4	63	8.2	24	3.1	9	1.2	764	100.0

방과후 예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방과후 예술 활동에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83.0%에 달했으며, 만족하지 않는 학생 비율은 3%를 조금 웃돌 뿐이었다(<표 IV-1-14> 참조). 그 비율이 높지 않지만 방과후 예술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은 ‘재미가 없어서’(20.0%), ‘시설이 열악해서’(20.0%), ‘활동 내용이 기대에 못미쳐서’(16.0%) 등을 불만족의 이유로 들었다(<표 IV-1-15> 참조).

<표 IV-1-14> 참여한 방과후학교 예술 활동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370	48.4	264	34.6	96	12.6	14	1.8	11	1.4	9	1.2	764	100.0

<표 IV-1-15> 참여한 방과후학교 예술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구분	재미가 없어서		활동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쳐서		시설이 열악해서		학업이나 진로에 도움을 주지 못해서		활동 시간이 부족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없어서		기타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5	20.0	4	16.0	5	20.0	3	12.0	2	8.0			6	24.0			25	100.0

(마) 학교 밖 예술교육

중학교 재학 기간 중 학교 밖에서 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은 25%를 조금 웃돌았다. 이들이 받은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국악, 댄스, 드럼, 디자인, 무용, 뮤지컬, 보컬, 서양음악, 실용음악, 악기(바이올린, 플룻, 피아노, 우쿠렐라, 클라리넷, 첼로 등) 연주, 회화, 조각, 애니메이션, 도예 등 다양하였다(<표 IV-1-16> 참조). 학교 밖에서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는 사설학원이나 기관(43.6%), 개인레슨(20.5%), 공공기관(주민센터, 지역청소년교육센터, 문화재단 등)(16.1%) 순으로 나타났다(<표 IV-1-17> 참조).

<표 IV-1-16> 중학생이 된 후 학교 밖 예술교육 경험 여부

구분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 체	803	25.7	2215	71.0	102	3.3	3120	100.0

<표 IV-1-17> 학교 밖에서 예술교육 받은 장소

구분	개인레슨		사설학원이나 기관		공공기관 (주민센터, 지역 청소년교육센터, 문화재단 등)		매체 이용(TV, 인터넷 강의(PC, 스마트폰,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등))		기타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165	20.5	350	43.6	129	16.1	50	6.2	62	7.7	47	5.9	803	100.0

학교 밖에서 예술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동기 역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예술교육에 참여하는 동기와 큰 차이가 없었다. ‘관심이 있거나 취미로 활동하고 싶어서’(53.4%), ‘예술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해서’(16.8%), ‘교사나 부모의 권유로’(11.0%)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많았다(<표 IV-1-18> 참조).

<표 IV-1-18> 학교 밖에서 예술교육을 받게 된 동기

구분	예술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해서		관심이 있거나 취미로 활동하고 싶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참여를 권유하셔서		예술 교과 (음악, 미술) 수행평가 점수 향상을 위해서		친한 친구들이 예술동아리에 참여하기에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기타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135	16.8	429	53.4	88	11.0	30	3.7			46	5.7	75	9.3	803	100.0

학교 밖 예술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80%를 웃도는 학생들이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만족하지 않는 학생 비율은 3%를 밑돌았다(<표 IV-1-19> 참조). 학교 밖 예술교육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은 ‘강의가 재미없고’(40.9%), ‘강사의 교수 활동이 만족스럽지 않고’(13.6%), ‘취업이나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13.6%) 만족스럽지 않다고 반응하였다. 학교 안과 밖을 불문하고 예술교육에 불만족하는 이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표 IV-1-20> 참조).

<표 IV-1-19> 참여한 학교 밖 예술교육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392	48.8	252	31.4	90	11.2	9	1.1	13	1.6	47	5.9	803	100.0

<표 IV-1-20> 참여한 학교 밖 예술교육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구분	강의료가 비싸서		강의가 재미없어서		학업이나 진로에 도움을 주지 않아서		선생님의 가르침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기타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1	4.5	9	40.9	3	13.6	3	13.6	6	27.3			22	100.0

(바) 학교 밖 예술 활동 참여 및 지원

중학생이 된 이후 학교 밖에서 예술 행사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은 50%를 조금 웃돌았다(<표 IV-1-21> 참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예술 활동에서 발표하거나 행사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은 14.6%에 그쳤다(<표 IV-1-22> 참조). 관람과 같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참여 비율은 중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V-1-21> 중학생이 된 학교 밖에서 예술 행사 관람 경험 여부

구분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1670	53.5	1298	41.6	152	4.9	3120	100.0

<표 IV-1-22> 학교 밖 예술 행사에서 발표나 행사 지원 경험 여부

구분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457	14.6	2458	78.8	205	6.6	3120	100.0

학생들은 영화, 연극, 음악, 뮤지컬, 국악(판소리), 무용, 미술, 사진, 문학, 발레, 조각 등의 예술 활동을 관람하였으며, 청소년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댄스, 미술 경연대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다만, 예술 행사를 관람하게 된 동기로 ‘학교 단체 관람’(26.7%)이나 ‘학교 수행평가 숙제’(6.3%)를 든 학생들이 적지 않아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 역시 학교의 예술교육과 상당히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IV-1-23> 참조).

예술 행사에서 발표나 지원을 하게 된 동기로는 ‘관심 및 취미 활동 발표’(33.7%)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보다 적극적인 참여는 학생들의 예술 향유 의지와 자발성에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IV-1-24> 참조).

<표 IV-1-23> 학교 밖 예술 행사 관람 동기

구분	스트레스 해소		학교 단체 관람		학교 수행평가 숙제		소질 및 특기(진로) 개발		관심 및 취미 활동 발표		기타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417	25.0	446	26.7	105	6.3	77	4.6	329	19.7	236	14.1	60	3.6	1670	100.0

<표 IV-1-24> 학교 밖 예술 행사에서 발표하거나 행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

구분	스트레스 해소		학교 단체 관람		학교 수행평가 숙제		소질 및 특기(진로) 개발		관심 및 취미 활동 발표		기타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64	14.0	60	13.1	19	4.2	96	21.0	154	33.7	55	12.0	9	2.0	457	100.0

학교 밖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 양태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불문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예술 행사를 관람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85%를 웃돌았고(<표 IV-1-25> 참조), 학교 밖 예술 행사에서 발표하거나 행사를 지원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표 IV-1-26> 참조). 따라서 예술 행사 관람이나 발표 및 지원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IV-1-25> 관람한 학교 밖 예술 행사 관람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867	51.9	565	33.8	158	9.5	17	1.0	12	.7	51	3.1	1670	100.0

<표 IV-1-26> 발표 및 지원한 학교 밖 예술 행사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232	50.8	154	33.7	50	10.9	8	1.8	4	.9	9	2.0	457	100.0

(사) 정리 및 예술교육에 대한 요구

이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안과 밖을 불문하고 예술 교육이나 예술 활동 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학생들의 예술교육에 대한 불만족 수준은 높지 않지만, 교과 담당 교사들이 수업을 더 의미 있고 재미있게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과 교사들이 처해있는 물리적, 제도적 조건을 개선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학생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생들은 매우 다양한 활동이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학생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의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것 외에 컴퓨터 그래픽, 캘리그래피, 힙합, 캐리커처, 캐릭터 디자인, 웹툰, 포토샵, 뷰티 관련(메이크업, 네일아트, 헤어디자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영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나. 교사 대상 설문

(1) 설문 개요

전국의 중학교 음악, 미술 교사 214명을 대상으로 학교 예술교육의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응답자를 변인별로 정리하면 <표 IV-1-27>과 같다.

<표 IV-1-27> 교사 응답 현황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214	100.0
소재지	대도시	97	45.3
	중소도시	72	33.6
	읍면지역	45	21.0
교직 경력	5년 미만	62	29.0
	5년~10년 미만	34	15.9
	10년 이상~20년 미만	50	23.4
	20년 이상~30년 미만	52	24.3
	30년이상	16	7.5
담당 학년 (중복응답)	1학년	169	38.7
	2학년	132	30.2
	3학년	136	31.1
자유학기	1학년 1학기	28	13.1
	1학년 2학기	177	82.7
	2학년 1학기	1	0.5
	2학년 2학기	6	2.8
	3학년 1학기	1	0.5
	3학년 2학기	1	0.5

(2) 교사들의 실태 인식 및 요구

학교 예술교육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 질문을 제기하였다.

<표 IV-1-28> 교사 대상 설문 문항 구성 내용

문항 번호	설문 내용
1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의 내용과 종류
2	학교 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예술 향유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3	학교 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예술 향유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
4	학생들의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의 유형

학교에서는 음악과 미술 등 예술교과의 교수·학습 활동 외에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학교 예술교육 사업,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장에서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소재지에 따라 실제 진행되는 예술교육의 유형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대도시 소재 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기간의 예술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방과후학교 동아리 활동이 그 뒤를 이었으나, 중소도시 소재 학교는 방과후학교 예술동아리와 자유학기제 예술 활동이 비슷한 수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예술 동아리가 그 뒤를 이었다. 읍면 지역 소재 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 자율 동아리와 자유학기제 기간의 예술 활동이 활발했고, 창의적 체험활동 중 예술 동아리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 한편 학교 예술교육 사업은 중소도시 소재 학교에서 가장 활발했고, 대도시와 읍면 지역 소재 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29> 참조).

<표 IV-1-29>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의 유형

구분		창의적 체험활동 중 예술동아리		자유학기 예술활동		학교예술교육 사업		방과후학교, 자율동아리		기타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전 체		110	23.0	146	30.5	76	15.9	134	28.0	13	2.7	479	100.0
소재지	대 도시	55	25.8	68	31.9	33	15.5	52	24.4	5	2.3	213	100.0
	중소도시	39	21.9	50	28.1	34	19.1	51	28.7	4	2.2	178	100.0
	읍면지역	16	18.2	28	31.8	9	10.2	31	35.2	4	4.5	88	100.0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의 유형과 관계없이 실제 교육 활동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악기 연주, 오케스트라, 합창, 국악, 댄스, 연극, 난타, 만화, 애니메이션 등이 여러 학교에서 예술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나)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평가 및 지원 요구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예술교육 활동이 학생들의 예술 향유 능력을 높이는가에 관하여 교사들은 다양한 활동이 비슷한 수준에서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관련 질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절대 다수는 예술 교육활동이 예술 향유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반응하였다. 그러나 관련 질문에 40%의 교사들은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응답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심층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표 IV-1-30> 참조).

<표 IV-1-30> 중학교 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예술 향유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구분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응답		합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음악, 미술 교과 수업	52	24.3	26	12.1	8	3.7					128	59.8	214	100.0
창의적 체험활동	39	18.2	36	16.8	9	4.2	1	0.5	1	0.5	128	59.8	214	100.0
자유학기 활동	40	18.7	35	16.4	11	5.1					128	59.8	214	100.0
학교예술교육지원 사업	40	18.7	29	13.6	15	7.0			2	0.9	128	59.8	214	100.0
방과후학교, 자율동아리	45	21.0	31	14.5	10	4.7					128	59.8	214	100.0

한편 많지 않은 교사들이 예술교육 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들은 교사 부족, 시간 부족, 시설 부족, 예산 부족 등 예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물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학교의 예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현행 예술교육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와 거의 대칭되었다. 즉 교육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에서 교사 확보, 예산 지원, 시설 지원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시사점

이번 조사 결과 중학교에서 음악과 미술 교과 수업은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 방과후학교 활동 등 다양한 장을 통하여 예술 향유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예술 활동이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첫째, 학생들이 학교 안팎의 예술 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 밖 행사 관람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참여 동기 중 가장 큰 부분이 비록 ‘학교 단체 관람’으로 능동성은 떨어졌지만 결국 참여를 통해 긍정적 정서를 이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술 행사 관람 기회를 점차 확대하여 학생들의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둘째, 예술 행사에서 발표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예술 행사에서 발표나 지원을 한 학생들의 참여 동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관심 및 취미 활동 발표’였다. 즉 적극적인 형태의 참여를 보인 학생은 예술 향유의 의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술 행사에서 발표하거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의 분야를 다양화해야 한다. 학생들은 현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행사를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넷째,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강사, 시설,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사들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는 데 이러한 요인들이 장애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이 과제를 분담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

2.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우수 사례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우수 사례는 시도교육청 장학사의 추천 및 각종 발표회에서 학생들의 예술 향유가 잘 이루어지는 우수 사례로 발표된 학교 중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규모를 고려해 6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학교의 담당 교사에 대한 면담, 학교교육 계획서, 각종 공모신청서, 수업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선정

된 학교의 개요와 면담 내용을 제시하면 각각 다음 표와 같다.

<표 IV-2-1>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우수 사례 대상 학교

학교명	면담 대상자	소재지 및 규모	특징
A 중학교	교사 1, 교감 1	서울/대도시	교과 간 협력 수업을 통한 뮤지컬 창작 프로젝트
B 중학교	교사 2, 혁신부장 1	경기도/중소도시	뮤지컬 페스티벌을 통한 지역 나눔
C 중학교	교사 1	경상남도/읍면	합창으로 즐거운 학교
D 중학교	교사 1, 교무부장 1	경기도/대도시	학생과 공감하는 미술 수업
E 중학교	교사 1, 교장 1	대전/대도시	관리자의 예술교육에 대한 철학과 전략적 지원
F 중학교	교사 1, 교장 1	전라북도/읍면	교사의 미술교육에 대한 신념과 문제 해결을 통한 미술 수업 혁신

<표 IV-2-2> 중학교 예술 향유 우수 사례 면담 내용

면담 내용	
학교 예술교육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배경 • 학교 환경(지역 특성 및 지원, 학부모와 학생의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및 지원) • 교사 및 관리자의 예술교육 철학
예술 향유를 위한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교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교수·학습과 평가 방법
연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관리자의 지원 • 교과 수업, 창체, 자유학기 등의 연계 현황 • 교사 간, 교사와 강사 간 협업 • 지역(지자체, 교육청 등) 연계 정도 및 방법
예술 활동의 효과	• 예술 활동을 통해 나타난 효과 및 변화(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 사회 등)
현재 운영의 어려움	• 학교 예술교육 운영에서의 어려움
향후 운영 방안	• 학교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속 방안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예술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태도, 능동성, 긍정적 정서 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차원에서 -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 -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 국가 차원에서

이들 학교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학교 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예술 활동을 통해 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태도도 함양되었고,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수 사례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과 함께 각 학교마다 특징적인 사례를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가. A 중학교 사례: 교과 간 협력 수업을 통한 뮤지컬 창작 프로젝트⁴⁸⁾

(1) 뮤지컬 사업 도입 배경

A 중학교는 서울 소재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간 중국 동포 유입, 국제결혼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사회적 배려대상자(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가 다수 거주하고 조손가정, 별거가정, 다문화가정이 많아 학부모의 경제력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능력 및 의욕이 떨어지고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부족하여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인성교육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문화적인 역량을 끌어올리며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을 지원하게 되었다.⁴⁹⁾

그중에서 선택된 것이 뮤지컬이었다. 2010년 이전에는 특별반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으며, 2010년부터는 교육부에 신청을 하여 동아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뮤지컬 동아리 사업을 시작하게 된 교사와 교감의 설명이다.

- 교사: 원래는 특별반 프로그램이었어요.
- 교감: 제가 처음 왔을 때 2층 다목적실이 학생들이 모여서 연습하는 공간이에요. 교실 세 칸에서 두 칸 반 정도 되는데 거기를 학생들이 다 쓰지도 못하고 반은 탁구대가 있었는데 그 앞에 낙서가 있었어요. 제가 교감 처음 돼서 돌고 있는데 거기 낙서에 ○○(특별반 프로그램 이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 쓴 거예요. 왜 여기서 끝나야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애네들이 말썽쟁이들인 거예요. 공연을 하면서 많이 울고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들 같은 말썽쟁이들이 더 이상 안 나와야 한다는

48) 해당 내용은 A 중학교 교감, 음악교사와의 면담 조사(2016.9.5.b)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49) A 중학교 '2016 인성교육 우수학교 공모신청서' 참조

뜻으로 쓴 거예요.

- 교사: 특별 프로그램은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 교감: 그래서 그 낙서에 담긴 의미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서 뮤지컬 처음 시작한 배경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음악선생님 두 분의 열정으로 진행되다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뮤지컬 사업으로 퍼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우선은 공부를 너무 안하려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생활을 좀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선생님들이 지지를 보내준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즐겁게 하니까 때로는 싸우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드셨나봐요.
- 교사: 당시 교감선생님께서 학교가 학교다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다가 예술로 애들을 행복하게 하면 아이들이 밝게 생활할 수 있겠다, 예술이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에 많은 유실교실들을 활용해 동화교실도 만들고 졸업식에 공연도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어요. 학급뮤지컬도 하게 됐고. 특히 선생님들을 너무 너무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에 와도 교실에 안 들어가고 운동장 주변 배회하고 담배 피고 애들 돈 뜯고 다른 학교 가서 패싸움하고. 그런 애들을 학교에라도 붙잡아 놔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을 만든 거죠. 처음부터 뮤지컬로 시작한 건 아니고 아이들한테 ‘너희들 뭐할래?’ ‘저희들은 춤이라도 추고 싶어요.’ ‘노래나 부르고 싶어요.’ ‘수업 들어가도 잘 못 알아듣겠고 선생님들이 미워해요.’ 이렇게 되니까 연극연출가 붙여주고 그랬던 거죠.

(2) 교장의 리더십: 교사와 학생의 연결고리

이렇게 뮤지컬 사업을 정착시키게 된 배경에는 교장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하였다. 초창기에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사업을 정착시키고, 창체를 활용해 음악 시수를 늘렸다. 음악 시수가 늘어나면서 음악교사도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무작정 교사와 학생을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교사와 학생을 이어주는 역할이었다.

- 교사: ○○ 애네들이 공연을 했어요. 2학년 때 공연을 했는데 시켜보니까 본성은 되

게 수줍거든요. 괜히 다른 애들한테 주름 잡는 거지 무대 올라가서는 너무 부끄러워하고 자신감 없고 그런데도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애네들이 이거 새로운 기분이야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학년 때는 뮤지컬 제대로 된 작품을 했죠. 공연 끝나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부둥켜안고 우는 거예요. 연극연출가 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도 옆에서 우시고. 교장선생님이 제 옆에 앉으셨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전에 다른 선생님들이 애네들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애들인데 왜 키워주느냐 하는 반응들이었어요. 아니면 다른 학교에 전학 보내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애네들을 홀트려놔야 하는데 모아 놓고 또 소중한 무대까지 올려주고 그래서 애들이 기고만장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였어요. 근데 교장선생님은 별은 별이고 무대에 올라간 경험도 하나의 수업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득을 하셨어요.

- 교감: 제가 왔을 때(4년 전)는 학급뮤지컬이 전체로 확산되어 있었고 당시에 교장선생님이나 저나 다 애네들이 부모의 지원을 받은 여건이 안 되니 아이들한테 흡인력 있는 경험을 쌓게 해주면 결국은 그 경험도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학년 말 되면 그 시간에 어찌할 줄 몰라 비디오텍스 틀어주고 하니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움직이고 그 속에서 뭔가 나오는 거니까 적극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돈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기간제 교사를 한시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교사 한 명을 더 쓰고, 창체 시간을 끌어 모아 전 학년이 할 수 있게 되었죠.
- 교사: 음악 수업 시수를 결과적으로 늘려주셨어요.
- 교감: 그러니까 창체 시간을 써서 음악시간에 인성교육으로 뮤지컬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음악교사가 3명이 되고 음악시간은 실질적으로 1시간이 늘어나게 된 거죠.

(3) 예술교육의 효과: 순해지는 아이들 그리고 착해지는 교사들

몇 년 간 뮤지컬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가장 큰 효과는 아이들이 순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순해진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었다.

- 교감: 이 학교 아이들은 서울 시내에서도 밑에서 꿈을 만한 가정환경을 가진 아이들

이에요. 이런 애들한테는 뮤지컬 경험 자체가 생전 처음 하는 걸 거예요. 그런 애들이 긴 시간 무대 위에 올라가면서 자신감도 얻고 TV에서나 보는 거를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스스로도 열의를 갖게 된 거죠. 제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취미 있고 좋아하는 애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아이들이 못 나오는 애들은 무대연출을 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모두 참여한다는 사실이 저는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이들이 순해졌다는 거예요. 각자 지나칠 정도로 개인적이고 싸우고 하는데 그 싸우는 과정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 토론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한 토론이 어디 있겠어요. 전날 주인공아이가 아이들하고 싸워서 무대에 안 올라가겠다고 하는 일도 다반사고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연출가 선생님도 많이 힘드신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 사안이 발생하는 빈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 교사: 이 사업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교사도 착해졌고 학생도 착해졌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모 선생님 같은 경우인데 그 반이 굉장히 잘 하는 반이에요. 근데 공연 전날 연출하는 애가 안 나오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너 그렇게 하려면 때려치워 하니까 애가 학교를 안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가 방과 후에 알바를 하는데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몰랐던 선생님이 아이한테 사과하고 아이를 데려왔는데,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 내가 아이들을 너무 몰랐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교사도 이제 기다려주고 아이들을 좀 알아야 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또 학생 중에는 자폐증 있는 학생이 있는데 아무튼 개별 연습해서 다 같이 무대에 올라가야 되니까 안무 담당하는 학생이 그 아이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화도 안 내면서. 그 아이가 애들을 가르치는 거를 뒤에서 보면서 그게 너무 예뻐서 그걸 찍었어요. 나중에 공연 때 무대에 자폐학생이 올라왔더라구요. 잘은 못하지만 동작은 맞춰요. 어색해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담임선생님들은 또 자기반 아이들하고 같이 몸을 부딪쳐 가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싸우면 말리고 얘기 들어주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선생님도 착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무실 분위기도 바뀌어서 놀이터처럼

럼 바뀌었어요. 애들이 놀러도 오구요. 그러니까 애들도 교무실이 편해진 거예요. 전에는 혼나러 가고 담임선생님이 부르면 혼나는가보다 그렇게 어려운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놀러와요. 어떻게 보면 담임선생님들은 힘들어 하기도 해요. 하도 놀러와서(웃음).

(4) 교과 간 협력 수업을 통한 업그레이드: 통합으로 반응하는 아이들

한동안 음악교과와 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뮤지컬 수업이 작년부터는 다른 과목들과 연계를 하여 진행하면서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사들의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이 관련된 교과의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스스로 통합적인 활동을 만들어내면서 자발성, 적극성, 문제해결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교감: 작년부터는 다른 과목과 통합으로 진행을 해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그쪽에 전문적인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도움을 청하면 최소한으로 도와주고 있었죠. 예를 들어 아이들이 대본 쓰는데 선생님 한 번 봐주세요. 아니면 미술시간에 제가 무대 만들었는데 괜찮은지 봐주세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매 시간 전문가를 투입할 수 없다면 통합교육과정으로 간다면 교사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학생들한테 접근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교과 간 협력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국어, 도덕, 사회, 음악 이렇게 협력하면서 대본 쓸 때 학교에서 자기 생활 속 문제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고, 또 국어시간에 연출가 선생님하고 교과서에서 배운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각색해서 우리학교 환경에 맞게끔 대본을 만들어요. 그리고 음악선생님과 뮤지컬 강사분이 완성해가는 이게 전체를 보면 교육과정의 하나의 큰 틀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끼리 모여 동아리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 교사: 근데 처음에는 학년부장선생님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학지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학년 말에 애들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으니까 좋고 아이들하고 이 문제로 생활지도를 하다보니까 보람이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공연을 하면서 감동 받으셨고, 또 학생들도 처음에는 안하면 안 돼요? 귀찮아요. 이러다가 두 번째는 후배들이 보면서 정말 재미있다. 우리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많이 생겼고 2012년부터는 학년 초부터 이게 학생들 사이에 화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할까. 그렇게 되면서 아이들은 다른 과목에서 배웠던 것들을 융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 주제가 진지해졌어요. 사회선생님이 이런 주제로 뮤지컬을 해보라고 적극적으로 수업을 한 게 아니어도 아이들이 저절로...

- 교감: 사회시간에 배운 걸 활용하는 거죠.
- 교사: 그렇죠. 아이들이 저절로 이제 뮤지컬 대본을 정말 잘 써야 겠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겠다. 그러다 보니 주로 도덕이나 사회였던 거 같아요. 도덕시간에 생명존중에 대한 수업을 했으면 대구지하철사건을 예로 들어서 토론을 한 다든가 마포대교 자살 많다는데 학생들이 직접 마포대교 가보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을 소재로 대본을 쓰기도 하고 해가 가면서 무대미술도 많이 발달했어요. 기가 막혀요.
- 연구자: 무대미술을 누가 가르쳐주나요?
- 교사: 애들이 미술시간에 배운 걸 써먹는 거예요. 미술선생님이 이걸 해봐라가 아니고 전에 미술시간에 만든 거를 포스터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홍보도 하고 진짜 실감나게 세트를 만들어요.
- 교감: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그게 있는 거잖아요. 미술시간에 그걸 배워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그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해결능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같고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환경에 노출되면서 잘 할 수 있는 건데 거칠지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 뭐를 안 봤을 때는 상상하고 나오니까. 그래서 미술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디어를 내서 디자인을 하라고 하면 생각지도 않은 애들이 그림을 그려낸대요. 국어의 경우도 글속에 자기의 어떤 진솔함을 담아내는 거는 여기 애들이 잘해요.

다음은 음악, 도덕, 국어, 사회 교과 교사들의 협의 과정을 통해 개발한 협력수업 차시별 수업지도안이다.⁵⁰⁾

□ 협력수업 차시별 수업지도안

월/주	차시	교과	학습활동 내용	
10/2	1~2	음악	학습 단원	뮤지컬코러스의 선곡과 표현
			교과 활동	뮤지컬코러스 선곡(강사협조) 및 제재곡 익히기
			협력 활동	(교과협력) 음원과 악곡특징을 제공하고 교과활동 연계방안 찾기
	3~4	도덕	학습 단원	문화의 다양성과 소수자 인권의 존중
			주요 활동	다문화 사회에서의 도덕적 의미와 해결 과제 생각하기
			협력 활동	(강사협력)예술강사의 수업참관을 통한 연구과제의 의미 공유 (교과협력) 사회교과와의 협력 토론방안 논의
	5~6	사회	학습 단원	인구변화와 인구문제
			주요 활동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다문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민자 아동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란을 통해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
			협력 활동	(강사협력) 토론 구성 설계와 활동 시 연출 발표 실습 (교과협력) 다문화 사회의 배경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과는 다문화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편견과 문화 갈등 문제에 대한 역할 분담 활동
	7~8	학급 자치	학습 단원	학급뮤지컬 공연계획서 만들기
			주요 활동	학급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다문화의 주제와 뮤지컬코러스 공연계획서 작성하기(악곡선곡, 주제, 스토리텔링, 역할분담, 준비할 사항 등)
			협력 활동	(강사협력) 공연준비에 필요한 활동내용과 역할분담 소개 (교과협력) 각 교과별로 연계학습활동을 사전수업을 통해 추진
10/3	9~10	사회 도덕	학습 단원	다문화 사회의 갈등유형과 해결방안 찾기
			주요 활동	다문화에 대한 긍정단어, 부정단어, 중간단어 등을 포스트잇에 적은 후 분류하게 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하고 해결방안 찾아보기
			협력 활동	(교과협력) 각 교과의 수업단원 관련 토론활동을 동시에 제시하고 토론주제에 따른 토론활동 진행
	11~12	국어	학습 단원	소설 각색을 통한 함께 하는 세상 만들기
			주요	대본의 주제를 정하게 하고 소설을 각색해서 다문화를 주제로 하는 새로운

50) 해당 내용은 A 중학교 ‘자유학기 사례’ 참조

월/주	차시	교과	학습활동 내용	
			활동	이야기를 희곡으로 만들기
			협력 활동	(강사협력) 희곡의 상황을 정지동작으로 표현하기 (교과협력) 사회, 도덕수업의 토론활동 참관, 음악과 협력을 통한 시 창작하기
	13~14	음악	학습 단원	뮤지컬코러스의 표현
			주요 활동	뮤지컬코러스의 선곡과 합창수업, 뮤지컬에서의 합창표현 방식 안내, 뮤지컬 코러스에서의 신체표현과 가창을 통한 표현력 키우기
			협력 활동	(강사협력) 뮤지컬 강사의 안무실습 및 합창의 움직임 실습 (교과협력) 국어교과의 가사를 음가와 발음에 맞게 수정하기

본 수업지도안은 뮤지컬을 매개로 하는 협력수업 수업지도안으로, 전 학년에 적용 가능하며 5인 1조의 편성으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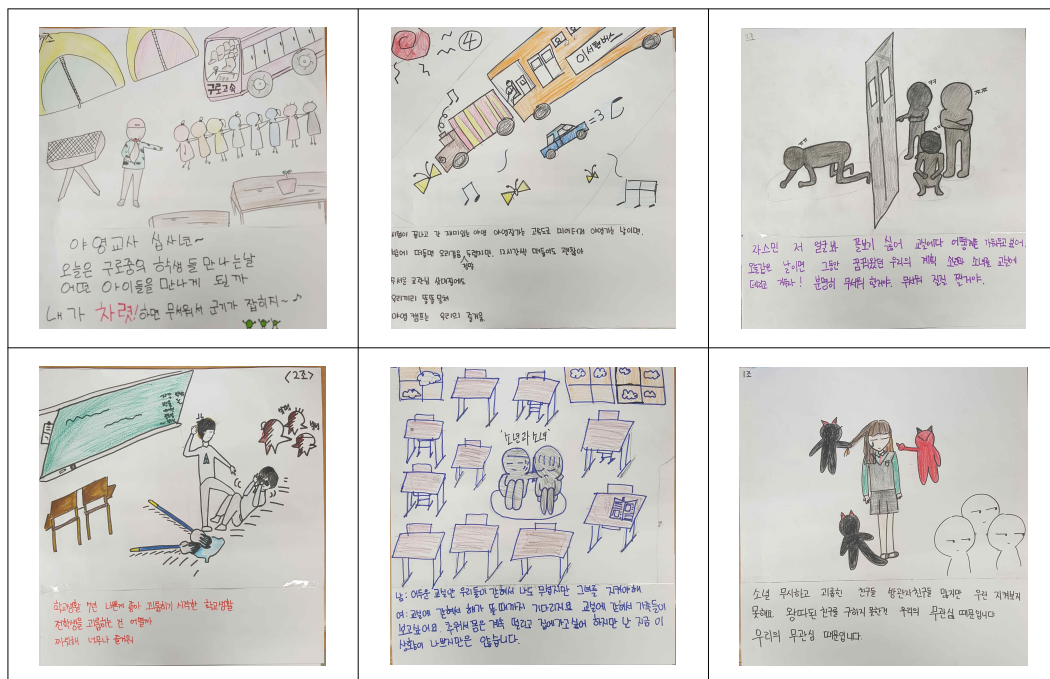
위의 수업지도안 중 마지막 음악 수업의 학생 활동 결과물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원곡 가사와 개사한 가사 비교(원곡: 뮤지컬 ‘빨래’ 중에서 - 비오는 날이면)

[원곡 가사]	[개사]
서울 살이 삼십년 버스 안내양으로 시작한 서울살이 구박 설움 떨치도 받았지만 내가 오라이! 하면 출 발하는 버스가 좋았지	야영교사 십사년 오늘은 00중의 학생들 만나는 날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까 내가 차렷! 하면 무서 워서 군기가 잡히지
남편이 죽고 시작한 마을버스 매일아침 순대 속처럼 미어터져 비오는 날이면 좁은 비탈길 오르내리는 일 두렵지만 열 두시간씩 운전대를 붙잡고 술 취한 손님의 삿대질에도 운전대를 꼭 붙들어 운전대는 내 밥줄 내 삶	시험이 끝나고 간 재미난 야영 야영장 가는 고속도로 미어터져 야영가는 날이면 밤에 떠들면 오리걸음 정말 무섭 지만 열 두시간씩 떠들어도 괜찮아 무서운 교관님 삿대질에도 우리끼리 톨톨 뭉쳐 야영캠프는 우리의 즐거움
서울 살이 이년 바쁜 게 좋아 서울에서 시작한 직장생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사는 기분은 홀가분했지만	학교생활 칠년 나쁜 게 제일 좋아 괴롭히기 시작한 학교생활 전학생을 괴롭히는 건 어떨까 짜릿해 너무나 즐거워
아파도 약 한 봉지 사주는 이 없고 무슨 일 생겨도 연락 할 사람 하나 없고	자스민 저 얼굴봐 꿀 보기 싫어 교실에다 어떻게든 가둬두고 싶어

<p>비오는 날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회사 가기 싫어 어금니 꼭 깨물고 버티자 속으로 외치자 다음 달 카드 값 장난 아냐 장난이 아니야</p> <p>서울 살이 오년 다섯 번째 공장 받은 월급보다 더 쌓인 밀린 월급</p> <p>비오는 날이면 가족생각에 온 맘이 저리고 비오는 날이면 온몸이 쭈서 와요 친구는 아파서 누워있고 병원 갈 돈 없어 빗물대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면 좋겠습니다</p> <p>나를 무시하고 속이는 사람들 피하는 사람들 많지만 나는 떠나지 못해요 돈을 벌어 꿈을 이루겠다는 턱없는 희망 때문입니다. 턱없는 희망 때문입니다.</p>	<p>오늘 같은 날이면 그동안 꿈꿔왔던 우리의 계획 소년과 소녀를 교실에 데리고 가두자 분명히 무서워 할 거야 무서워 질질 짰 거야</p> <p>어두운 교실 안 우리 둘이 간혀서 나도 무섭지만 그녀를 지켜야해</p> <p>교실에 간혀서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지요 교실에 간혀서 가족들 보고 싶어 추워서 몸은 계속 떨리고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난 지금 이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p> <p>소녀를 무시하고 괴롭힌 친구들 방관자 친구들 많지만 우린 지켜보지 못해요 왕따된 친구를 구하지 못한 건 우리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관심 때문입니다.</p>
--	---

□ 조별 가사와 장면 그림



□ 교과 협력수업으로 완성된 학급별 뮤지컬 코러스 공연

2015. 12.23(수) 14:00~, ○○구민회관		
반	주제	내용
1	여자 아닌 여자 같은 남자	축구시간.. 무슨 영문인지 민성이만 남자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어울리지 않고, 여자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평소 남자친구들에게 따돌려지는 민성이.. 과연 민성이과 여자친구들, 남자 친구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2	달빛 학생	음악수행평가. 외국에서 전학 온 탐탁지 않은 전학생 A를 받았다. 전학생의 모든 것이 맘에 안든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한 반이 될 수 있을까?
3	우리는 하나	서양권 나라에 한국인 학생 하늘이가 전학을 온다. 학교 아이들은 동양에 대한 편견으로 한국을 좋아하는 학생 ‘고르곤 졸리’를 무조건 무시하고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4	미스터리 스쿨	너무너무 수상한 학교, 미스터리 스쿨. 이 학교는 학교 교육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따돌림 당하는 학생이 순서대로 정해지게 된다. 이 잘못된 상황. 아이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5	디프론트 투모로우	말레이시아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낸 경동이는 말이 서툴러 반 친구들에게 무시 받고 어울리지 못한다. 매사에 소심하고 조용하던 경동이를 챙겨주는 건 같은 반 다혜 뿐... 반 포스터 대회를 계기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데...
6	모스트	모두가 신나고 들뜨는 야영 가는 날! 기분 좋고 즐거운 이 시간, 아이들 모두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시골에서 올라온 진영이와 6반 짱으로 군림하는 민우... 그리고 6반 아이들... 우리 정말 하나로 단합될 수 있는 거니?
7	그만들해 yo!	같은 날 한국의 한 중학교로 전학 온 미국인 ‘소나’와 인도인 ‘리신’. 아이들은 얼굴이 하얗고 예쁜 소나와 비교적 까만 피부를 가진 인도소녀 리신을 편견에 사로잡혀 차별하는데...

(5) 지역 연계: 교육청, 구청, 문화기관과 친해지기

A 중학교에서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있었다. 구청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며, 문화재단과는 교육을 분담하였다. 구내 문화회관을 싸게 대여할 수 있어 공연의 질도 높아지고 공연자나 청중 모두의 만족도도 높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었다.

- 교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전문적인 지원이잖아요.
- 교사: 네 육천만 원 지원 받았어요.
- 교감: 교육복지사업하고 구청에서 지원 받고 예술강사도 요청하고 심지어 대학생 자원봉사까지 받아서 투입해서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선생님이 마련해주셨어요.

저희가 공연장도 좋은 데로 잘해주잖아요. 아트벨리나 구민회관에서. 그런 형식도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하고 또 선배들 공연 보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었을 때는 정말 제대로 대학로에서 공연하는 거 같은 그런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 연구자: 그럼 공연장 대여는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건가요?
- 교사: 50% 싸게 해주고 동아리 같은 경우는 원래 전문공연장을 안 빌려주는데 2014년부터 개방을 했어요. 전문가들 도움 받으니까 공연의 질도 높아지고 아이들도 만족도가 높게 되더라구요.
- 연구자: 그런데 3학년 2학기 때만 연습해도 학급뮤지컬 운영이 가능해요?
- 교사: 안되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PD 교육인데 학급에 연출자들을 두 명씩 뽑아 5월부터 교육을 시켜요. PD들이 중요한 건 뮤지컬 대본을 어떻게 쓰고 안무가 방송 댄스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죠. 제가 하다가 강사 선생님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시스템이 좋아진 것이 문화재단에서 그런 학생들을 모아 뮤지컬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말에 다른 학교들까지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역할을 하니까 전문가가 달라붙어서 연출가로서의 수업을 받고 뮤지컬 공연에도 데리고 가구요.

(6) 예술교육의 진짜 효과: 느끼고 표현하기 앞으로 쪽~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감, 교사 모두 자존감, 문제해결력, 자발성, 적극성, 협동심 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진짜 효과는 현재 나타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 교사: 제가 음악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애들한테 표현의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는 거예요.
- 연구자: 표현의 기회라는 게 음악적 표현인가요?
- 교사: 일단 애들이 무대에 서 본 경험... 그게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수업시간보다 실제로 무대에서 500~600명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경험을 하면 아주 소심한 아이도 행복해하고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런 것들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 교감: 뮤지컬 관람 태도를 보고 사실 저는 감동 받았어요.

- 교사: 맞아요. 독특해요. 저는 처음에는 그걸 되게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추임새!
- 교감: 옆에서 선배들이 하고 있으니까 어머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산만하게 떠들고 내 친구를 내가 봐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추임새를 넣으면서 뮤지컬을 보더라구요.
- 교사: 처음 등장할 때 누구 예쁘다 소리 지르고 그런 것들이 저는 어른들의 정서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다보면 끌고 나가서 쫓아내고 싶은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는 아주 심각하게 봐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나이 때에 아이들의 관전문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거죠. 서로 응원하고 즐기기도 하고.
- 교감: 그것도 자기들끼리 학습되는 거 같아요. 애네들이 컸을 때는 그것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의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 교사: 공연 끝나고 애들 나올 때도 궁금하잖아요. 무대 뒤로 끝나고 나오면 애들끼리 서로 부둥켜안고 남녀 없이. 그러니까 담임선생님도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애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진짜 떨렸는데 이상한 기분이예요. 완전 재밌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대에 서기 전에는 정말 떨려서 하기 싫고 부담스럽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하고 나서는 쾌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음향을 하는 애는 무대에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애가 울면서 음악을 틀어요. 애들이 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느끼는 거죠. 자기들이 준비했던 과정을 떠올렸겠죠? 공연 끝나고 애가 막 흥분해서 저 친구들한테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달려가서 애들하고 부둥켜안고...

나. B 중학교 사례: 뮤지컬 페스티벌을 통한 지역 나눔⁵¹⁾

(1) 학년 전체 뮤지컬 활동 도입 배경

B 중학교는 경기도 학생의 40%가 교육복지 대상인 경제, 문화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뮤지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다음은 뮤지컬 활동을 시작하게 된 혁신부장의 설명이다.

51) 해당 내용은 B 중학교 혁신부장, 음악교사 2명과의 면담 조사(2016.9.9.)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 혁신부장: 저희 학교 교육과정 목표가 ‘자존과 배려’인데, 무기력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문화 소통도 많이 적고, 서울에 가서 영화 본 경험도 거의 없고 뮤지컬이나 클래식 음악 감상 경험은 당연히 없었구요. 그래서 2011년부터 교과 통합이나 프로젝트 체험학습 갈 때도 관람 예산을 일부러 편성해서 지원해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뮤지컬이 노래, 연기, 감상 다 할 수 있는 종합예술이니 도움이 될 거 같아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지역적인 특성이랑 학생들 특성이 맞았었던 거 같아요.

(2) 교사들의 자발성이 낳은 교육 혁신: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과 통합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올해로 6년째에 접어들며, 교육목표 중 하나를 ‘문화 예술적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정하고 음악, 미술교육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3학년에서 뮤지컬을 전교생이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⁵²⁾

하지만 뮤지컬 활동은 음악교과만의 활동이 아닌 다른 교과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교사들의 자발적인 교육과정 재구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교과 통합 운영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 가 교사: 저희 학교는 교가 협의가 잘 되는 분위기인게 되게 좋아요. 3년 전인가는 국어선생님하고 뮤지컬 연수까지 같이 받았어요. 2월에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때 어떤 교과랑 어떤 교과를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자유로우니까 ‘우리교과는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너무 자유롭고 무엇보다 교사가 자율성이 없으면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싫잖아요. 자율성이 있어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 뮤지컬 수업을 위한 통합 교육과정 운영에는 국어, 사회, 역사, 음악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뮤지컬 동아리)이 포함된다.

52) B 중학교 ‘2016학년도 교육과정 안내’ 참조

2016년 뮤지컬 수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⁵³⁾

□ 2016년 뮤지컬 수업 계획

관련 교과	세부 내용
사회,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시놉시스(개요) 만들기 · 뮤지컬의 내용과 소재를 선정하고 장면을 만들.
국어	· 시나리오(대본) 쓰기- 정해진 장면으로 시나리오 쓰기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입히기 및 연습, 리허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된 시나리오에 음악 선정(수업시간) - 뮤지컬 노래 배우기 및 연습 - 뮤지컬 리허설 · 뮤지컬 전반에 관한 작업을 진행
학급	· 선택한 주제와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포스터 제작
창체	· 4월 중순부터 약 10차시에 걸쳐 연극강사가 연기지도

□ 2016년 뮤지컬 시기별 수업 내용

시기	세부 내용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주제 선정 및 시놉시스 완성 · 음악 /뮤지컬의 전반적 이론 및 감상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대본 완성 · 음악 /선곡 및 개사 작업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학급 뮤지컬 대본 선정 및 끊임없는 수정 · 창체 /배우 캐스팅, 연기지도 · 음악 /학급 뮤지컬 역할 분담, 연습 · 미술 /포스터 제작
7월	· 학급 뮤지컬 완성 및 발표

53) B 중학교 '2016학년도 교육과정 안내' 중 '주제중심통합교육과정 운영계획' 참조

□ 2016년 뮤지컬 통합 교육과정의 실제

주제	문 화 예 술 주 간				
핵심 역량	관련 교과	성취기준	재구성 내용	지도 시기	시수
창의 력, 배려, 나눔	국어 평화 창체	예술에 대한 폭넓은 체험을 통해 다양한 예술 문화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사회, 역사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대본을 만들어 뮤지컬을 창의적으로 완성 및 발표할 수 있다.	2학기 (8월~ 12월)	약 70~80 차시
평가	- 시놉시스 제작, 대본 작성, 뮤지컬 발표 등의 과정을 평가한다.				
성찰	- 책임감, 공동체성, 협동심, 자존감, 배려심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동화 재구성하여 발표하기		뮤지컬 감상하며 줄거리, 등장인물, 넘버 분석하기		국어시간에 배운 시조를 바탕으로 이야기 만들어 보고, 이를 바탕으로 각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선곡해보기	
					
평화시간에 시놉시스 만들기		뮤지컬 연습하기		국어시간에 대본쓰기	

(3) 성장하는 아이들: 그 효과의 지속성

교사들은 뮤지컬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졸업한 후에도 나타난다고 했다.

- 가 교사: 애들이 성장을 해요. 여러 면으로. 많이 싸우기도 해요. 왜냐면 학급 뮤지컬이라 다 맞물려 있거든요. 한 사람이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다시는 안 하고 싶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느낀 성취감이나 뿌듯함들을 거기다 쓰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협동심, 책임감 그리고 창작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협조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좋은 추억, 친구들과하고 관계, ‘그래서 더 친해졌다’, ‘이런게 얼마나 중요하지 알았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저희가 보통 수업을 할 때 60~70% 애들이 따라오면 굉장히 성공적인 수업으로 보잖아요. 근데 후기를 받으면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해요.
- 나 교사: 작년 졸업생 애들이 올해 공연을 잔뜩 보러 왔어요. 후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했던 게 굉장히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했던 게 더 잘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에 자기들의 했던 성취감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역대급의 작품을 남겼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작년 저희반 주연했던 애도 이걸 통해서 자신감을 진짜 많이 얻었고 자존감 자체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4) 뮤지컬 페스티벌로 지역 연계 발판 만들기

이 학교에서는 뮤지컬 페스티벌을 학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학교를 알리면서 지역에 공헌하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하였다.

- 혁신부장: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뮤지컬을 할 때마다 지역 나눔을 했어요. 앵콜 공연 식으로 세 학급이. 이렇게 해서 지역에 알리려고. 교장선생님 차원에서는 이후의 예산 확보를 생각해서. 혁신지구 참여를 하니까 시장님이나 교육장님은 우리 학교 뮤지컬이 유명하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원

을 해주려고도 하셨어요.

다음은 뮤지컬 페스티벌 리플렛이다.

□ 뮤지컬 페스티벌 리플렛

소녀들! 뮤지컬로 사회를 보다. 마을공동체와 나누다.

12월 12일 발표한 학급뮤지컬 중 "3편" 선정, 12월 17일 14시 앵콜공연!

학급뮤지컬 지역나눔 MUSICAL FESTIVAL

뮤지컬페스티벌 12.17.(수) 14~16시

초대의 말씀

지역주민께, 안녕하십니까?
본교 3학년 학생들이 음악-사회-국어통합교육과정으로 진행한 학급 뮤지컬 앵콜공연을 지역주민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 선정부터 시나리오, 연기, 연출까지 학생들이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마을주민들과 관내교원, 학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참석하시어 격려와 칭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녀들! 뮤지컬로 사회를 보다. 마을공동체와 나누다.

12월 12일 발표한 학급뮤지컬 중 "3편" 선정, 12월 17일 14시 앵콜공연!

가짜사나이

성형 때문에

BLIND

마스크

TWO

군대폭력, 성형중독, 세월호, 학교폭력, 4.19혁명, 어머니, 반도체상체, 듣지마 범죄 등은 다양한 주제를 다룬 뮤지컬 중 3편은 앵콜공연 합니다.

(5) 교사의 열정으로 유지되는 것과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

이 학교에서는 3학년 전체 학급 뮤지컬 수업, 뮤지컬 동아리, 방과후학교 활동, 자유학기 활동을 모두 두 명의 음악교사가 맡고 있었다. 다른 교과에 비해 업무량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특별한 지원이나 배려를 받고 있지는 않았다. 사실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업무’로 인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음악실, 기자

재 등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예산에 대한 자율적인 집행 등 지원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얘기했다.

- 가 교사: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하면서도 좋아서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즐길 수 있는 거 같아요. 물론 막판에는 체력이 바닥까지 내려가지만 애들이 무대에서 하는 거 보면 보람을 느끼죠. 이 맛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 나 교사: 저희가 지금 2학기 들어서는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뮤지컬 동아리 애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음악과에서 업무를 빼주고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 가 교사: 저희가 이번에 음악과 예산이 다 깎여서... 피아노 조율비도 안 나올 정도예요. 음향이나 조명, 소품비도 필요한데 그런 예산은 혁신 예산 말고는 나올 곳이 없어요. 너무 기형적이에요.
- 나 교사: 학교에서 경직성 예산이 60~70%라 따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오래된 학교라서 여기 시설만 해도 체육관이 음향이 좋지 않아 마이크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 연구자: 그러면 공연할 때는 음향업체를 부르시는 건가요?
- 가 교사: 그게 제일 많이 들어요. 음향이나 조명이 150정도
- 나 교사: 그래서 문화예술을 기본적으로 기본운영비에 포함시키든지 교부를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 가 교사: 근데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거울이랑 음향이 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심지어 저희 음악실에 스피커도 없어요. 방음도 작년에 했어요.
- 나 교사: 그것도 필요한 거 같아요. 공립학교라서 교사들이 순환하잖아요. 내가 좋아서 산 악기지만 그 교사 나가면 악기는 그냥... 지금 창고에서 가야금 썩고 있잖아요. 장구도 엄청 많고. 그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악기들을 순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좀 더 열악한 학교에는 문화예술지원비를 알아서 쓰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도 굳이 바이올린이 안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악기도 지정하지 말고 학교에서 재량껏 구입할 수 있게끔 예산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다. C 중학교 사례: 합창으로 즐거운 학교⁵⁴⁾

(1) 합창 동아리 활동에서 전교생 활동으로 확대 배경

C 중학교는 경상남도에 전교생이 700여 명 정도 규모의 학교이다. 음악중점학교로 지정되어 오케스트라반이 운영되고 있다. 면담 대상 교사는 음악교사로 발령 나면서부터 학교에 합창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을 하였으며, 경력이 쌓인 후에는 음악교과와 연계하고 전교생의 활동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다음은 이러한 과정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다.

- 교사: 처음 발령 받아서는 합창부 위주로 했어요. 대회도 나가고, 그리고 학예회 발표 때문에 반 애들과 하게 됐는데 하다보니까 애들하고 소통도 되고 재미있고 교과수업에서 보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애들을 매일 보잖아요, 애들 커가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음악전공자로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되고, 그런데 한 7, 8년 차 되었을 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합창부 뿐만 아니라 학급에 다 적용되지 않을까 하고, 이젠 가창수업 요령도 생겼으니까,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빨리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수업시간에 적용을 했죠. 합창부에서 하듯이 좀 재미있게.

(2)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수 방법: 교사가 하면 학생도 따라 한다

면담 교사는 사범대학이나 일반 예술대학에서 가르치는 독일가곡, 이태리가곡 발성이 학교에서는 무용지물이었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연스러운 발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학생들과의 소통도 이룰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 연구자: 선생님 나름대로 개발하신 교수법은 어떤 건가요?
- 교사: 쉽게 얘기하면 그냥 피아노 치면서 ‘불러봐’ 이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고 따라하게. 예를 들어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아무 표정 없이 ‘사랑해’ 이렇게 안하잖아요. 상대방 눈빛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하잖아요.

54) 해당 내용은 C 중학교 음악교사와의 면담 조사(2016.9.12.)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호흡을 담아서. 그러니까 마음을 눈빛에 담아서 자세를 바로 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처럼 하게 하는 거죠. 즐거운 노래 같으면 활동도 하면서 바로 표현할 수 있게. 그걸 선생인 제가 직접 보이면 애들은 따라 해요. 남학생이던 여학생이던 그래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지만 결국은 대부분 따라하거든요. 복식호흡도 그들만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면 그러니까 복식호흡이 이런 거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한 게 복식호흡이야’ 하면 ‘아 이게 복식호흡이구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 연구자: 이런 방법을 교과수업에도 적용을 잘 하셨다는 말씀이죠?
- 교사: 네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선생인 내가 문제였던 거지요. 내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교수방법을 좀더 고민해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와 결과물을 도출해낸다면 학생들도 충분히 따라오지 않겠나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3) 합창 활동으로 학교 폭력은 줄이고 성적은 올린다?

면담 교사는 앞서 제시한 다른 학교에서와 같이 합창 활동의 효과 중 으뜸은 당연히 인성의 변화라고 하였다. 학교폭력이 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외에도 특이하게 합창반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했다.

- 교사: 제가 이 학교를 떠나게 되었을 때 합창 동아리만 활성화시키면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내합창페스티벌로 오픈을 해서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모든 걸 오픈했어요. 가요도 좋고 안무도 좋고. 단 노래가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조금 더 나가서 금연이나 학교폭력을 주제로 개사를 하자고 했죠. 대신 7월말이나 12월말에 개최하자고 했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을 다 아시겠지만 이 시기에는 정말 수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해서 점심시간마다 연습하고 담임선생님들 협조 받아서 방학하기 3일전인가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학교폭력, 금연도 생각하게 되고. 학교폭력은 진짜 많이 줄었어요.
- 연구자: 학교폭력이 줄었다는 어떤 수치나 이런 게 있나요?
- 교사: 페스티벌 시즌 되면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치면서

담배피면 사람 아니다. 학교폭력 얘기하면서 장난치고 때리고 이러면 안된다. 이미 애들이 개념이 확고하게 바뀌었어요. 물론 한 건도 안 생길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 교사: 제가 한번 그런 고민도 하고 있어서 3월에 실험을 해봤어요. 데이터는 안냈지만 성적이 얼마나 오를까. 저는 오픈해서 문제 있는 애들까지 다가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애네들이 반주자 빼고는 점수가 다 올랐어요. 아마 평균이 1~2점 올랐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5점이나 8점, 10점 이상씩 오른 거예요.
- 연구자: 그게 몇 개월 만에 나타난 결과인가요?
- 교사: 3개월? 분기별로 시험을 치니까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고요. 물론 소극적으로 하는 애는 있겠지만 그걸 신경 써서 하면 처음에는 정신 못 차리고 집중 못하다가 같이 표현하면서 적극적으로 바뀐다고 해야 하나 아주 액티브하게. 이랬던 애들이 이렇게 변하면서 수업시간에 변하더라고요. 실제로 점수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에서 오르는 거는 몇 점이지만 중, 하위권에서 오르는 거는 거의 15~20점이었어요. 엄청나요. 그거 때문에 고등학교 색깔이 바뀌었어요.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확신을 하게 된거죠.

(4) 교사도 즐겨워하는 교내합창페스티벌

교내합창페스티벌이 합창 활동을 확대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위해 학교의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또 이들이 페스티벌에 같이 참여하면서 학교 전체의 축제가 되었다.

- 교사: 인성부의 협조를 받고 있는데 학교폭력이나 이런 문제로 학교에서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하고 7월, 12월 담임선생님들 수업 힘들어 하는데 페스티벌이 도움이 되니까요. 교장, 교감선생님이 그 시기에 하면 되겠네 하시는 거죠. 학교를 위해서도, 교감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비디오 수업 그만해라 영화 그만 보여주고 수업해라 하시는데 잘 안 되죠.
- 연구자: 그럼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협조는 잘 되었나요?

- 교사: 교내합창페스티벌은 선생님들의 협조가 아주 잘된 경우예요. 반이 하나니까. 선생님들이 결정적일 때 한 번 나와서 안무도 같이 해요. 아주 좋아요. 옆 반 선생님이 한다고 하면 소문이 나서... 처음에는 이런 거 왜 하냐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오셔서 고맙다고 추억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5) 교사가 더 신나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면담 교사는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각종 연수 및 대학원 과정에서 계속 학습하고 있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면 학교교육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 사범대학 교육과정 개선, 재연수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지역축제에 학교를 참석시키지 않거나 문화시설을 개방하지 않아 아픔을 겪었던 사례를 얘기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지원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교사들이 옮겨 다니느라 학교 전통이나 특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면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력풀 공유를 제안하였다.

- 교사: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학에서 성악 발성, 대위법 배우지만 학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세상이 달라졌고 교과서도 달라졌는데 대학교하고 교수님들이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커리큘럼에 유연성이 없어요. 14년 전 내용을 지금도 가르치더라고요.
또 하나는 임용된 후에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40대 이상 가면 공부 안 해요. 남자들 경우에는 어떻게 교감 빨리 될까 어느 지역을 가야 할까 이게 우선이지요. 그래서 5년 단위 정도의 경력별 재교육 연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구자: 지금 저희가 예술 향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학생들 예술 향유 능력 향상시키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 교사: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자체는요 무대를 열어 주어야 해요. 예를 들어 ○○시에 합창 페스티벌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행사를 하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만 불러요. 근데 시립합창단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같이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예술회관도 어느 정도 수준 안 되면 안 빌려주려고 해요. 전문적인 단체만 할 수 있고 학생은 못하게 해요.

심사를 해서 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교회 빌리고 그러는 거예요.

- 연구자: 선생님이 6년 동안 계시긴 했지만 다른 학교 가시게 되면 이 학교의 합창 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지속시킬 방법이 있나요?
- 교사: 일단 인력풀이 있어야 해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학교마다 전화해요. ‘몇 년 남으셨어요?’, ‘혹시 내년에 합창 가르칠 수 있으세요?’, ‘아 이제 좀 쉬려고요.’ 일일이 전화해야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런 협의체라는 게 있어야 해요.

라. D 중학교 사례: 학생과 공감하는 미술 수업⁵⁵⁾

경기도 대도시에 소재한 D 중학교는 교사 44명, 학생 수 772명이며, 음악 교사 2명, 미술 교사 2명이 예술 교과를 담당하고 있다. 미술실과 음악실을 각각 1개씩 갖추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예술 교과 보다는 대학 입시 교과의 학습에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학생들은 방과 후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미술 수업은 정신적 여유를 찾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어 미술에 대한 방관적 내지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미술 교사는 이러한 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일깨우기 위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반영한 생활 소재를 선택하고, 학생들 간 배려와 협력의 마음을 키워주기 위하여 공동의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지역의 미술관을 방문하여 지역 사회의 미술을 즐길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1) 학생 생활과 접목한 미술 수업

D 중학교의 미술 교사는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선경험이 거의 없고 입시에 대한 부담감으로 미술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미술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고 했다.

영국에서는 데생스케치 수업을 필수로 꼭 하게 한데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그냥 스읍 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 풍경을 내가 잠깐이라도 스케치, 데생을 하는 것이 기억에 훨씬 더 오래남지요. 물론 우리나라 교육과정상에 사실 모두 다 들어가 있죠. 이런 데생이나 스케치

55) 해당 내용은 D 중학교 교무부장, 미술교사와의 면담 조사(2016.9.5.a)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같은 기본적인 능력을 좀 더 강화하다 보면 못 그리더라도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훨씬 좋은데요. 문제는 저희 아이들이 중학생이지만 거의 학원에 가서 밤 10시 12시에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여유가 있어야지 미술 시간에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그런 여유가 워낙 없다 보니까 미술 시간을 어려워해요. 학교에서는 최대한 미술 활동도 하고, 체육 활동도 하도록 배려해주려고 해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빠져있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입시 중심의 학습에만 관심이 쏠려있어 학원 수업에 집중한 나머지 학교에 오면 이미 지쳐 있는 학생들에게 미술 수업까지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미술에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위 대도시 학생들에게 맞는,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현대적 감각의 소재, 현대적 표현 방법 및 표현 재료 등을 활용하여 미술 수업을 진행하였다. 도자기, 한지공예 등 전통적인 예술분야의 활동도 하였으나 학생 수준에 적합하게 활동을 구성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다음은 미술교사가 현대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을 높인 수업에 대한 내용이다.

학생들은 자신한테 맞는 것을 했을 때는 학생들의 집중과 참여도가 높았어요. 저는 전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우개에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를 쓰고 마지막으로 본인을 나타내는 전각을 찍는 이런 수업을 했었는데,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자신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미술에서 가지고 있는 관심이 모두 틀린 거 같아요. 전각만들기를 매우 좋아하면서, ‘자기가 이제 여러 개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어머, 이것 너무 좋아요.’ 이렇게 수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가상현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증강현실 만들기를 했었어요. 핸드폰을 활용해서 그림 그릴 색깔을 칠해서 앱을 다운받아서 수업시간에 증강현실을 만들어 보았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미술 교사는 학생들의 관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현대 사회와 문화에서 접할 수 있는 미술 분야를 중심으로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시각디자인 분야의 인포그래픽, 의식주와 관련된 텍스타일디자인 및 패션디자인, 만화그리기, 스마트폰을 활용한 증강현실 만들기, 그라피티 등 요즘 학생들이 사회에서 접하는 미술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은 미술 교사가 학생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실제 뉴스, 인터넷 등에 많이 나와 있는 시각이미지들을 소재로 실시한 미술 수업 활동 사례에 대한 언급이다.

요즘에는 이것은 디자인, 이것은 회화, 이렇게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쪽으로 수업은 하지 않고 있어요. 미술에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요즘에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학생들에게 시각적 정보에 대한 이해와 표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다른 과목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과 같은 것들을 했었어요. 또, 저희가 학교 벽을 새로 칠했어요. 학교 벽 칠하기와 연계해서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그래피티 등, 그때그때 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미술을 학교의 실정이나 학생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했어요. 증강현실이 사회적 이슈로 나왔을 때에도, ‘포켓몬GO’를 찾아보니까 할 만한 게 있더라고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색칠해서, 그것을 핸드폰으로 증강현실을 볼 수 있게 해주니까 굉장히 신기해했었어요.

(2) 협력적 문제해결 과정의 공동 프로젝트 학습

D 중학교는 학생들이 입시 중심의 학습에 관심이 편중되어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을 요하는 미술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또한 학생들은 학업에 치중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관심과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협업을 하였던 경험이 부족하다.

미술 교사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학생들이 참여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의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성취감을 느꼈으며, 협업과 적극적 참여 태도가 향상되었고, 자료 조사 정리를 위한 사고 및 창의적 시각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다음은 미술 교사가 공동 협력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다.

학생들이 처음에 무언가를 생각해내는,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과목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무언가를 제대로 생각 해내야 될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학생들은 어려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똑같이 해도 되요?’ 그런 학생들은 쉽게 가는 것이고, 정말 새롭게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보고 싶은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기는 하지만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함께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포그래픽 수업도 개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별로 해요. 처음에는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조사해 오라고 했어

요, 자기가 조사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시각으로 표현하려니까 다른 자료들이 필요하잖아요. 학생들은 ‘핸드폰을 활용해서 팀에서 함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사를 해봐라’하고 핸드폰을 줬더니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보를 함께 토론하면서 직접 찾아보면 학생들은 재미있는 것들을 조사 해 와요.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언인가를 해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3) 지역의 미술관 방문을 통한 미술 체험의 확대

미술 교사는 학생들의 생활 속 미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생활 주변의 미술을 체험하는 활동을 수업에 반드시 포함시켰다. 지역 사회의 미술관에 방문하여 전시를 관람하고 학생 워크숍에 참여하도록 한다. 미술 교사는 학생들이 지역 미술관 방문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생활과 미술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미술에 대한 소양을 갖추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꾸리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다음은 미술 교사가 지역의 미술관 방문 활동의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다.

외부 활동을 하면 솔직히 굉장히 좋아요. 미술관에 데려가면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반면, 거기에 가도 어느 구석에 가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직접 보는 것이 좋죠. 우리가 책이나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 보다는 실제로 보는 것이 훨씬 좋아요. 요즘에는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서 책이나 인터넷을 보고 듣고 이런 것 보다는, 활동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을 훨씬 좋아해요. 과천 현대미술관에 학생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때 설치작품 중에서 공사장 같은 데에서 학생들이 안전모를 쓰고 체험하는 활동이 있었어요. 다른 미술 작품은 그냥 스쳐지나가듯이 보았지만, 그래도 체험을 하면서 보니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직접 해 본다는 것이 미술에 더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해서 교육적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마. E 중학교 사례: 예술교육에 대한 학교장의 철학과 전략적 지원⁵⁶⁾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E 중학교는 전체 학생 수 1,136여 명 중 25%인 250여명이 복지 대상 학생에 해당한다. 교사 수는 60명, 음악 교사 2명, 미술 교사 2명이 있다. 음악실 1개, 미술실 2개가 마련되어 있다. 도시에 위치해 있으나 예술 체험의 기회가 부족하며 기초 학력이 미흡한 편이다.

학교장과 미술 교사가 E 중학교에 부임해 왔을 당시 2015년도에 실시한 학생들의 실태 파악에 따르면 학생들은 미술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관심이 부족한 편이었다. 학교장과 미술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미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학생들의 생활과의 접목을 통해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미적 안목과 활용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교 구성원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학교장의 리더십, 복지 대상 학생들을 위한 기본 학력 및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예술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만들기 등 학교장의 예술교육에 대한 열정과 전략적 지원이 E 중학교에서 예술 향유를 위한 예술 교육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었다.

(1) 예술교육에 대한 학교장의 열정과 리더십

E 중학교의 미술 교사는 예술 향유를 위한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미술 교사의 신념과 열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미술 교사가 좋은 미술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미술 활동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학교장의 예술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었다고 역설하였다. 미술 교사는 학교장의 예술교육에 대한 열정과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교장 선생님의 학교 경영철학이나 마인드가 중요하죠. 이 학교로 전근 오기 전 학교는 대전 시내에서도 입시 1, 2등을 하는 ○○고등학교에 근무를 했는데 거기는 남학교이고, 또 제가 도자기 같은 수업을 하려면 교장선생님께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엄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면서...야간 자율 학습 분위기에 저해되지 않을까하고 우려가 많았어요. 모든 것을 입시에 맞추면 제가 그냥 눈치껏, 학교 실적 상 하기는 해야 하니까 하는 시늉만 하게 되죠. 여기서는 교장 선생님이 여러 가지 시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시고, 제가

56) 해당 내용은 E 중학교 교장, 미술교사와의 면담 조사(2016.9.6.)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하고 싶은 수업을 제한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는 미술로 너무 애들이 행복해 하고 있고, 선생님들까지도 행복해해요. 저도 행복해요. 학교 경영자 마인드가 폭 넓게 뒷받쳐줘야 선생님들이 이런 사업, 저런 사업 계획한 거 시도해 보려고 하죠. 한두 번 커트 당하고 하다 보면, 뭐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어렵죠.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축소해서 문서 상 하긴 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 하게 되는 거죠.

E 중학교 학교장의 전공 분야가 예술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장은 예술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인식하고 학생, 교사, 나아가 학부모들에게 예술 활동의 기회 제공을 위해 헌신하였다. 학교장은 자신의 예술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교육이 학생들의 행복한 삶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현재 예술교육 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 지원이 필요한 점 등 예술교육에 대한 깊은 성찰과 통찰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예술드림학교를 지원하여 전 학교 학생들이 기타, 우크렐레 등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E 중학교 학교장의 예술교육에 대한 열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여고에서 3년을 교감을 하다가 ○○중학교에 작년 9월 1일자로 교장으로 와서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학교를 내려와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시간은 많은데 뭔가 예술교육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교육청에 있었을 때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과 같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여고에서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을 약 한 3년 동안에 1억 4, 5천 정도를 따서 학교 아이들에게 입시에 쪼들어 있는 아이들에게 폐가 같은 생활관을 오케스트라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오면서 학력은 기본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만 예술교육의 다양한 이런 특기 적성교육을 중학교에 내려가면 좀 많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중학교에 자원해서 초빙으로 간 거예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중학교에서는 어느 학교든 다 비슷비슷하지 그다지 예산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주려면 예산이 꼭 필요하잖아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서는 예술교육은 없지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시도에 하나씩 해준다는 드림학교 사업을 받았어요. 저희 학교에 교감 선생님은 미술 전공이세요. 음악과 선생님들이 모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신데 같이 협의를 해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요청을 하고 백 프로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드림학교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학교장은 교사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사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성심을 다하고 있었다. 학교장은 교사들과 신뢰롭고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학교장이 교사에 대한 믿음과 인정에서 비롯되었다. E 중학교 미술 교사는 ‘학교장의 지원이 미술 수업에 대한 교사의 사기 진작 및 미술 수업에 대한 이상을 실천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다음은 학교장의 지원에 대해 미술 교사가 언급한 것이다.

교육과정은 일단 경영자 마인드가 폭 넓게 뒷받침해줘야 선생님들이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계획하고 시도해 볼 수 있어요. 학교장이 한두 번 커트하고 하다보면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어렵죠.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축소해서 하죠. 문서상 하긴 해야 하고, 적당히 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이런 학교장의 경영 철학이나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죠. 바로 오기 전 학교는 대전 시내에서도 입시 1, 2등하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남학교인데, 제가 도자기 같은 수업을 하려면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 공부하는데 엄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심난한 야간 자율 학습 분위기에 저해되지 않을까’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학업에만 맞추면, 제가 그냥 눈치껏 학교 실적 상 하기는 해야 하니까 하는 시늉만 한다든지. 이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니까 제가 하고 싶은 수업을 제한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미술을 학생들이 너무 행복해 하고 있고 선생님들까지도 무척 좋아해요.

학교장은 예술교육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타 교과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굴하여 학교 예술교육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다음은 학교장이 학교 전체 교사들의 예술드림학교 사업을 비롯해, 예술교육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격려하고 지원한 방법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철학과를 나오신 선생님. 윤리 선생님이신데, 글씨를 기가 막히게 쓰세요.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가을에 발표회를 한번 하려고 해요. 100m짜리 천을 하나 사달라고 하더군요. 거기다가 그 선생님이 천에 학생들과 글씨를 써서 작품을 만들어 보겠노라고...그런데 말이 100m지 100m면 엄청난 거잖아요. 전혀 전공이 아니신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예술 활동을 하세요. 또 과학 선생님은 대금을 기가 막히게 부셔요. 저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요. 선생님들을 보면 나름대로 재능이 있으세요. 그분들의 그러한 재능을 끌어내서 학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계획하고 있어요. 또 한분은 기술과 이신데, 이번에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웹을 이용한 예술교육 해보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이신데, 학생들하고 그런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활동이 학생들에게 정말 좋잖아요. 그 선생님이 1년 동안에 약 천 칠백만원에 개인이 따오셨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이백만원, 삼백만원, 사백만원,... 이런 사업들을 다섯 개를 따오신 거예요. 선생님들이 따온 예산과 학교 예산하고 합쳐서 텃밭을 50평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연친화적으로, 그 속에서 그림도 그려보고 이런 저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화분 같은 것도 가꾸어서 이번에는 학생들하고 백 개의 화분을 만들더라고요. 도서관에다가 장학생들과 함께 만들어보고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았어요. 저는 그런 것도 다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작품만이 예술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어요?

(2) 복지 대상 학생들을 위한 예술교육 지원

학교장은 특히 복지 대상 학생들이 예술 경험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노력하였다. 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초빙하여 외부 예술 강사비를 절약하였고, 예술 활동비를 지원하여 보다 많은 복지 대상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서 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E 중학교의 복지 대상 학생들이 많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저는 한국교육의 현실에서 입시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학력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동아리활동에 애들이 다달이 돈을 걷는데 이 어려운 애들한테 2학기만 해도 돈을 4번을 걷고 있었어요. 학생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웠어요. 이걸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특정한 것을 육성하는 부서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교과별로 구성해서 기본학력 충실에 힘썼어요. 이번에 국가평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어요. 2학기 때는 어떤 방향으로 했냐면 주어진 방과 후 시간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교과들, 예를 들면 일본어, 중국어를 일반교과를 지원하고, 특기적성분야를 전부 다 드림학교 예산으로 해서 무료로 예술 활동을 지원했어요. 평일 방과 후도 있고 토요방과후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다른 학교에 비해 예술 교육 여건이 굉장히 좋은 거죠.

(3) 예술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

학교장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직접 친목을 도모하는 평생교육 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학교와 학부모와의 연대감을 형성하고 학부모의 협력을 도모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학교와 학부모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학교 교육 활동에 학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또한 학교의 교사들, 인근 지역의 교사들, 학부모들에게 도자기, 천연 염색 등 미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을 통하여 지역과 학교 연계를 강화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미술교사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한 예술 활동 프로그램의 긍정적 성과에 대하여 학교장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기타반을 제가 직접 운영했어요. 미술 선생님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도자기반을 운영했어요. 평생교육 활동은 일단 학부모님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끌어내요. 작업하면서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이랑 가까이 작품 활동을 하다 보면 친밀감도 생기고 ‘선생님들이 이런 거 해주시는구나’하면서 고생하신다고 고마워해요. 그러다보면 학교 공간에서 소소한 자녀들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죠. 학모님들이 학교에 편하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들도 오시게 하려면 학교가 뭔가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학부모님들이 ‘가정통신문을 보지 못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네’하시며 안타까워 하셨어요. 도자기 작품이나 비누 만들기 등 만들어서 수익이 생기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작은 물건들까지 만들고, 무료로 학교 예산으로 배우게 해주니까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이러한 활동들이 학부모님들의 신뢰도, 이해도, 협조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죠. 또 담임 선생님과 자녀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요. 딱딱한 자리가 아니라서요...학교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학교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고, 학교 교육활동에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님들의 참여율이 높아져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들이 학교를 경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효과죠.

학교장은 E 중학교가 소재한 곳이 구도시이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학부모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고,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장은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모두 함께 학습 지도도 하고 예술 축제도 개최할 계획이다. 다음은 학교장의 지역 사회에서 E 중학교가 교육의 거점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 캠프와 향후 추진 계획 중에 있는 ‘에듀브릿지’ 사업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굉장히 저는 평생교육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개 학교에다가 초·중·고등학교에 평생교육 모두 안내를 했어요. 우리학교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지역주민들이 오실 수 있도록.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이런저런 교육활동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그리고 우리학교 학생이 아닌 인근의 초중고까지 연계해서 ‘에듀브릿지’라는 사업을 하거든요. 애당초에 중학교에 내려올 때 초빙 공모할 때 ‘에듀브릿지’를 제 1호로 걸고 내려왔어요.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오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진로 관련해서 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려다가 3학년 교실에 한명씩 다 투입해요. 애들이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크게 가슴에 안와 닿는데 언니들이 와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다르다고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애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어지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공문을 보내주고 나중에 자소서에 쓸 수 있는 스펙을 쌓아 주는 거죠. 학생들에게도 뭔가 있어야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축제 같은 것을 해서 저희가 공유하려고 해요. 우리 학교의 좋은 것은 다른 학교에 공유해주고 그 학교 좋은 것도 이쪽으로 배워오고요. 초중고를 다 같이하니까 선생님들은 사실은 어려움이 많으셨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정보도 공유 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도 하죠. 지난여름 방학 때 예술 캠프는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바. F 중학교 사례: ‘예술 향유’를 위한 미술교육과 교육 환경 개선⁵⁷⁾

F 중학교는 전체 학생 수 약 400여명, 교직원 수 40여명으로 구성된 읍 소재의 학교이다. 예술 교과 교원 수는 음악 교사 1명(순회교사 1명), 미술 교사 2명이다.

F 중학교는 읍에 소재하고 있어 문화시설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화실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학교장과 교사들의 노력으로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협력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 특히 학부모들이 미술을 통하여 자녀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학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면서 학부모와의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학교의 예술 향유를 위한 미술교육의 요인으로는 학교장의 예술교육에 대한 적극적 지원도 있으나 보다 중요한 요인은 미술 교사의 역량에 있다. 미술 교사의 미술교육에 대한

57) 해당 내용은 F 중학교 교장, 미술교사와의 면담 조사(2016.9.19.)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역량으로 발견되는 것은 첫째, ‘예술 향유’ 차원의 미술 수업 구현, 둘째, ‘예술 향유’를 위한 미술교육 환경 구축으로 볼 수 있다.

(1) ‘예술 향유’ 차원의 미술 수업 구현

미술 교사는 F 중학교에서 미술 수업의 핵심을 ‘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았다. F 중학교는 읍에 소재하고 있어서 다양한 문화 시설이나 예술 행사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다. 문화예술 소외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의 이전 경험이 없어 미술이나 음악에 관심이 없었고, 학생들이 미술에 흥미를 느끼고 참여를 촉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미술 교사는 학교 미술교육의 의미를 ‘학생들의 행복한 삶 추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생각한다. 학교 예술교육을 통하여 예술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고 향유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미술 교사는 미술교육은 미술에 단순히 흥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미술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여 미술에 대해 깊이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난해한 현대 미술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가가 실행한 표현 방법을 직접 실험해 보고 미술사 속에서 현대 작가와 작품의 의미를 해석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미술 교사는 자신의 미술교육에 대한 철학을 다음과 언급하였다.

운동장에다가 화판을 갖다놓고 천을 씌어놓고 던지는 거죠. 놀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색들이 던져지고 터트려지고 하면 물풍선 던지기 놀이지만 거기다가 색이 들어가고, 미술적으로 이왕이면 한 가지 색만 하지 말고 이제 다른 색으로도 해봐 하면서 아이들의 작업과정들이 마치 <폴록>이 어떤 드리핑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반복했잖아요. 결국 <폴록>이라는 사람이 미술사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작가로 남게 됐지만, 그런 원초적인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분출 한다는 것. 아이들에게 미술 수업시간에 이것을 직접 체험해 보는 그런 방식을 시도해봤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작가가 했던 표현 방법들을 직접 해보면서 재미를 느껴요. 그리고 미술사적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 ‘그냥 무조건 던지는 것과 <잭슨 폴락>의 그것은 뭔가 차이가 있고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주고 생각하게 한다던가...이런 수업도 나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뭔가 틀 속에 정해진 것을 주면 너무나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느껴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수업을 먼저 해서 아이들이 미술적인 놀이에 친해지게 하면서 점점 조금씩 진도를

맞추고, 조금 더 나아가면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도 비교해보게 해요. 문화사적인 측면까지도 아이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수업도 전개를 해보았어요. 즉 교사가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가 그만큼 깊어지는 것이지요.

(2) 학생의 삶과 연계한 ‘예술 향유’ 교육

미술 교사는 학생들의 삶 속에서 미술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하였다. 예를 들면 ‘야외 조형물 설치하기’, ‘칠보공예로 장신구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숯대 만들기’ 등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술을 소재로 하여 학교 공간이나 마을에 전시하도록 한다. 또한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표현 재료를 활용하고 다양한 표현 기법을 찾아보도록 하여 미술을 학생들의 삶 속에서 친근하게 느끼도록 한다. 다음은 미술 교사가 지역의 특색에 맞게 실시한 미술 활동 중, ‘테라코타 벽 장식’, ‘공원에 숯대 장식하기’, ‘한지 등 만들기’ 학생 작품이다.

□ 학생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창조하는 미술

(3) ‘예술 향유’를 위한 미술 교육 환경 구축

F 중학교 미술 교사가 예술 향유를 위한 미술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예산 지원과 미술교육 환경의 개선이었다. 미술 교사가 F 중학교에 처음 부임하였을 때 미술실 환경이 매우 낙후되어 있었고 미술 교과 예산은 학교 전체 예산이 30만원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기본적인 미술 활동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학교 예산에서 미술 교과를 위한 예산을 요청하였고, 이때 다른 교과 교사들과의 마찰이 있었으나 교사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미술 교과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다. 미술 교사는 미술 수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저는 ‘예술교육이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행복하게 하려면 일단은 입시교육의 현실에서 예술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 행복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부끄럽지만 학교에서 미술시간은 적당히 시간때우고 노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학생들에게 만연해 있어 수업진행이 너무 어려웠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여(1년에 30만원)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재료를 구입하기도 어려웠어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과 동료 교사분들께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수업의 결과물을 매년 학생작품전을 통해 꾸준히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작업을 했지요. 점차적으로 미술수업 예산을 늘려나가 2016년에는 미술과 수업관련 예산 425만원 정도(1인당 실습비 1만원 정도) 확보하게 되었어요.

다음은 미술 교사가 자신의 노력으로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여 미술실을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를 확충한 방법에 대한 언급이다.

현재 미술실1, 미술실2로 나누어 수업을 하고 있으며 미술실1은 주로 평면 조형실습에 미술실2는 입체조형 실습에 이용하며 그때 그때 융통성 있게 운영해요. 기본 실습 재료 및 기자재 외에 미술실 2에는 손물레, 전동물레 도판기 등 도자기 실습 기자재와 소조실습 등 입체조형 활동 전문 장비가 준비되어 있고, 미술1실에는 칠보 공예용 가마 및 전문 판화 실습용 프레스기와 각종 채색에 필요한 화구 및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종이와 서예, 한국화, 판화, 디자인에 필요한 물감과 붓, 이젤 등이 준비되어 있어요. 책꽂이에는 학생들이 참고할 미술 관련 서적 및 컷 도안 자료 책자가 충분히 비치되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어요. 대형 TV를 통해 전문 자료를 검색하여 학생들에게 항상 제공할 수 있고 실습 시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제공합니다. 농산어촌 ICT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아이패드로 인터넷을 활용한 조별 수업이나 다양한 실습도 가능해요. 미술 실습재료는 각 진열장에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고 각 종 붓과 채색도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학생들은 실습환경에 매우 만족하는 편이에요.

미술교육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의 미술 수업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가 높아졌고 학부모의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다음은 미술 교사가 미술 교육 환경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미술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꾸준히 확보하고 미술 실습실을 2실로 늘렸으며 실습 소모품도 꾸준히 준비하였더니, 적당히 시간만 때우려던 학생들이 미술 수업에 점차 흥미를 느끼고 참여하게 되고 수업 분위기도 점차 향상되었어요. 미술 시간에 학생들이 미술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찾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학부모들의 미술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 시사점

(1) 교원의 예술 향유에 대한 인식 및 예술교육에 대한 철학

예술 향유 교육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학교의 교장, 교감, 부장교사, 음악, 미술 교사 등 교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모두 학교 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예술 향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학교장이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학교의 경영자로서 학교 전체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에게 가능한 많은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 및 학부모들과도 소통하며, 예술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따라서 예술 향유 중심의 예술 교육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학교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예술 향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예술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장과 예술 교과 및 비예술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예술교육 연수나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예술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학교장과 교사가 예술 향유를 위한 예술교육 철학에 기초하여 학교 안과 밖에서 예술 교육을 지원할 때 학생들이 예술에 관심을 갖고 예술 활동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2)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계발 노력

예술 향유 교육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학교의 교사들은 교사가 된 이후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주로 자율 연수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 학습하는 교사도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범대학에서 배운 내용만으로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으며, 특히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 즉 예술 향유를 위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와 고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술교과 교사들이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경력별 직무연수나 학습공동체 지원을 제안하였다.

(3) 학생의 삶과 연계한 예술 수업으로 학생의 예술 향유 능력 제고

예술 향유 교육 우수 사례에서 나타난 성공 요인 중의 하나는 학생의 삶과 연계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술, 음악, 뮤지컬, 합창 등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생활과 연계된 소재들을 선택하고, 가까이에 있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예술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을 때 학생들의 자발성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거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학생의 예술 향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다양한 예술교육 발표의 장을 마련하여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동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삶과 연계한 우수 사례들을 개발, 발굴하여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현장에서 예술 향유를 위한 예술 수업을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인력 및 시설의 활용

예술 향유 교육 우수 사례에서 나타난 또 다른 성공 요인은 인력과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인력의 경우 교사들만으로는 부족하여 예술강사, 지역 문화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 인력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끌어 모아 학생들의 교육에 활용하였다. 시설의 경우에도 지역의 문화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교내 교육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다양한 예술 활동과 수납 등을 위하여 교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이러한 인력과 시설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학교 내외의 협조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전문적인 예술교육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술교육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를 정비할 예산이 없거나 학교 차원에서 의지가 없는 곳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예술교육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의 절대적 증액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인력과 예산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부 인력이나 공간 재정비를 통한 복합공간의 마련, 음악실, 미술실 등 특정 공간을 벗어난 교육 공간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지역 사회의 다양한

시설을 학교 예술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예산과 시설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술 교육 환경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 향유 경험과 교육의 질이 제고될 것이다.

(5)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예술 향유 교육 우수 사례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예술 향유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과정 재구성은 예술교과뿐만이 아니라 비예술교과 교사들과의 협업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과 방과후 활동, 자유학기 활동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학교 전체 교육과정 편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학교 전체 구성원의 협업을 통해 운영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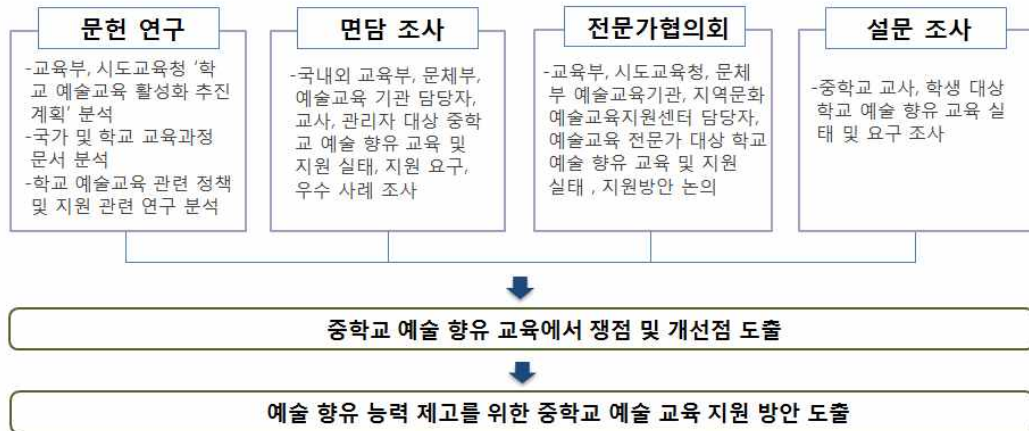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V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

1. 인적 지원
2. 물적 지원
3. 조직적 지원
4. 법적 지원
5. 기타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은 문헌 연구, 면담 조사, 전문가협의회,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된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실태 분석 결과 및 개선 방안을 토대로 제안하였다. 연구 방법 및 내용에 따른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V-1]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 도출 절차

위의 절차에 따라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을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전달 체계의 틀’⁵⁸⁾에 따라 지원 주체(학교, 교육청, 지자체, 국가)와 정책 수단(인적 지원, 물적 지원, 조직적 지원, 법적 지원, 기타)별로 정리하면 <표 IV-1>과 같다. <표 IV-1>에 제시된 내용을 정책 수단별로 정리하여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58)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전달 체계의 틀의 도출 과정에 대해서는 ‘II장 3절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의 구조’ 참조

<표 V-1>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전달 체계의 틀에 따른 지원 방안

지원 주체	지원 대상	인적 지원			물적 지원	조직적 지원		법적 지원	기타
학교	교사	• 예술교과 교사 연수	• 교사 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공동체 지원	• 교사 연수	• 학교 예술교과 수업에 위한 시설, 예산 지원				
	교사	• 경력교사 재교육 연수	• 교사 연수	• 교사 연수	• 교육청이 운영하는 예술 및 문화 관련 시설의 학교 활용 확대				
교육청	학교	• 관리자 대상 예술교과 연수	• 비예술교과 교사 연수	• 비예술교과 교사 연수	• 예술교육 기자재 공유 시스템 마련			• 학교 예술교육 관련 시설 활용 촉진 및 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규칙 제정	
	지자체								•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의 수립, 지원
지자체	교사				• 지자체 예술 관련 시설 활용	• 학교 예술교육지원 기부활동의 조직(은퇴교원, 교원)		• 학교 예술교육 관련 시설 활용 촉진 및 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의 수립, 지원
	학교				• 학교 예술교육 제정 지원				•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의 수립, 지원
국가	교육청	• 경력교사 대상 재교육 연수			• 중앙정부 수준의 문화 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평가	• 교육부와 문체부 연계에 관한 조직 신설		• '문화예술' 개념의 재정립을 위한 법령 개정	• 학교 예술교육지원사업 분야의 다양화
	교사	• 관리자 대상 예술교육 연수			• 학교 예술교육 사업 예산 지원 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 보장			• 학교와 문화기관 상호 교류를 위한 법적 지원	
국가	학교	• 교육 담당자에 대한 예술교육 연수교육부, 문체부, 교육청 및 지자체 예술교육 담당자, 문화시설 교육 담당자 등)			• 예술교육 전문 교사 및 강사 인력 활용 유망성 시스템 운영			• 학교와 문화기관 상호 교류를 위한 법적 지원	
	지자체							• 학교와 문화기관 상호 교류를 위한 법적 지원	

1. 인적 지원

가.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전문 예술교육 인력 지원

중학교 예술교육은 음악, 미술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활동, 자유학기 예술 활동 등에서 이루어진다. 학교에 배치된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음악, 미술 교사의 수는 대개 1~2명이다. 심지어 학생 수가 부족한 읍면 소재의 학교에는 예술 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순회 교사가 몇 개 학교를 순회하여 지도한다.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교원 증원이 필요한 실정인데, 예술 교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면담 조사에서 나타났다.⁵⁹⁾ 예술 교과 교육을 담당하는 음악, 미술 교사들은 동일 학생들과 수업하는 시간이 1주일에 1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음악, 미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1시간의 수업 시간 내에서도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1인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위한 지도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예술 교과 수업을 위하여 학교에서 요청하는 특정 예술 분야의 강사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면담조사, 2016.9.19.).

음악, 미술 교사들은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 예술 활동을 함께 지도하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교과 수업 시수를 충당하고 나면 소수의 예술 교과 교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에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후학교 활동에서는 예술 교과 교사와 예술강사의 협업으로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강사의 전문성과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세분화된 예술 분야의 강사 부족 등 예술강사 인력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강사비가 시간당 3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보통 교통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읍면 단위의 문화예술 소외 지역까지 예술강사가 선택 지원하기 어렵다(면담조사, 2016.9.6.).

학교 예술교육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줄 예술강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예술 강사의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예술강사로 선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연수나 워크숍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정규 교원뿐만 아니라 보조 예술 교사, 참여 예술가의 자격 제도가 상대적

59)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1 (2016.10.20. 검색)

으로 공고하다. 지방문화행정국(DRAC)에서 담당하고 있는 참여 예술가 심사는 자격 인정 기준으로서 해당 분야의 예술적 전문성을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예술 분야의 학사 및 고등교육 학위 소지자, 참여조형예술가교육센터(CFPI) 및 참여음악가교육센터(CFMI)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예술가 등을 교육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59).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참여 예술가 제도의 예술강사 전문성 및 재정적 지원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비교적 참여 예술가의 질을 잘 관리하여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전문가협의회, 2016.5.24.). 프랑스에서는 예술 강사의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참여조형예술가교육센터(CFPI) 및 참여음악가교육센터(CFMI) 등과 같은 특성화된 전문성 강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회성의 연수나 워크숍에 참여하여 이수 점수만으로 자격 및 전문성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예술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지속적으로 예술강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가며 예술강사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목표를 학교 예술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술강사의 역량 강화’의 방향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술가, 큐레이터, 예술강사 등 전문 예술교육 인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히 확보하여 인력풀을 구축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예술교육 인력 정보 공유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의 사이트를 통해 지역 내, 지역 간, 지역과 국가의 예술분야 인력들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 학교 예술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술가 개인뿐만 아니라 예술 기관 및 조직에 대한 정보를 상호 획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예술가, 예술 기관 및 조직, 교사 간 파트너십 구축을 원활하게 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예술 및 예술교육 분야 인력들의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전문 예술교육 인력 정보 공유 사이트’를 학교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술가의 예술 활동, 예술 교육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 예술교육 구성 시 프로그램 내용에 적합한 예술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등 학교급 및 예술 교과를 넘어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예술교육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일랜드에서는 ‘국가예술교육 온라인포털(Arts in Education Portal: <http://artsin>

Cubes and Compromise

Share

Spotlight

Artist(s)
Helen Barry

Teacher(s)
*Jane Kelly
(Muslin National School)
Aislinn O'Sullivan
(St. Mary's RSCS)
Aileen O'Connell
(Ardaraigh)*

Artforms Visual Arts

School Level Primary

School/ Participant Group *Muslin National School*

No. Participants all

Region Dublin City

Age/Class 1st Class / 6-7 year olds

Dates Sept-Oct 2014 / Aug 2015

Weblinks www.helenbarry.com

Key themes/lines of enquiry

Curriculum Strands

Cubes & Compromise – Visual artist Helen Barry engaged in a 12-week collaborative residency with art class children in the Muslin National School, Clonsillaugh. Together they explored components of Islamic art and design using a cross-curricular approach. The project was child-led; the children had much broader ambitions of what could be explored through art and creativity. One of the objectives for Helen was to develop her methodology and approach to collaborative practice within the context of Aistear: the Early Childhood Curriculum Framework. The residency was supported by The Arts Council's bursary awarded to Helen in 2013/14.

muslin (c) helen barry

Tell us the story of your project – What was it about? Who was involved? How did you begin?

Helen Barry, Artist:

My decision to approach the Muslin National School was instigated by key themes of my own studio work. I use many of the principals of geometry and symmetry found in Islamic art and architecture in the design and creation of my own work. A

Projects/ Partnerships: <http://artsineducation.ie/en/project/cubes-and-compromise/>

- 지역별 프로젝트 및 파트너십 소개
- 예술적 표현 형식별 프로젝트 및 파트너십 소개
- 학교 차원의 프로젝트 및 파트너십 소개
- 참여 예술가 그룹 및 프로젝트 담당 교사에 대한 정보 제공

View All

National Arts Provision
 Local Arts Provision
 Education and Training Provision

A monthly double feature screening in the Regency Room at Kino, First Floor in Bective, run by Kino's Front Garden in association with Artlink. Our next screening will be on Friday 26th September in Clonsillaugh on part of Connors'. Details TBC.

The studio space at Artlink is a resource for artists who use it as a base for activities that in the mean take place on the wider site of Port Darraige.

– Neil Potts

Mailing List

Did the latest news on Artlink by joining our mailing list.

Name *

E-mail *

The Potting Shed

During the Residency and exhibition project, artist Christine Mahony screened the area at Port Darraige and discovered over 40 plants growing on site. This spring summer she is reimagining Phase 2 of the project.

Directory: <http://artsineducation.ie/en/directory/>

National arts provision/ Local arts provision/ Education and Training provision

- 국가 차원의 예술기관 및 갤러리 위치 및 교육 내용, 연락처 정보
- 지역 차원의 예술기관 및 갤러리 정보
- 교사 교육 관련 정보 제공

<http://www.artlink.ie/>

- 참여 예술가의 예술 세계 및 예술교육 프로젝트 소개

Partnership Projects

Port Darraige

Kino Club

The Potting Shed

나.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제고 지원

전문가 협의회와 면담 조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예술 향유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연수가 교사의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전문가 협의회, 2016.10.18., 2016.10.27., 면담조사, 2016.9.6., 2016.9.19.).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다양한 경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교육과정을 학교의 실정이나 학생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고, 학생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한 교수 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학생 대상 설문 조사에서 ‘예술교과 수업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재미가 없어서’(63.3%)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학생들은 단순히 ‘재미가 없다’고 표현했지만 결국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수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범대학에서 교육 받은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수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연수 지원 또한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신규임용 교사 연수와 자격 연수인 1·2급 정교사 연수, 교장교감 연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학습연구년제, 학위취득 대학위탁과 같은 특별연수 등을 제외하고 퇴직 전까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연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조운정, 배정현, 2015: 34).

특히 자격 연수를 통해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는 교육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연수 지원이 없어 자발적으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의 역량은 경력이 많아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또는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직무연수를 경력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문가 협의회와 면담 조사에서는 단순히 예술교과 교사에 대한 연수뿐만이 아니라 비예술교과 교사와 교장, 교감 등의 학교 관리자, 예술교육 사업 담당자 등에게도 연수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전문가 협의회, 2016.10.18., 2016.10.27., 면담조사, 2016.9.6., 2016.9.19.). 왜냐하면 학교의 관리자나 비예술교과 교사들이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 예술교과 교사 혼자 힘으로 학교 예술교육을 이끌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수 사례로 소개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장이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학교장의 예술교육 철학이 비예술 교과 교사들의 인식까지도 바꾸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연수의 대상을 예술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교사, 학교 관리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연수의 대상이 학교 예술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교사들이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모든 일반 교사의 초기교육과 연수에는 예술교육의 측면이 강조된다. 특히 국립자원체(PNR)에서 교사 및 문화교육 관련 인력의 초기·연수를 담당하는데, 학년이 시작되는 매해 9월경 연중 연수 계획표를 발표하며, 연수 대상은 교사를 비롯한 교육부 인력, 참여예술가 초기 교육 수요자 및 현직 참여예술가, 문화 분야의 인력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연수는 예술교육 전문가로 교육을 받는다는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공통 관심사를 가진 인력들이 만나 실제 경험을 나눔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63).

또한 연수의 대상을 확대할 경우 연수의 내용 또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즉 예술교육의 내용 자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교육이 모든 교육 안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요구는 전문가 협의회, 면담 조사 모두에서 나왔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학교의 수업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교수법의 혁신과 이에 대한 자료의 보급이 필요한데 특히 예술교과 간의 통합, 예술교과와 비예술교과와의 통합, 비예술교과에서 예술의 활용과 관련된 실제적인 자료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교육에 대한 연수를 예술교육 내용에 대한 연수뿐만 아니라 교육에서 예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2013년 5월 교육부가 <예술문화교육과정을 위한 실무자 가이드>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학교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통합 교수법을 학생 개인의 경험과 결합시켜 풍요롭고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 ‘통합 교수법 적용으로 청소년 예술문화교육의 사회문화적, 지리적 불균형 해소’, ‘초중등 교육 간의 예술문화 분야 교수법의 점진성 및 지속성 보장’ 등이다. 활용 대상은 모든 예술문화교육 관계자(교직 및 교육학계, 학교장, 예술교육 및 문화 실행 관련 학술 관계 부서, 예술문화교육 코디네이터, 사찰 기관, 파트너 문화기관)이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 260).

한편 교사 연수의 내용, 방식, 과정 등의 문제로 연수가 전문성 신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교사학습공동체이다.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의 학습과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들의 공동체이다.

최근에는 교사뿐 아니라 교장, 장학사, 교육행정가, 대학 교수 등 다양한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학습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가 유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교사에서 교육전문가로 그 구성원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교사가 핵심 주체임에는 변함이 없다(서경혜, 2009: 244~245).

면담 조사에서도 학생들의 예술 향유가 잘 이루어지는 학교의 교사들은 이러한 교사들 간의 학습공동체가 자발적,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면담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예술 향유 지원은 예술교과 교사들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비예술교과 교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특히 교사학습공동체가 큰 힘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예술교과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와의 통합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해지고 더불어 수업의 질과 학생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이러한 학습공동체가 교사들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을 발전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자발적인 교사학습공동체의 학습 활동을 통한 교사 전문성 개발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학점화 하고 정규연수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조윤정, 배정현, 2015: 62).

따라서 교원의 예술교육 연수 지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할 수 있다. 하나는 예술교과 교사의 경력별 직무연수를 의무화 하는 것과 비예술교과 및 관리자 대상 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그리고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연수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2. 물적 지원

가.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

음악, 미술 등 예술교과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음악실, 미술실 등 예술 활동 관련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면담 조사에 따르면 교과별로 1년에 3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음악과 미술 교과의 경우 악기 구입 및 관리, 표현 재료 및 용구 구입, 기자재 구입 등 학습 교구에 대한 비용 지원도 충분한 상황은 아니다(면담조사, 2016.9.5.a, 2016.9.6., 2016.9.19.).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지원되

어야 할 부분은 음악실과 미술실과 같은 시설의 설치이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 재정적 부담이 큰 음악실 및 미술실을 구비하지 못한 학교가 많고, 음악실, 미술실을 구비하였다 해도 다른 음악, 미술 교사의 수업 시간과 중복될 경우 부득이하게 일반 교실에서 예술 활동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미 갖추어진 음악실과 미술실은 교육 활동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여 공간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음악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악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음향시설, 방음시설 등이 갖추어진 음악실을 구비해야 한다. 미술 수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표현 재료와 용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참고 작품 및 학생 결과물 작품의 보관 공간, 수도시설, 영상 및 그래픽 작업 시설 등 미술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을 지원하는 미술실을 구비하여야 한다. 학급 수, 학생 수에 따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음악과 미술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음악실, 미술실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확보하여 뮤지컬, 오케스트라, 연극 등 전시와 공연을 할 수 있는 복합 예술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학생들이 예술 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발표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면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공감, 성취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복합 예술 공간을 도심 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도심지에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하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예술 체험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학교 안 예술 활동과 학교 밖 예술 활동이 공존할 수 있는 센터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인력 및 예산 지원도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편성할 수 있어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교사 연수, 지역 주민 예술 체험 등 지역의 예술교육 정책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술교육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고가의 기자재를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기자재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고가의 악기나 미술 기자재 등을 지역의 학교에서 순환하여 함께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 부족의 이유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악기나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어 예술 활동을 보다 풍부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은 시설 및 기자재, 인력, 예산 등이 원활하게 제공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재료와 용구, 악기 구입비를 충당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예술교육을 위한 예산은 매우 미미하다. 정부에서 예술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예산을 확보하여 제공하거나 주어진 예산 안에서 예술교육을 위해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 정부 수준에서 학교 예술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 예술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 관련 지침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학교 지원 예산 중 예술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을 권장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학교 예술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을 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사업별로 교육적 효과 및 현장 예술교육의 개선과 지원 사항,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차기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면 예술 향유를 위한 학교 예술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조직적 지원

가.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연계 조직 구축

우리나라의 학교 예술교육 지원 체계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중앙 정부의 두 부처 간 협조 관계가 미미한 실정이다. 2003년에 문화부 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개선책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예술강사지원사업’에 그쳤을 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들 간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중복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이윤식, 윤종현, 2013: 72).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 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교육 정책이 시행되어야 투자한 예산만큼의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육부의 ‘인성체육예술과’에서 학교 예술교육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2명의 연구사

와 1명의 주무관이 담당하고⁶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과’에서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과 관련된 업무(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을 지원)를 4명의 인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학교 예술교육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⁶¹⁾.

우리나라의 학교 예술교육 지원 체계는 중앙의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과’의 정책은 시·도교육청 및 광역 지자체에 전달되고 교육지원청 및 기초지자체에서 구현되는 체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과’의 정책에는 문화예술 지원의 주요 기구로 2005년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으며, 정부와 민간, 그리고 예술현장 간의 긴밀한 연계와 참여를 도모하면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한승준, 박치성, 정창호, 2012: 274). 또한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발전을 담당하는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공공 문화재단은 광역단위에 11개, 기초단위에 23개가 있다(한승준, 박치성, 정창호, 2012: 274).

그러나 중앙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지역의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단 또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간 교류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면 더욱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학교 예술교육의 지원이 교육부 정책 내에서만 이루어져 지원에 한계가 있다. 중앙과 지방 정부 기관 간 체계적 협력 관계가 견고하게 구축된다면 지역의 예술분야와 학교가 연계되어 다양한 예술 체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 예술교육 정책들 간 연계와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학교 예술교육의 최전선에서 중앙의 이원화된 체제를 통합·관리하며 두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학교 정규 예술교과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전반에서 예술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3년도 교육부와 문화부의 통합적, 협력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예술위원회를 설치하였다(Long, 2015: 283). 예술위원회는 교육부와 문화부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중앙과 지역의 정책 집행을 총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예술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정부의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을 연계하여 중앙의 예술교육 정책을 지역의 예술교육 정책들과 긴밀하게 연결하되 지역의 자율성과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술위원회는 학교 예술교육 정책 성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책에 대한 공유하고, 예술가와 교사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학교

60) <http://www.moe.go.kr/web/100034/silkuk/detail.do?silkukSeq=12&deptCode=1342136> (2016.10.20. 검색)

61) https://www.mcst.go.kr/web/s_about/organ/main/deptView.jsp?pDeptCode=0721000000&pTeamCD=1371602 (2016.10.20. 검색)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며, 예술기관 및 조직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중앙 정부 차원의 예술 축제 및 경연 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의 학교 예술교육 정책과 전국의 예술 조직, 기관, 지자체, 교사와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추면서 도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한 학교 예술교육을 구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의 두 부처를 매개하여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학교 예술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집행 기구가 중앙에 설치될 필요가 있다.

나.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예술교육 기부 인력 조직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학교에서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해 다양한 예술 분야에 대한 인력 지원이 필요한데 지역에 따라 예술강사가 지원되지 않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방과후학교 활동, 자유학기 활동 중 일부만 지원되는 등 학교에 강사 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과의 연계 강화도 고려한 지역의 예술가나 퇴직 교사 중심의 기부 인력 조직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교육기부 운동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을 2011년 12월 교육기부센터로 지정하여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및 공공단체와의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교육기부 행복박람회 개최,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마크)제 실시,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시상, 교육기부 매칭서비스 제공 및 대학생 교육기부단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정재연, 2014: 322).

교육기부센터에서는 교육기부를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대학·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부의 유형을 프로그램 운영(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의 전문, 관심 분야에 대한 강의, 실습, 체험), 시설·기자재 기부(악기 실험기자재, 체육기구(공, 시설 등), 미술작품 등을 임대, 무상 제공), 활동 지원(체험프로그램, 동아리활동 등 필요한 차량, 보험, 시설, 멘토링, 인력 제공), 콘텐츠 제공(영화, 뮤지컬, 음악, 미술작품, 기관보유 정보 등을 전체 또는 클립 형태로 제공), 개인 재능(문·예·체 교육, 진로 등 멘토링, 강연, 자원봉사)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⁶²⁾

예술교육 기부와 관련해서는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을 지정해 이곳에서 1. 교육청

-단위학교-지역사회 체육·예술 협업 네트워크 추진, 2. 체육·예술 분야 대학생 동아리의 교육기부 추진, 3. 찾아가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렉처 콘서트 운영’, 4. 체육·예술 전문 개인 교육기부 자원 발굴 및 지원, 5. 체육·예술교육 현장 실태 조사, 분석 보고서 발간 및 성과 공유회 개최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⁶³⁾

그런데 ‘2016년 체육예술 교육기부 검점대학 개최 행사안내’를 보면 세 권역(강원·충청권-춘천교육대학교, 전라·제주권-목포대학교, 경상권-대경대학교)에서 총 12건의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12건 중 10건이 모델, 경호원, 연극연출가, 태권도 메달리스트, 뮤지컬 배우, 프로듀서, 유도 전 국가대표, 배우, 가수 등을 출연시킨 렉처콘서트 행사였으며, 2건이 현장네트워크 행사로,⁶⁴⁾ 렉처 콘서트 운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전국을 세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은 행정의 편리성은 있겠으나 실질적인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방대한 지역이다. 또한 체육과 예술은 한 대학의 한 명의 책임 교수가 다루기에는 벅찬 내용이다. 특히 교육기부 사업이 단순히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발굴, 기획, 평가하고, 기부자와 학교를 연계하며, 기부자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야 하는 업무를 포괄한다고 할 때 권역별 대학 지정 방식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방식이다.

한편 예술의 경우 기부 사업의 주체 및 주관처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등 다중적 구조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동일한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복지’가 여러 부서의 복지 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형태로 존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김수진, 2012: 107).

따라서 예술교육 기부 인력을 조직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사업의 전달 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 있다. 결국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때 현재 필요한 예술교육 기부 인력이 학교의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므로 교육부의 교육기부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교육기부센터의 현재 체제로는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예술교육 기부 인력을 조직하기 어렵다. 우선, 교육부의 개인 교육기부 매칭 사이트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별로 개인 교육기부 매칭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양 자의 데이터 저장 방식이 달라 개인

62) http://www.teachforkorea.go.kr/aboutus/neo_edunanum_info/ (2016.10.20. 검색)

63) <http://sur.ly/o/teachforkorea.go.kr/AA000014> (2016.10.19. 검색)

64) <http://sur.ly/o/teachforkorea.go.kr/AA000014> (2016.10.19. 검색)

교육기부자가 기부 활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 사이트에 각각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 개인 교육기부 사이트의 경우 대중화된 포털사이트의 단순 검색을 통한 접근성이 제한된 경우가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동국대 산학협력단, 2015: 59~60). 다음으로,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직이 부족하다.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활동, 자유학기 활동, 학교 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문적인 예술가를 필요로 한다. 현재 권역별 대학이 거점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교육기부 매칭 사이트의 시스템을 통합시켜야 하며, 교육기부센터 내 학교 예술교육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법적 지원

가.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법령 제정 및 개정

학교에서 예술 향유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실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문헌 연구, 면담 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었다.

구체적으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논의된 부분은 첫째, 학교와 지역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 문화 자원(시설 및 행사) 활용, 둘째, 문화예술 개념의 재정립, 셋째, 학교 예술강사(문화예술교육사)의 활용 방식 개선 등 세 가지이다.

각각의 사항과 관련된 지원 배경과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와 지역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 문화 자원 활용 지원

학교와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배경은 우선, 예술 향유를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예술에 대한 경험과 참여가 학교의 지원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갖추고 있는 시설과 기자재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학교가 지역의 문화 자원을 이용하려면 지역의 문화 자원을 개발하고 특성화시켜야 한다. 지역의 문화 자원으로서의 콘텐츠를 학교 예술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국 지역의 문화 자원을 교육을 통해 정착,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문화, 경제 등 전반적인 면에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결국 학교와 지역의 연계가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의 발전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까지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이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해 교육을 받게 될 때 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어 결국 예술 향유를 위한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문화 자원의 활용은 학생 자신이 낳고 자란 곳의 실생활과 관련된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자신의 지역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만족도와 자부심도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학생 자신의 삶의 일부로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전망에서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한편 학교와 지역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례와 요구에 대한 문헌 연구와 면담 조사, 전문가 협의회에서 나온 결론은 학교에서 지역의 문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중요성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2000년 교육부와 문화부가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술·문화교육’을 체결하면서 모든 예술기관에 대해 교육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했으며, 같은 해 ‘예술·문화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미술센터 등 약 6000여 개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예술교육을 활성화하려고 하였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공적 지원을 받는 모든 예술 관련 조직은 의무적으로 교육 활동에 일정 시간을 할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아울러 세금 감면 혜택을 받거나 여하한 형태로든 공적 지원을 받는 개별 예술가는 매년 최소 두 시간 교육 기부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학교와 지역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중요시 하는 것은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수업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학교에는 없는 시설과 교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하였다. 면담 조사 대상이었던 서울 소재 A 학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지원으로 학생들이 지역의 공연장에서 발표회를 개최하여 공연의 질과 성취감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에 경기도 소재 B 학교의 경우 음향이나 조명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학교 시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연장을 개방하지 않아 학교에서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경남 소재의 C 학교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결국 교사나 학교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학교와 지역의 연계가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는 학교와 지역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 시설 개방을 촉진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교육과정 총론에는 지역 자원 활용을 명시한 한 채 시·도 교육청 지침의 포함 사항에서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 시 지역 자원 활용에 대한 규정을 시·도 교육청 지침으로 구체화하여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 교육과정 실행 주체별로 체계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최돈민, 2013: 284).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지역 자원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교육부, 2015e: 38)

IV. 학교 교육과정 지원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사.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시설 이용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도 공공시설을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9조(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시설의 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와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학습 활동 및 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률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학교의 예술교육 담당자들이 지역사회의 각종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문화 시설의 교육적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교 예술교육 담당 교사 및 관계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법률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2) ‘문화예술’ 개념의 재정립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이라는 용어는 개개인의 문화예술 향유력 확대와 창의적 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사회·문화적 목표와 학교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전인적 인격형성을 하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연결하여 1990년대 우리사회의 문화적·교육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2003년 4월 문화관광부 내에 문화예술교육 TF 설치, 2004년 11월 문화관광부와 교육부 공동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발표,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 근거를 갖게 된 이후 현재까지 문화계, 예술계, 교육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⁶⁵⁾

하지만 문헌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예술’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뿐만 아니라 범위의 모호함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 협의회에서도 ‘문화예술’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 개념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선 ‘문화’와 ‘예술’이라는 용어에서 앞에 제시된 ‘문화’가 뒤의 ‘예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굳이 ‘예술’이 불필요한 의미가 되며, ‘예술’의 문화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보통 음식문화, 주거문화와 같이 예술문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몇 가지 장르로 한정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반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의 범위에

65) 구체적인 ‘문화예술’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는 II장 1절 가항 참조.

문화산업과 문화재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예술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어 두 법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또 「문화기본법」에서 정한 ‘문화’의 범위와도 충돌한다.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의 범위에서 자연물과 자연현상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과 범주의 문제는 학문 영역에서도 연구자들이 외국의 ‘예술교육’ 또는 ‘예술 문화교육’이라는 용어를 임의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오류를 일으키기도 한다.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arts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culture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kulturelle Bildung’이라는 용어는 주로 사용한다. 반면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각각 ‘d’éducation artistique et culturelle’, ‘芸術文化教育’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⁶⁶⁾ 결국 외국에서도 예술교육이나 문화교육을 따로 사용하거나 예술문화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범주를 일관성 있게 제시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개선

전문가 협의회 및 면담 조사 참석자들로부터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학교 예술교육 정책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가장 많이 제안한 내용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개선이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예술 향유 교육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술강사가 교과 수업을 맡을 경우 기능 중심의 수업이 되어 예술 향유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둘째, 첫째와 관련하여 예술강사에 의한 교과 수업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셋째, 마찬가지로 첫째와 관련하여 예술강사의 교과 수업 대체로 교사의 수업 시수가 줄어 예술 교과 교사가 역차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사와 강사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학교에서 예술강사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66) 한국예술교육진흥원(2013).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료집, 한국예술교육진흥원(2016). 2015 해외 문화 예술교육 관련기관 동향자료집의 용어(원어) 참조함. 아일랜드의 경우 ‘Arts in Education Charter(2012)’ <https://www.education.ie/en/Publications/Policy-Reports/Arts-In-Education-Charter.pdf> 참조 (2016.10.20. 검색)

경우가 많다. 강사의 출결만 체크하거나 수업 대체 인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교사와 강사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이다. 다섯째, 학교에서 강사의 인력을 제대로 배정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서 신청한 분야의 인력을 배정 받지 못하는 경우나 지방의 경우 강사 섭외 자체가 어려운 경우이다. 여섯째,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교육 성과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너무 많아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다. 사업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예술강사 과잉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서 예술강사에 대한 교육적 마인드와 전문성 제고 노력 보다는 복지에 비중을 두게 되어 학교와 학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

첫째, 강사 인력의 배정 문제는 강사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며 특히 지방의 경우 강사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다. 이런 경우 학교는 계획된 교육 내용을 강사의 전공에 따라 바꾸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학교와 학생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2000년 국악 강사풀을 시작으로 15년 이상 지속되어 온 성과 및 학교에 대한 요구 분석을 토대로 강사 공급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예술강사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술강사에 대한 학교의 인식 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 협의회와 면담 조사 참석자들은 조언한다. 강사와의 협업의 정도와 질에 따라 수업의 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술강사를 학교의 일원이기보다는 수업만 하고 가는 외부강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수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 교구, 시간표 구성 등 행정적 지원과 수업 내용에 대한 교사들과의 소통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강사를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교 관리자, 교사 대상의 연수와 홍보 프로그램의 보급, 시행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강사 양성 과정에서도 학교의 관리자 및 교사와 협업을 해야 하는 내용과 방식에 대한 교육 내용도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예술강사가 교과 수업을 대체하여 기능위주의 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과정 중심의 예술교육 운영이 힘들어지며, 예술교과 교사의 수업 시수가 줄어 교사가 역차별당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은 예술강사가 교과 수업을 맡으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들이다.

예술강사의 교과 지원에 대한 내용은 ‘2016년도 예술강사지원사업 지원 대상학교 선정

및 지원 계획(안)’에 명시되어 있다.

<표 V-4-1>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원 교과(교육과정 내 복수신청 가능)

분 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본 교과 ⁶⁷⁾	창체	토요 동아리	둘봄 동아리	기본 교과	창체	토요 동아리	자유 학기제	기본 교과	선택 교과	창체	토요 동아리
국 악	○	○	○	○	○	○	○	○	○	×	○	○
연 극	○	○	○	○	○	○	○	○	○	○	○	○
영 화	×	○	○	○	×	○	○	○	×	○	○	○
무 용	○	○	○	○	○	○	○	○	×	×	○	○
만화· 애니메이션	×	○	○	○	×	○	○	○	×	○	○	○
공 예	×	○	○	○	×	○	○	○	×	×	○	○
사 진	×	○	○	○	×	○	○	○	×	×	○	○
디 자 인	×	○	○	○	×	○	○	○	×	×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2015: 5

또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과 지원에 대한 내용은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3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 ① 진흥원 및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장은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교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그런데 위의 지원 계획과 「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서는 ‘교과수업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강사가 수업을 대신하는 경우, 교사의 참관 하에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교사와의 협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67) 기본교과에는 국악(음악), 연극(국어), 무용(체육, 즐거운 생활)이 해당된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예술강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예술가 또는 협력예술가(*artiste intervenant*, *artiste partenaire*)라고 부르는데, 전문 예술가나 예술 대학 졸업생, 참여조형예술가교육센터(CFPI), 참여음악가교육센터(CFMI)에서 교육을 받은 예술가들이 지방문화행정국(DRAC)이나 학교의 심사를 통해 참여하게 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참여예술가는 수업 자체를 담당한다든지 학생들을 책임지고 인솔하는 등 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교 교과 수업에 교사가 반드시 동참한다. 이것은 예술가와 교사의 관계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가면서 보완하는 관계이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는 관계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의 교육자적 자질에 대해서는 교사가 보완해 주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67; 이구슬, 2006: 59~60).

이와 같이 예술가와 교사 간의 파트너십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전문성에 대해 인정하고 서로 배우는 자세로 협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예술가가 단기간에 배운 교육학 지식으로 온전하게 교사를 대체하는 예술교육자가 될 수는 없다. 예술강사는 다양하고 세밀한 전공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사에게 부족한 역량을 보완해줄 수 있는 존재이며, 이러한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교사와 예술강사가 협업할 때 학생들이 받는 수업의 내용이 훨씬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강사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 교과 수업 지원에 관한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의 조항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5. 기타

가.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수립, 지원

우선, 문헌 연구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학교 예술교육 지원이 일자리 창출이나 학교 폭력 감소 등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학교 정규 교육과정보다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다는 내용이 주요하게 지적되었다. 따라서 학교 예술교육 자체를 지원하고 특히 학교 예술교육이 향유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원 내용으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면담 조사와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예술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예술교과 간 그리고 비예술교과와의 통합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학교교육을 통해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술교과 수업에서 표현의 기회가 증대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학교가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인식에서 학교 예술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예술을 일찍 접하게 하기 위한 곳으로 학교보다 나은 곳이 없으며, 학교에서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근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예술과 문화를 접하고, 심화 활동과 선택 활동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예술과 문화의 이론과 실기를 균형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술 문화 창조 과정의 주체가 되고 진정한 향유자가 되도록 돕고 있다(한지혜, 2006: 10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49).

또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의 예술교과 간 또는 비예술교과와의 통합 활동을 위해 문화프로젝트 수업(Classes à PAC: Projartistique et culturel)⁶⁸⁾, 발견의 여정(Itinéraires de découverte, IDD) 수업⁶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본격적인 통합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오늘날 중요하게 인식되는 8가지 주제 즉 지속가능한 개발, 사회와 과학, 안전과 건강, 정보와 커뮤니케이션과 시민성, 문화와 창의성, 경제, 고대 언어와 문화, 외국어 및 외국 문화, 지역 문화를 중심으로 연간 최소 2개 주제를 다뤄서 통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하며, 학생들의 표현, 참여,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⁷⁰⁾

마지막으로, 설문 조사와 면담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요구가 있었다.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발표나 행사 참가

68) 초, 중등학교 교사들이 정규 수업 시간과 교과과정의 범위 내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예술문화의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으로, 학교와 문화기관들과의 협력 안에서 예술가, 문화전문가, 문화 중재자 등이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수업 형식이다. 각 교사들이 담당 학급의 프로젝트 주체가 된다. 또한 이 수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교육부와 문화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78).

69) 중학교 중심 과정(2, 3학년)의 주당 2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는 수업으로, 교육 콘텐츠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해 학생들의 학업 자율성을 개발하고, 연구의 여러 분야를 탐색해 학생들의 취향과 능력의 개발에 기여하며, 다양한 주제의 수업과 학생 관찰, 평가를 통해 교사의 자발적 영역을 확장하는 데 수업의 목표가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3: 80).

70)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일반기사(2015.04.15.), “중학교 개혁: 높은 학업 성취를 위해 더 잘 배우기” http://edpolicy.chedi.re.kr/EpnicGlobal/Epnic/EpnicGlobal01Lst.php?Ac_Group=1&Ac_Code=D0060104 (2016.10.20. 검색)

등 직접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매우 높은 만족도와 함께 긍정적,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참여’를 통한 예술 활동이 예술 향유의 구성 요소인 지적, 실천적, 정의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예술 향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 개발이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단계에서 이러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교 예술교육을 좀 더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즉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계획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국가 교육과정 문서의 개정과 지역 및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VI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2. 정책 제언

1. 요약

□ 연구의 개관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학교 예술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중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위에서 제시한 필요성에 입각해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학생들의 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술교육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 방법에 따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헌 연구	면담 조사	설문 조사	전문가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분석 • 국가 및 학교 교육과정 문서 분석 • 학교 예술교육 정책 및 예술 향유 지원 관련 연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교육부, 문체부, 예술교육 기관 담당자, 교사, 학교 관리자 대상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실태와 지원 요구 및 우수 사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교사, 학생 대상 학교 예술 향유 교육 실태 및 지원 요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시도교육청, 문체부 예술교육기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예술교육 전문가 대상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및 지원 실태, 지원 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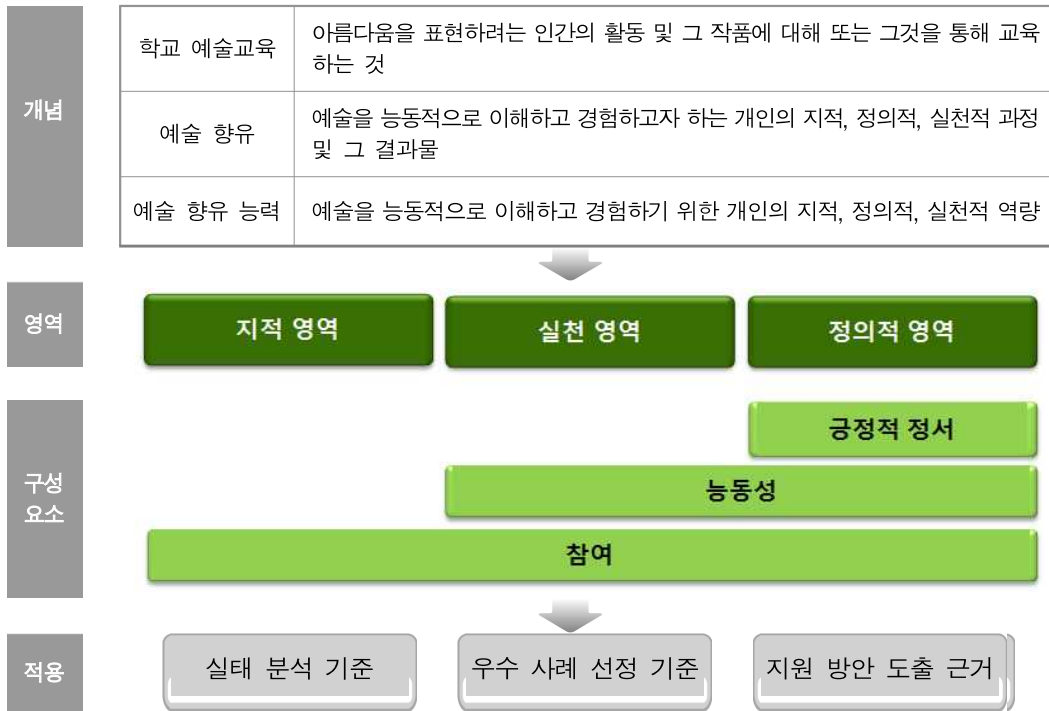
[그림 VI-1-1]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연구의 이론적 근거 및 적용

○ 예술 향유의 개념과 적용

중학교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제시를 위해 학교 예술교육, 예술 향유, 예술 향유 능력의 개념을 탐색하고 이를 예술 향유 교육 및 지원 실태 분석, 예술 향유 교육 우수 사례 분석,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도출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1-2] 예술 향유 관련 개념과 연구의 적용

○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전달 체계와 지원 방안 틀

본 연구에서는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의 체계적인 제시를 위해 정책 수단, 지원 주체,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책 전달 체계이면서 지원 방안 제시의 틀을 만들었으며, 이 틀을 토대로 지원 방안을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VI-1-3]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전달 체계와 지원 방안 틀

□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및 지원의 쟁점과 개선점, 지원 방안

중학교 예술 향유 교육 및 지원의 쟁점과 개선점 도출을 위해 문헌 연구, 면담 조사, 설문 조사, 전문가 협의회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중 예술 향유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표 VI-1-1>의 ‘연구 결과’). 연구 방법에 따른 연구 결과를 다시 정책 수단에 따라 분류하고 공통된 내용을 묶어 지원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정책 수단에 분류되지 않는 내용은 기타에 포함하였다. 연구 방법 및 결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1-1>의 ‘관련 방안’은 연구 결과와 연관되는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71) 전달 체계 및 지원 방안 틀에 따라 정리한 내용은 <표 IV-1> 참조

<표 VI-1-1> 연구 방법 및 결과에 따른 지원 방안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관련 방안	지원 방안	정책 수단
문헌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관 등 예술 교육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 형성 필요 중앙 정부와 지역의 협업을 통한 지역 예술교육 지원 필요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실제적인 법적 지원 필요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필요 	가, 다, 비 가, 다, 비 사 오	가. 전문 예술교육 인력 지원 나. 교원 예술교육 역량 제고 지원 다. 학교 예술교육 시설 지원	인적 물적
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예술교과, 비예술교과, 관리자 등)의 예술 교육 연수 및 교사학습공동체 지원 필요 지역의 인력 및 문화시설 활용을 위한 지원 필요 자유학기 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자원 지원 필요 예술 활동 및 표현의 기회 증대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필요 교과 연계 수업을 위한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필요 	나 가, 다, 비, 사 가, 다, 다, 비, 사 오 나, 오	라. 학교 예술교육 예산 지원 마. 교육부, 문체부 연계 조직 구축 바.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예술교육 기부 인력 조직	조직
전문가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의 예술교육 및 사업 운영의 자율성 증대 필요(예산 편성 및 집행 등) 학교 예술 향유 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 강화 방안 필요 지역별, 학교별 예술 향유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 필요 예술 강사(문화예술교육사) 지원사업의 개선 필요 ‘문화예술’ 용어의 어려움으로 재정립 필요 	라 가, 다, 비, 사 가, 나, 다, 라, 비 사 사	사.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법령 제정 및 개정	법
설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의 흥미와 특성을 반영한 수업 지원 필요 학생들의 학교 안팎 행사 관람 및 참여 기회 확대 필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예술교육 지원 사업 분야의 다양화 필요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강사, 시설, 예산의 지원 필요(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분담하는 구조) 	나, 다, 오 다, 사, 오 가, 라, 오 가, 다, 라, 비	오.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수립, 지원	기타

2. 정책 제언

앞에서 제시한 중학교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추진 전략과 과제로 구체화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⁷²⁾

<표 VI-2-1> 중학교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정책 수단	지원 방안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인적 지원	(1)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전문 예술 교육 인력 지원	(1)-1. 전문 예술교육 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예술교육 인력 대상 확대 및 자격 심사 과정 강화 • 국가 전문 예술교육 인력 정보 사이트 구축
	(2)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제고 지원	(2)-1.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교과 교사의 경력에 따른 정기적인 직무연수 도입 • 비예술교과 교사 및 관리자 대상 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 도입 • 교사학습공동체 학습 활동의 연수 이수 인정제 도입
물적 지원	(1)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	(1)-1. 시·도 교육청, 지자체 차원의 시설 및 기자재 지원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음악실, 미술실 설치 권장 조항 마련 • 지자체 및 기업과 연계한 학교 및 지역 예술교육 복합 공간 지원 • 예술교육 기자재 공유 시스템 구축
	(2)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2)-1. 시·도 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교육청 학교 지원 예산 중 학교 교수·학습 활동 예산 비중 확대 • 시·도 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교운영비 권장사업 목록으로 예술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 제시
		(2)-2. 중앙 정부 차원의 학교 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예산 집행의 타당성 제고 방안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분석을 통한 학교 예술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조직적 지원	(1)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교육부와 문체부 연계 조직 구축	(1)-1. 교육부, 문체부 연계를 위한 통합 기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와 문체부의 정책 자문 및 집행 기구로서의 (가칭)‘예술교육위원회’ 설립

72) 지원 방안에 제시한 인적 지원, 물적 지원, 조직적 지원, 법적 지원, 기타 중 기타 부분은 구체적인 정책 방안 제시를 위해 정책 제언에서는 제외하였다.

정책 수단	지원 방안	추진 전략	추진 과제
	(2)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예술교육 기부 인력 조직	(2)-1. 예술교육 기부 인력 조직 및 사이트 개편	• 교육부 개인 교육기부 매칭 사이트 및 교육기부 센터의 개편
법적 지원	(1)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법령 제정 및 개정	(1)-1. 학교와 지역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 문화 자원 활용 관련 법령의 제·개정	•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 총론의 지역 자원 활용 관 련 내용 개정 • 지자체 수준에서 ‘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제정
		(1)-2. ‘문화예술’ 개념의 재정립을 위한 법령의 개정	•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정의)의 개정
		(1)-3.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한 법령의 개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의 개정

가. 인적 지원

(1) 전문 예술교육 인력 지원

(가) 추진 배경

중학교 예술교육은 학교 공간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 예술교과 수업에서 기본적인 예술 소양을 기른다면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자유학기 등 학교 교육 활동의 다양한 영역을 통하여 예술 소양을 심화시키고 다양한 예술 영역을 체험할 수 있다. 이때 예술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요인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하는 전문 예술교육 인력이다. 특히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려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예술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이해 및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갖춘 전문 예술교육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예술강사지원사업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과 예술강사의 전공이 맞지 않아 학교에서 필요한 분야의 예술강사를 배치 받지 못하거나 예술강사를 전혀 배치 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문 예술교육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를 학교와 연계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인력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예술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의 예술 및 예술교육 기관

에 예술가, 예술교육 전문가, 예술 조직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학교와 연계하는 전문 예술교육 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게 되었다.

(나) 추진 전략 및 과제

추진 전략 (1)-1. 전문 예술교육 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 추진 과제**
- 전문 예술교육 인력 대상 확대 및 자격 심사 과정 강화
 - 국가 전문 예술교육 인력 정보 사이트 구축

전문 예술교육 인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공되는 인력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인력의 예술교육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인증제가 필요하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예술교육 전공 대학졸업생들의 진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인력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인력 정책이 아닌 교육 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 학교 예술교육에 제공되는 예술교육 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학교 교육과정(정규와 비정규 포함)을 운영하면서 요구되는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생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 분야를 경험함으로써 학교 예술교육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예술가들을 활용한다면 지방의 예술강사 미배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술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학교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량 및 프로그램이 학교교육에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검증하고 인정해주는 인증제를 별도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전문 예술교육 인력을 인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예술교육 기관을 인증하고 그 기관에서의 인증 과정을 거친 인력에 대해 인증하는 방법이다. 이때 현재와 같이 여러 대학에서 대행하도록 할 경우 일관성 있는 질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역별 거점 교육기관을 지정하되 교육 내용 및 평가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통한 인증 방법이다. 전문 예술교육 인력 인증을 위한 절차와 규정이 담긴 국가 공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지역이나 학교 단위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 VI-2-2> 전문 예술교육 인력 대상 확대 및 자격 심사 강화 방안

현행	개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제도: 문화예술교육사 • 자격 요건: 2급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을 제외한 9과목 270시간 또는 18학점을 이수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19과목 720시간 또는 48학점을 이수한 사람, 학교 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연수를 140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하여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제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예술교육 기관의 인증 및 국가 공인 프로그램을 통한 인증 • 자격 대상: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예술교육 기관의 인증 및 프로그램을 통한 인증을 받은 예술가, 예술단체, 문화 관련 종사자

또한 학교가 필요로 하는 예술교육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 예술교육 인력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문 예술교육 인력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술교육 인력 정보 사이트’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 사이트는 세 가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우선, 수요 인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을 수집하는 것이다. 셋째는 수요와 공급 인력을 연계하는 것이다.

수요 인력은 학교, 교육청 등에 요구 조사를 통해 필요 전공과 인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 계획을 세운다. 수요만큼의 공급 인력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인력 발굴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공급 인력의 상세 정보(예술가의 예술 및 예술교육 활동, 관심 있는 프로그램 등)를 사이트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학교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서로에게 적합한 인력을 연결해 주고, 해당 교육 활동이 끝난 후 평가하는 역할까지가 이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결국 이러한 일들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요구한다. 따라서 조직 지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조직이 예술교육계와 문화계를 아우르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적 지원’의 ‘추진 전략 (1)-1.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연계를 위한 통합 기구 설립’에서 제안한 기구의 한 부서로 조직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2)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제고 지원

(가) 제안 배경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제고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경험을 통한 예술 향유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수 방법에 대한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지속적이 자기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학교 예술교과 교사에게는 초등학교보다 심화된 전문성과 다양한 예술 영역에 대한 교육 역량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연수 지원이 부족하여 개인 차원의 노력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경력이 많아짐에 따라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역량들이 필요하지만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다.

또한 중학교에서는 각기 다른 교사가 교과 수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학교 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통합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예술교과 교사들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일반 교사 대상의 예술교육 연수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특히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도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학교 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들을 위한 연수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원을 예술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을 제안하였다.

(나) 추진 전략 및 과제

추진 전략 (2)-1.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추진 과제

- 예술교과 교사의 경력에 따른 정기적인 직무연수 도입
- 비예술교과 교사 및 관리자 대상 예술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 교사학습공동체 학습 활동의 연수 이수 인정제 도입

연수 지원을 위한 추진 과제는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국가 수준에서 직무연수를 경력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력이 많아진다고 해서 저절로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이 많아짐에 따라

요구되는 경력별 맞춤형 연수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가 2015년 11월 발표한 ‘2016년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에서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내실화를 위해 교직 경력별(생애별), 직무별에 따른 연수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의 경력별 연수에서는 교직핵심 역량 연수가 이루어지게 된다(교육부, 2015d: 13). 따라서 이러한 교육부의 교원 연수 추진 방향에 따라 교직핵심 역량 연수와 함께 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경력별 직무연수를 추가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 예술교육 연수를 비예술교과 교사와 교장, 교감 등의 학교 관리자, 예술교육 사업 담당자 등에게로 확대하여야 한다. 학교의 관리자나 비예술교과 교사들이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 예술교과 담당 교사 혼자의 힘으로 학교 예술교육을 이끌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2016년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에서는 교장·교감 대상의 직무연수 강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자율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정책, 환경변화,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교육부, 2015d: 11). 따라서 관리자 대상의 예술교육 직무연수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에 예술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할 때와는 다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학습공동체의 학습 활동을 연수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 연수의 내용, 방식, 과정 등의 문제로 연수가 전문성 신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면담 조사 참여 교사들도 학생들의 예술 향유 지원은 예술교과 교사들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비예술교과 교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교사학습공동체가 큰 힘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이러한 학습공동체가 교사들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사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모임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교사학습공동체 학습 활동을 정규 연수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연수의 대상을 확대할 경우 예술교육 연수의 내용 또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즉 예술교육의 내용 자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술교육이 모든 교육 안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예술교과 간의 통합, 예술교과와 비예술교과와의 통합, 비예술교과에서 예술의 활용과 같은 다양한 운영 사례와 자료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연수 대상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을 예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연수 대상별로 필요한 연수 내용에 ‘○’ 표시하였다.

<표 VI-2-3>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 예시

연수 내용	연수 대상		
	예술교과 교사	비예술교과 교사	관리자
학교 예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이해 및 실습	○		
예술 교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 및 실습	○		
예술 교과 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 및 실습	○		
예술교육의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	○
학교 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		○
학교 예술 향유 교육 국내외 우수 사례 이해	○		
교과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개발 실습	○	○	
예술을 활용한 교수법에 대한 이해 및 실습	○	○	
학교 예술교육 운영(예산 및 인적 자원 등) 실무 이해			○

나. 물적 지원

(1)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

(가) 제안 배경

예술을 체험하는 공간은 공간 자체가 갖는 예술성이 있어야 하며 예술 활동을 준비하는 공간은 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재 중학교에서 음악실과 미술실 또는 뮤지컬, 연극 등 예술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어렵고 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학교 안의 예술 활동 전용 공간으로서 예술 체험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음악실, 미술실 등 예술 활동 공간을 갖추도록 권장하고 시설을 재정비하여 예술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공동의 예술교육 공간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한시적으로 지원 받은 사업 운영으로 구입하게 된 악기와 기자재들이 사업이 끝나거나 담당 교사의 전근으로 폐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악기와 기자재를 관리하고 고가의 악기와 기자재를 구입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술교과 관련 기자재의 구입과 관리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순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추진 전략 및 과제

추진 전략 (1)-1. 시도 교육청, 지자체 차원의 시설 및 기자재 지원 방안 마련

추진 과제

- 시도 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음악실, 미술실 설치 권장 조항 마련
- 지자체 및 기업과 연계한 학교 및 지역 예술교육 복합 공간 지원
- 예술교육 기자재 공유 시스템 구축

시·도 교육청, 지자체 차원의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위한 추진 과제를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음악실, 미술실 설치 권장 조항을 마련하여 학교에서 음악실과 미술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학교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시·도 교육청의 학교회계예산편성 지침에 교구 및 시설 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음악실, 미술실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감성교육의 장으로서 예술 활동의 특성, 심미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납 공간(준비물 및 작품, 악기 보관 공간), 설비(상하수도 시설, 바닥, 방음시설 등) 등을 정비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음악실, 미술실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재정적 지원을 분담할 수 있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기업의 예술 및 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메세나협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학교 예술교육을 위해서 민간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메세나 협회와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학교 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음악실, 미술실은 단순히 음악, 미술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거나 지자체 및 기업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 시설을 활용

하여 다양한 예술 활동을 위한 복합 예술공간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예술교육은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밴드, 무용, 설치미술 등 다양화되고 있다. 학교의 유휴교실을 학생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공연, 전시 등 예술 활동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의 시설을 활용할 경우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하여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의 예술 향유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 예술교육 거점으로서 복합예술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 악기 및 미술 기자재 보관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악기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문화센터 또는 학생문화회관 등 청소년 문화예술 기관을 지정하여 ‘악기공유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미술기자재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마나 판화 제작을 위한 프레스기 등 고가의 미술 기자재를 학교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술교육 기자재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림 VI-2-1] 음악, 미술 활동 관련 시설 및 기자재 공유 시스템의 예

(2) 학교 예술교육 예산 지원 방식 개선

(가) 제안 배경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 것이 예산 지원이었다. 예산의 증액도 필요하지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학교가 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이라도 보장받는다면 지역과 학교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그 배경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의 지침 개정을 제안하였다.

(나) 추진 전략 및 과제

추진 전략 (2)-1. 시도 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

- 시도 교육청 학교 지원 예산 중 학교 교수학습 활동 예산 비중 확대

추진 과제 • 시도 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교운영비 권장사업 목록으로 예술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 제시

시·도 교육청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을 위한 추진 과제는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목적사업비대신 학교의 교수·학습 활동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면담 조사에 따르면 학교 예산 중 기본인건비, 시설유지비, 각종 시설비를 제외하면 실질적 교수·학습 활동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매우 제한적이며, 학교에서는 법령에 의해 반드시 편성해야 할 예산(도서비, 학습준비물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나면 예산 부족으로 악기나 미술 기자재 구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특히 시·도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내려 보내는 예산이 아직도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 대신 학교의 교수·학습 활동 예산을 보다 많이 편성해 내려준다면 학교 예술교육을 위한 활동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도 교육청이 학교운영비에 포함하여 예산을 지원하되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교운영비 권장사업 목록으로 예술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시하는 것이다. 즉 학교운영비를 학교 예술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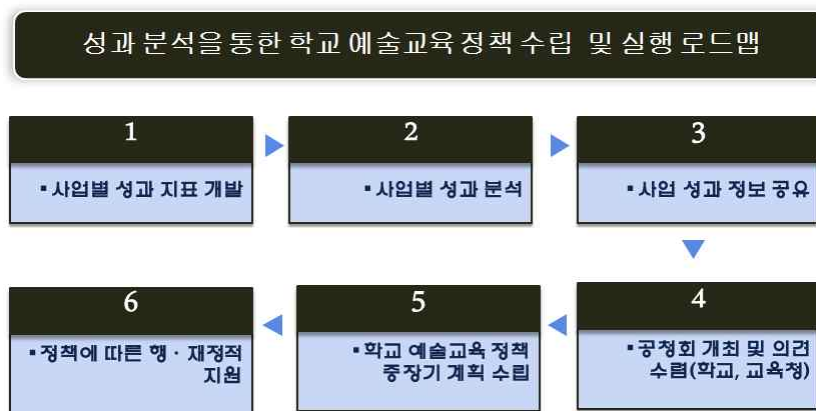
추진 전략 (2)-2. 중앙 정부 차원의 학교 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예산 집행의 타당성 제고 방안 정비

추진 과제 • 성과 분석을 통한 학교 예술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학교 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학생 오케스트라, 학생 뮤지컬, 학생 연극회, 연극동아리, 예술중점학교, 예술교육거점학교, 예술드림학교, 악기지원시범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사업별 교육 효과 및 현장 예술교육 개선 정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각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예술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 집행의 효율성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예술교육 정책 사업별 실태 및 인식 조사, 사업별 만족도 및 효과성 분석 등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교 예술교육 사업 지원 계획이 수립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별 개선점을 도출하여 차기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예술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2-2] 성과분석을 통한 학교 예술교육 정책 수립 및 실행 로드맵

다. 조직적 지원

(1)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계 조직 구축

(가) 제안 배경

우리나라 학교 예술교육 지원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기관들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헌 연구와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두 중앙 부처 간 협력적 파트너십이 부족하여 학교 예술교육 방향에 대한 공유와 정책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들이 지적되었다. 학교 예술교육 정책들 간 중복성을 방지하고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파트너십을 조성하고 이원화된 체제를 통합·관리하며, 중앙과 지역의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 추진 전략 및 과제

추진 전략 (1)-1.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연계를 위한 통합 기구 설립

추진 과제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자문 및 집행 기구인 (가칭)‘예술교육위원회’ 설립

중앙의 이원화된 체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독립 기관 설립을 위해 (가칭)‘예술교육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현재 교육부의 인성체육예술과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과에서 학교 예술교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예술교육 정책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체제로는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중앙의 두 부처를 긴밀하게 매개하며, 두 부처의 정책 자문과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을 제안하게 되었다.

(가칭)‘예술교육위원회’는 두 부처의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으며,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를 통해 학교 예술교육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이다. 구성원으로는 위원장 외에 교사, 예술가, 교육전문직, 문화기관 종사자 등 학교 예술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중앙의 정책을 지역과 공유하며, 지역의 학교, 지자체, 다양한 예술 및 예술교육 기관, 예술가 조직, 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 기업 등과 연계하여 국가의 예술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두 부처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예술교육 정책의 중심축으로서 학교 예술교육 정책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예술교육 기부 인력 조직

(가) 제안 배경

예술교육 기부 인력 조직은 현재 운영 중인 학교 예술강사 제도로는 학교에서 필요한 전공의 강사와 필요한 만큼의 강사를 공급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기부 인력 조직 시스템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 교육부가 2010년부터 교육기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 일환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을 2011년 12월 교육기부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다.

예술교육 기부와 관련해서는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을 지정해 이곳에서 교육청-단위학교-지역사회 네트워크 추진, 대학생 동아리의 교육기부 추진, 찾아가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렉처 콘서트 운영’, 개인 교육기부 자원 발굴 및 지원, 체육·예술교육 현장 실태 조사, 분석 보고서 발간 및 성과 공유회 개최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⁷³⁾

하지만 한 권역에 세 개 이상의 시·도를 포함하고 있고 체육과 예술을 한 대학의 한 명의 책임 교수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권역별로 대학을 거점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술교육 기부 인력을 조직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예술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청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나 관련 기관의 기부 조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전달 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예술교육 기부 인력 조직 및 사이트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나) 추진 전략 및 과제

추진 전략 (2)-1. 예술교육 기부 인력 조직 및 사이트 개편

추진 과제 • 교육부 개인 교육기부 매칭 사이트 및 교육기부센터의 개편

예술교육 기부 인력 조직을 위한 교육부 교육기부 사이트 및 센터의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교육기부 매칭 사이트의 시스템을 통합시켜야 한다. 현재는 교육부의 개인 교육기부 매칭 사이트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별로 개인 교육기부 매칭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양 자의 데이터 저장 방식이 달라 개인 교육기부자가 기부 활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 사이트에 각각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시·도

73) <http://sur.ly/o/teachforkorea.go.kr/AA000014> (2016.10.19. 검색)

교육청 개인 교육기부 사이트의 경우 대중화된 포털사이트의 단순 검색을 통한 접근성이 제한된 경우가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동국대 산학협력단, 2015: 59~60).

둘째, 교육기부센터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의 센터에는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직이 부족하다. 학교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학교 활동, 자유학기 활동, 학교 예술교육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적인 예술가를 필요로 한다. 현재 권역별 대학이 거점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며 전문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청의 교육기부 활동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청마다 이미 교육기부 매칭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기부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이를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고 교육청의 전담 조직은 교육기부센터의 전담 조직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이룰 수 있다. 구체적인 개편안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VI-2-4> 교육부 개인 교육기부 매칭 사이트 및 교육기부센터의 개편(안)

현행	개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개인 교육기부 매칭 사이트의 분리 운영 • 체육·예술 거점대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개인 교육기부 시스템 통합 운영 • 시·도 교육청 내 (가칭) '예술 나눔'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발굴, 기획, 평가 - 기부자와 학교 연계 - 기부자 발굴, 관리 • 교육지원센터 예술교육 기부 조직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인 예술교육 기부 인력 관리 - 시·도 교육청 내 (가칭) '예술 나눔'과 연계

라. 법적 지원

(1)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법령 제정 및 개정

(가) 제안 배경

학교 예술 향유 교육을 위한 법령 제·개정은 학교에서 예술 향유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역과의 연계가 학교 예술교육에서 많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의 지원이 많이 필요함에도 교사나 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해도 지자체의 허락을 받기가 어렵다. 둘째, 교사나 예술교육 기관 등 학교 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문화예술’ 개념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으며, 법적으로도 문화예술 개념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생겼다. 셋째, 예술강사의 교과 수업 투입으로 예술 향유가 아닌 기능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고 수업 시수에 따른 중학교 교사와의 마찰이 생기는 등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세 가지 필요성에서 학교와 지역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 문화 자원 활용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문화예술’ 개념의 재정립을 위한 법령의 개정, 학교 예술강사 사업의 개선을 위한 법령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나) 추진 전략 및 과제

① 추진 전략 및 과제 1

추진 전략	(1)-1. 학교와 지역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 문화 자원 활용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 총론의 지역 자원 활용 관련 내용 개정 • 지자체 수준에서의 ‘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교육청 수준에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연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

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국한된 것으로,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학교교육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확대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 VI-2-5> 교육과정 총론 지역사회 연계 지원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p>IV. 학교 교육과정 지원</p> <p>2. 교육청 수준의 지원</p> <p>사.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p>	<p>IV. 학교 교육과정 지원</p> <p>2. 교육청 수준의 지원</p> <p>사. 학교가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 등 학교의 교육 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p>

또한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시설 이용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도 공공시설을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문화시설 활용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지역사회의 교육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문화시설의 교육적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해 규정할 수 있으므로(「헌법」 제117조 제1항) 지역 수준의 정책은 대체로 조례 제·개정 형식으로 결정하게 된다(이종재 외, 2015: 69~70). 따라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가칭) ‘예술과 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의 문화 시설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I-2-6>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조례 제정 근거	조례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제39조 (국고 보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2조(공공시설의 이용) 	<p>○○○○ 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p> <p>제2조(정의)</p> <p>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p> <p>제4조(지자체 장의 책무)</p> <p>제5조(사업의 운영과 지원)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 진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 문화시설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활용 지원</p> <p>－ 이하 생략 -</p>

② 추진 전략 및 과제 2

추진 전략 (1)-2. ‘문화예술’ 개념의 재정립을 위한 법령의 개정

추진 과제 •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정의)의 개정

현행 법령에서 ‘문화예술’의 개념과 범위가 상충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의 ‘문화예술’의 정의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정의 그리고 「문화기본법」에서 ‘문화’의 정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데, 우선 문제의 원인인 ‘문화예술’ 개념 자체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과 ‘문화’를 분리하거나 ‘예술문화’라는 명칭으로 용어를 바꾸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해당 조항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법들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이라는 개념이 넓은 의미의 ‘문화’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고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의 ‘문화예술’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때 ‘문화예술’이라는 용어의 모호성과 층위가 다른 예술 범주들이 같은 층위에 제시되어 있는 점은 문제로 남아 있겠지만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만으로 법령들 간에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개정(안)이다.

<표 VI-2-7> ‘문화예술’ 개념 및 범위와 관련한 법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p>「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p>	<p>[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출판]</p>	<p><개정(안) 1> • ‘문화예술’을 ‘예술’과 ‘문화’로 분리하여 의미와 범위를 분명히 함 「예술진흥법」 또는 「문화진흥법」으로 표기함 예술과 문화의 범위를 구분하기 쉬우나 관련법들에 대한 전면 개정이 불가피함</p>
<p>「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p>	<p>[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어문, 출판] + [문화산업, 문화재]</p>	<p><개정(안) 2> • 현행 법의 명칭은 그대로 두되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내용을 일치시킴 예)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문화산업과 문화재를 말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p>
<p>「문화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p>	<p>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 해당 조항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으로 개정이 가능함.</p>

③ 추진 전략 및 과제 3

추진 전략 (1)-3.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한 법령의 개정

추진 과제 • 「문화예술진흥법」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의 개정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32조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에서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예술강사가 교과 수업을 대신하면서 기능위주의 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과정 중심의 예술교육 운영이 힘들어지며, 예술교과 교사의 수업시수가 줄어 교사가 역차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예술강사가 교과 수업에 투입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예술강사 교과 수업 투입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아 교사의 수업을 대신하는 예술강사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예술강사에게 문화예술교육과정을 거쳐 국가공인 자격을 부여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2012년 관련 내용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 제시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 ‘교수’ 활동을 핵심직무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역량 및 자격기준을 제시하여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임선영, 2013: 12).

하지만 결국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또한 이전의 예술강사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교육 전공 대학졸업생들의 진출 영역 확대라는 인력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전보다 더 공고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임선영, 2013: 11). 따라서 기존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수’ 활동 역량을 교육을 통해 제고시켰다고 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자격증을 부여했다고 해서 이것이 학교 교원의 교사자격증을, 교원의 교수 활동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수 활동 역량 강화가 학교교육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교수 과정에서 학생들과 원활한 소통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문화예술교육사가 학교의 모든 예술교육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육부의 교원임용 및 교원양성정책과 충돌하게 되고, 결국 학교의 예술교과 교사들과 마찰을 빚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예술강사와 교사가 서로 파트너십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과 서로 협업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 및 행사, 교과 외 교육 활동은 담당하되 교과 수업에서는 교사를 지원하는 역할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32조 제2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표 VI-2-8>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관련 법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교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교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u>교원의 교과 수업을 지원할 수 있다.</u>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3a).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
- 교육부(2013b). 문화예술교육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보도자료(2013.4.3).
- 교육부(2014).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 교육부(2015a).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
- 교육부(2015b).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3].
- 교육부(2015c). 학교예술·체육교육 강화 지원계획 마련. 보도자료(2015.11.18.).
- 교육부(2015d). 2016년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 교육부(2015e).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별책 1].
- 교육부(2016a).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
- 교육부(2016b).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운영 성과 발표. 보도자료(2016.1.20).
- 교육부(2016c). 2016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10). 손에 잡히는 창의적 체험활동.
- 교육과학기술부(2011). 학교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2010).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
- 권오정, 윤영길(2012). 무용 향유방식을 통해 본 신체활동에서의 향유하기 도입 가능성.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3(2), pp. 1-13.
- 김나라(2013). 한국형 진로탐색학년제 도입을 위한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의 주요 특징 분석. **The HRD REVIEW**, 16(2), pp. 6-21.
- 김세훈(2012). 관리합리성 관점에서 본 문화예술교육 과제. **문화예술교육연구**, 7(1), pp. 21-46.
- 김수진(2012). 재능기부를 통한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방안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현, 윤기웅, 홍윤미(2013).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수요와 공급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 515-537.
- 김왕준(2010). 홍콩, 싱가포르, 핀란드, 아일랜드의 교육개혁의 비전과 주요 정책. **초등**

- 교육연구**, 23(3), pp. 321-340.
- 김태형, 김미현(2015).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유형에 관한 연구: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3), pp. 1-28.
- 나일주, 성은모(2005). 온라인 학습공동체의 학습게시판에 나타난 메시지 유형별 정서적 표현의 내용요인 분석. **평생학습사회**, 1(1), pp. 49-70.
- 나애리(2015). 프랑스 문화예술 교육 법령과 정책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90, pp. 49-70.
- 노현정(2013). **맥시 그린의 이론과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동국대 산학협력단(2015). **공교육자원 확충을 위한 개인교부 활성화 방안**. 교육부.
- 류태건(2008). 지방의 사회자본과 공공문화기반: 7개 광역시 문화발전 비교.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자료집**, pp. 65-84.
- 문시연(2009). 프랑스문화정책 50년: 문화 민주화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0, pp. 283-306.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08). **2006 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10). **콘텐츠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지수 개발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3a).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
- 문화체육관광부(2013b).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 설명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3c).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창출 및 발전방안**.
- 문화체육관광부(2014a).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 문화체육관광부(2014b). **문화향수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2015). **2016년도 예술강사지원사업 지원대상학교 선정 및 지원 계획(안)**.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2008 문화정책백서**.
- 박균열, 주영효, 고영중(2014).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유학기제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3(1), pp. 25-51.
- 박기수(2006). 애니메이션 리터러시, 향유의 전략화. **한국학연구**, 25, pp. 45-70.
- 서경혜(2009).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교사학습공동체의 가능성과

- 한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pp. 243-276.
- 서인석(2015). 문화예술교육의 정책효용성 연구: 유소년기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5(4), pp. 337-366.
- 신승환, 연혜경(2007). **문화예술교육론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구보고 KACES-0711-R007.
- 신옥근(2013). 클로드 몰라르의 프랑스문화시스템도표를 통해 본 프랑스문화정책의 변천과 문화국토개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43, pp. 243-272.
- 연합뉴스(2015.6.25). **작년 초·중·고 학교폭력 심의건수 10% 증가**.
- 우관호, 이정민, 이철, 김정선(2013).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예술동아리 특화모델 개발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8(2), pp. 153-175.
- 원향미(2016). **한국과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적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정애, 김은영, 김형숙, 민경훈, 이주연, 황지연, 배현경(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한 예술·체육활동 발전 방향 및 추진 전략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0), pp. 899-918.
- 윤형한(2013). 아일랜드 전환학년(Transition Year) 프로그램의 성과와 시사점. **The HRD Review**, pp. 146-175.
- 이가야(2013).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정책과 문화 민주화. **프랑스어문교육**, 43, pp. 457-479.
- 이경연(2014).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음악교육 정책의 방향. **음악교육공학**, 18, pp. 81-104.
- 이구슬(2006). 우리의 문화예술교육정책 고찰 - 프랑스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9(2), pp. 45-74.
- 이원(2012). 프랑스의 문화활동 지원정책. **프랑스문화예술연구**, 41, pp. 329-354.
- 이윤식, 윤종현(2013). 학교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평가지표를 사용한 시스템모형 활용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3), pp. 65-91.
- 이재성(2004). 무한과 비평이론. **새한영어영문학**, 46(1), pp. 91-111.
- 이재호, 송건섭, 김도희(2010). 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 문화향유 측정과 문화정책추진 방향 연구. **지방정부연구**, 14(2), pp. 105-124.
- 이재창, 홍후조, 김미진, 임재일(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수업과 교육 활동의 특징

-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18(4), pp. 1135-1161.
- 이종수(2015). 문화기본권과 문화법제의 현황과 과제. **공법연구**, 43(4), pp. 1-20.
- 이종재, 이차영, 김용, 송경오(2015). **교육정책론**. 서울: 학지사.
- 이호영, 서우석(2011).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문화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5(1), pp. 91-118.
- 임선영(201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의미, 전망 그리고 과제. **2013 한국예술연구소 가을철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예술연구소.
- 임채홍, 홍성만, 박소연(2012). **문화예술교육 정책네트워크 분석**. 2012 하계 학술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pp. 1~46.
- 정문성(2012).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2012 문화예술교육포럼 자료집**.
- 정연희(2008a).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교육정책 비교 연구. **미술과 교육**, 9(2), pp. 141-165.
- 정연희(2008b). 문화예술교육학 정립의 필요성. **모드니 예술**, 1(1), pp. 145-155.
- 정연희(201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정당성 제고에 관한 소론.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35, pp. 317-346.
- 정재연(2014).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세무와회계저널**, 15(6), pp. 321-346.
- 정정길(1997). **정책학원론(개정판)**. 서울: 대명출판사.
- 조난심, 김성열, 박순경, 이광우, 이미숙, 정영근, 김진숙, 민용성, 이근호, 백경선, 이승미, 김정자, 이원희, 소경희, 강현석, 홍후조, 김재춘, 이용순, 전성은(2010).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시약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0-1.
- 조윤정, 배정현(2015). 교사학습공동체 기반 연수에 관한 질적 연구: 교과연수년 직무 연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2(2), pp. 33-65.
- 조현석(2007). **향유하기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희연(2011). 공교육으로서의 프랑스 예술문화교육 정책 고찰. **예술교육연구**, 9(2), 41-56.
- 최돈민(2013).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교육종합연구**, 11(4), pp. 269-291.

- 최은용(2014). 문화자본이 문화향유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기록학회**, 32, pp. 221-235.
- 통계청(2015). **2015 청소년 통계**. 보도자료(2015.4.28.).
- 하수연(2012). ‘미적체험’ 예술교육이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 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경영**, 2, pp. 57-84.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국가별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료집: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한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2015 해외 문화예술교육 관련기관 동향자료집: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승준, 박치성, 정창호(2012).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영국, 프랑스,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0(2), pp. 257-291.
- 한지혜(2006). 프랑스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그 시사점. **교육이론과 실천**, 16, pp. 83-106.
- 한혜정, 김영은, 이주연, 곽상훈, 김광하, 김기탁, 김용진, 박지만, 진동섭, 최동선, 한중희, 황유진(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중·고등학교)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5-28.
- 홍유진(2014). 해외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동향. **이웃나라 문화예술교육 힐끔! 워크숍 자료집**.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홍윤미, 이명우, 윤기웅(2015).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GRI연구논총**, 17(1), pp. 185-211.
- 황혜진(2010).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유라시아연구**, 7(4), pp. 537-555.
- A 중학교(2016). **2016 인성교육 우수학교 공모신청서**.
- B 중학교(2016). **2016학년도 교육과정 안내**.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2015). Framework for Junior Cycle.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 Department of Arts Heritage and the Gaeltacht(2012). Arts in Education Charter.
- 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2009). **Arts and cultural**

- education at school in Europe.** Brussels: Author.
- Government of Ireland(1999). Primary School Curriculum Introduction.
- Long, S. D. (2015). The arts in and out of school: Educational policy, provision and practice in Ireland today.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8(2), pp. 267-286.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2010). **Arts education and cultural education in Finland.** Retrieved January 23, 2016, from <http://www.minedu.fi/export/sites/default/OPM/Julkaisut/2010/liitteet/okmpol022010.pdf?lang=en>
- NCCA(2015a). Background paper and brief for the review of Junior Cycle Art, Craft, Design.
- NCCA(2015b), Background paper and brief for the review of Junior Cycle Music.

관련 자료 목록

[서지 자료 목록]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주제 업무보고. 보도 자료(2016.1.18).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2010).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방안.

[전문가 협의회 자료 목록]

- 전문가 협의회. (2016.2.18.).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회의록.
- 전문가 협의회. (2016.2.25.).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예술교육 지원 현황 파악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회의록.

- 전문가 협의회. (2016.3.4.).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회의록.
- 전문가 협의회. (2016.3.24.). 지역의 학교 예술교육 지원 현황 논의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회의록.
- 전문가 협의회. (2016.4.29.~5.13). 프랑스 학교 예술교육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온라인 자문 협의회 회의록.
- 전문가 협의회. (2016.10.18.). 정책 제언 작성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회의록.
- 전문가 협의회. (2016.10.27.). 정책 제언 검토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회의록.

[면담 조사 자료 목록]

- 면담 조사. (2016.5.18.). 아일랜드 교육부 정책 수립 및 시행 관련 논의를 위한 면담 조사 전사 자료.
- 면담 조사. (2016.5.19a). Nortre Dame Secondary School 학교 예술향유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면담 조사 전사 자료.
- 면담 조사. (2016.5.19b). St. Colmcille's Community School 학교 예술향유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면담 조사 전사 자료.
- 면담 조사. (2016.5.20a). National Concert Hall 학교 예술교육 지원 정책 현황 파악을 위한 면담 조사 전사 자료.
- 면담 조사. (2016.5.20b). National Gallery 학교 예술교육 지원 정책 현황 파악을 위한 면담 조사 전사 자료.
- 면담 조사. (2016.5.23.). 프랑스 DAAC의 학교 예술 향유 교육 지원 실태 및 우수 사례 조사를 위한 면담 조사 전사 자료.
- 면담 조사. (2016.5.24.). 프랑스 음악학교(E.N.M) 예술 향유 교육 실태 및 우수 사례 조사를 위한 면담 조사 전사 자료.
- 면담 조사. (2016.9.5.a). 예술 향유 우수 사례 조사를 위한 면담 조사 전사 자료.
- 면담 조사. (2016.9.5.b). 예술 향유 우수 사례 조사를 위한 면담 조사 전사 자료.
- 면담 조사. (2016.9.6.). 예술 향유 우수 사례 조사를 위한 면담 조사 전사 자료.
- 면담 조사. (2016.9.9.). 예술 향유 우수 사례 조사를 위한 면담 조사 전사 자료.
- 면담 조사. (2016.9.12.). 예술 향유 우수 사례 조사를 위한 면담 조사 전사 자료.
- 면담 조사. (2016.9.19.). 예술 향유 우수 사례 조사를 위한 면담 조사 전사 자료.

[인터넷 자료 목록]

- <http://www.law.go.kr> (2016. 1. 22. 검색)
- http://www.pcce.go.kr/01_info/01_intro.html (2016. 1. 22. 검색)
- http://www1.president.go.kr/policy/major_government_project.php (2016. 1. 22. 검색)
- <http://www1.president.go.kr/policy/keynote03.php> (2016. 1. 22. 검색)
- <http://www.arte.or.kr/infomation/notice/detail.do?nttNo=101601> (2016. 1. 22. 검색)
-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6. 5. 2. 검색)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27642&cid=40942&categoryId=32856> (2016. 5. 2. 검색)
- www.orchestrakids.or.kr (2016. 5. 10. 검색)
- <http://flower.arte.or.kr> (2016. 5. 10. 검색)
- <http://www.arte.or.kr/introduction/businessguide/educationsupport1.do> (2016. 5. 10. 검색)
- <http://www.education.ie/en/> (2016. 10. 6. 검색)
- <http://www.arte365.kr/?p=4089>. (2015. 10. 12. 검색)
- <http://www.arte365.kr/?p=4103>. (2015. 10. 12. 검색)
- <http://www.teachforkorea.go.kr> (2016. 10. 19. 검색)
- <http://sur.ly/o/teachforkorea.go.kr/AA000014> (2016. 10. 19. 검색)
- http://www.teachforkorea.go.kr/aboutus/neo_edun anum_info/ (2016. 10. 20. 검색)
- http://edpolicy.kedi.re.kr/EpnicGlobal/Epnic/EpnicGlobal01Lst.php?Ac_Group=1&Ac_Code=D0060104 (2016. 10. 20. 검색)
- <https://www.education.ie/en/Publications/Policy-Reports/Arts-In-Education-Charter.pdf> (2016. 10. 20. 검색)
- <http://eduscol.education.fr/pid34175-cid99287/ressources-d-accompagnement-enseignements-artistiques-aux-cycles-2-et-3.html#lien0> (2016. 10. 20. 검색)
- <http://eduscol.education.fr/pid34175-cid99287/ressources-d-accompagnement-enseignements-artistiques-aux-cycles-2-et-3.html#lien1> (2016. 10. 20. 검색)
- <http://www.artscouncil.ie/home/> (2016. 10. 20. 검색)
- <http://artsineducation.ie/en/project/cubes-and-compromise/> (2016. 10. 20. 검색)
- <http://artsineducation.ie/en/directory/> (2016. 10. 20. 검색)

<http://www.artlink.ie/> (2016. 10. 20. 검색)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1 (2016.10.20. 검색)

<http://www.moe.go.kr/web/100034/silkuk/detail.do?silkukSeq=12&deptCode=1342136>
(2016.10.20. 검색)

[https://www.mcst.go.kr/web/s_about/organ/main/deptView.jsp?pDeptCode=0721000000
&pTeamCD=1371602](https://www.mcst.go.kr/web/s_about/organ/main/deptView.jsp?pDeptCode=0721000000&pTeamCD=1371602) (2016.10.20. 검색)

ABSTRACT

Supportive Plans for Art Education in Middle School for Higher Abilities of Art Enjoyment

Lee, Kyung Eon

Kim, Jeonghyo

Kim, Y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supportive plans for art education to increase middle school students' abilities to enjoy art. For that purpose, the investigator employed literature study, interview, survey, and expert conference as methodologies.

The content of the study was organized in five major parts: they include theoretical backgrounds, art education policies in school for the enjoyment of art home and abroad, actual state and outstanding cases of art enjoyment education in middle schools, supportive plans for art education in middle school to increase the students' abilities to enjoy art, and summary and policy proposals. The findings were sorted out as follows:

First, the part of "theoretical backgrounds" made an inquiry into the concepts of art education in school, art enjoyment, and abilities of art enjoyment and used them as the grounds to analyze the actual education and support for art enjoyment and remarkable cases of art enjoyment education and propose supportive plans to increase the abilities of art enjoyment. In addition, it suggested a structure for supportive policies to increase the abilities of art enjoyment and used it as a framework to sort the supportive plans out.

Second, "art education policies in school for the enjoyment of art home and abroad" analyzed the government's cultural policies and art education policies in school from the Liberation to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identified the concerned issues. It then

analyzed the flows and characteristics of art education policies in school in France and Ireland and identified their implications.

Third, "actual state and outstanding cases of art enjoyment education in middle schools" surveyed the students and teachers for their perceptions and needs regarding the actual state of art enjoyment education in middle school and proposed their implications. Based on interviews with music or art teachers, head teachers of school affairs, vice principals, and principals from six middle schools, it introduced outstanding cases of art enjoyment education in middle school and proposed their implications.

Fourth, "supportive plans for art education in middle school to increase the students' abilities to enjoy art" proposed supportive plans for art education in middle school based on the implications above under the categories of human support, physical support, organized support, legal support, and other supports.

Finally, "summary and policy proposals" summarized the findings according to the research content and methods and proposed policy plans for human, physical, organized, legal, and other supports. Specifically, it proposed supports for professional art educational manpower and increased art education capabilities of teachers for human support. It proposed supports for art education facilities and budgets in school for physical support, organization to connect betwe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Ministry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manpower organizations to make contributions to art education for organized support, and legislation enactment and revision for art enjoyment education in school for legal support.

부 록

[부록 1] 학생용 설문지

[부록 2] 교사용 설문지

[부록 1] 학생용 설문지

중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의견 조사(학생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예술 활동(음악, 미술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예술 활동, 방과후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설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앞으로 더 나은 학교 예술교육이 되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 연구팀

※ 각 설문에서 자신의 생각에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 또는 ○)하거나 의견을 적어 주세요.

◎ 다음은 여러분 자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학년: ___ ① 1학년 ___ ② 2학년 ___ ③ 3학년
2. 성별: ___ ① 남 ___ ② 여

◎ 다음은 여러분이 학교 안에서 참여하고 있는 예술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학교의 음악, 미술 교과 수업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활동에 만족하십니까?
 ___ ① 매우 만족한다. ___ ② 만족한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만족하지 않는다.(1-1, 1-2번으로) ___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1, 1-2번으로)
- 1-1. 1번 문항에서 ④나 ⑤에 응답하신 경우,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 ① 수업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___ ② 음악실이나 미술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___ ③ 재미가 없어서 이유:

___ ④ 기타

1-2. 1번 문항에서 ④나 ⑤에 응답하신 경우, 예술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 음악, 미술 교과 수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2. 중학교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예술동아리(가야금부, 오케스트라부, 뮤지컬부, 연극부, 댄스부, 도예부, 한지공예부 등)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___ ① 예 (2-1번으로)

___ ② 아니오

2-1. 예술동아리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 ① 예술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해서

___ ② 관심이 있거나 취미로 활동하고 싶어서

___ ③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참여를 권유하셔서

___ ④ 예술 교과(음악, 미술) 수행평가 점수 향상을 위해서

___ ⑤ 친한 친구들이 예술동아리에 참여하기에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___ ⑥ 기타

2-2. 참여한 예술동아리 활동에 만족하십니까?

___ ① 매우 만족한다. ___ ② 만족한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만족하지 않는다.(2-3번으로) ___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2-3번으로)

2-3. 2-2번 문항에서 ④나 ⑤에 응답하신 경우,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 ① 활동 시간이 부족해서

___ ② 학업이나 진로에 도움을 주지 못해서

___ ③ 재미가 없어서 이유:

___ ④ 기타

3. 자유학기 활동 중 예술 활동(음악, 미술, 연극 등)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___ ① 예 (3-1번으로)

___ ② 아니오

3-1. 자유학기 예술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예술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해서
☐ ② 관심이 있거나 취미로 활동하고 싶어서
☐ ③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참여를 권유하셔서
☐ ④ 예술 교과(음악, 미술) 수행평가 점수 향상을 위해서
☐ ⑤ 친한 친구들이 예술동아리에 참여하기에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 ⑥ 기타

3-2. 참여한 자유학기 예술 활동에 만족하십니까?

-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지 않는다.(3-3번으로)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3-3번으로)

3-3. 3-2번 문항에서 ④나 ⑤에 응답하신 경우,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재미가 없어서 ☐ ② 활동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쳐서
☐ ③ 시설이 열악해서 ☐ ④ 학업이나 진로에 도움을 주지 못해서
☐ ⑤ 활동 시간이 부족해서 ☐ ⑥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없어서
☐ ⑦ 기타

4. 중학교 방과후 활동 중 예술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 ① 예 (4-1번으로) ☐ ② 아니오

4-1. 방과후 예술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예술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해서
☐ ② 관심이 있거나 취미로 활동하고 싶어서
☐ ③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참여를 권유하셔서
☐ ④ 예술 교과(음악, 미술) 수행평가 점수 향상을 위해서
☐ ⑤ 친한 친구들이 예술 활동에 참여하기에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 ⑥ 기타

4-2. 참여한 방과후 예술 활동에 만족하십니까?

- ___ ① 매우 만족한다. ___ ② 만족한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만족하지 않는다.(4-3번으로) ___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3번으로)

4-3. 4-2번 문항에서 ④나 ⑤에 응답하신 경우,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재미가 없어서 ___ ② 활동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쳐서
___ ③ 시설이 열악해서 ___ ④ 학업이나 진로에 도움을 주지 못해서
___ ⑤ 활동 시간이 부족해서 ___ ⑥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없어서
___ ⑦ 기타

◎ 다음은 여러분이 학교 밖에서 참여하고 있는 예술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5. 중학생이 된 후 학교 밖에서 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받고 있습니까?

- ___ ① 예 (5-1번으로) ___ ② 아니오

5-1. 교육을 받은 예술의 종류를 적어 주세요(예: 국악, 서양음악, 회화(그림), 조각, 디자인, 무용, 연극 등).

5-2. 학교 밖에서 교육을 받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 ___ ① 개인 레슨
___ ② 사설 학원이나 기관
___ ③ 공공기관(주민센터, 지역 청소년교육센터, 문화재단 등)
___ ④ 매체 이용(TV, 인터넷 강의(PC, 스마트폰,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등))
___ ⑤ 기타

5-3. 학교 밖에서 예술교육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예술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해서
___ ② 관심이 있거나 취미로 활동하고 싶어서

- ___ ③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참여를 권유하셔서
 ___ ④ 예술 교과(음악, 미술) 수행평가 점수 향상을 위해서
 ___ ⑤ 친한 친구들이 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기에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___ ⑥ 기타

5-4. 학교 밖에서 받은 예술교육에 만족하십니까?

- ___ ① 매우 만족한다. ___ ② 만족한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만족하지 않는다.(5-5번으로) ___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5-5번으로)

5-5. 5-4번 문항에서 ④나 ⑤에 응답하신 경우,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강의료가 비싸서
 ___ ② 강의가 재미없어서
 ___ ③ 학업이나 진로에 도움을 주지 않아서
 ___ ④ 선생님의 가르침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___ ⑤ 기타

6. 중학생이 된 후 학교 밖에서 예술 행사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람한 적이 있습니까?

- ___ ① 예 (6-1번으로) ___ ② 아니오

6-1. 관람한 예술의 종류를 모두 적어 주세요(예: 음악, 미술, 무용, 사진, 문학, 연극, 영화 등).

6-2. 예술 행사를 관람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 ___ ① 행사장(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영화관 등)에 직접 방문
 ___ ② 매체(TV, PC, 스마트폰,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등)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___ ③ 기타

6-3. 예술 행사를 관람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스트레스 해소 ___ ② 학교 단체 관람
 ___ ③ 학교 수행평가 숙제 ___ ④ 소질 및 특기(진로) 개발

___ ⑤ 관심 및 취미 활동 발표

___ ⑥ 기타

6-4. 관람한 예술 행사에 만족하십니까?

___ ① 매우 만족한다. ___ ② 만족한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만족하지 않는다.

___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 학교 밖 예술 행사에서 발표하거나 행사를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까?

___ ① 예 (7-1번으로)

___ ② 아니오

7-1. 발표하거나 지원한 예술 행사의 종류와 내용을 적어 주세요(예: 축제에서 노래 발표, 미술 경연대회에 참가, 연극에서 음향 담당 등).

7-2. 예술 행사에서 발표하거나 행사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 ① 스트레스 해소

___ ② 학교 단체 관람

___ ③ 학교 수행평가 숙제

___ ④ 소질 및 특기(진로) 개발

___ ⑤ 관심 및 취미 활동 발표

___ ⑥ 기타

7-3. 예술 행사에서 발표하거나 행사를 지원한 활동에 만족하십니까?

___ ① 매우 만족한다. ___ ② 만족한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만족하지 않는다.

___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다음은 여러분이 학교 안과 밖에서 참여하고 싶은 예술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8. 여러분이 앞으로 교육을 받거나 참여하고 싶은 예술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예: 피아노, 보컬, 컴퓨터그래픽(CG), 디자인, 사진, 댄스 등)

- 설문에 끝까지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교사용 설문지

중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의견 조사(음악, 미술 교사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학생들의 예술향유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술 향유 능력 제고를 위한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는 중학교에서의 구체적인 예술 향유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의 예술 향유 지원 실태와 관련한 고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의 결과는 연구에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 연구팀 드림

* 설문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언(E-mail : eon@kice.re.kr 전화 : 02-3704-3662)

- 김정효(E-mail : jhyokim@kice.re.kr 전화 : 02-3704-5953)

※ 각 설문 문항의 해당되는 칸의 번호에 표시(✓ 또는 ○)하거나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설문 응답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학교 소재지: ____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____ ② 중소도시 ____ ③ 읍면 지역
※주소에 읍·면이 들어 있을 경우 ③ 읍면 지역에 표시해 주십시오.

2. 교직 경력: ____ ① 5년 이하 ____ ② 6~10년 ____ ③ 11~20년 ____ ④ 21~30년
____ ⑤ 31년 이상

3. 담당 학년: ____ ① 1학년 ____ ② 2학년 ____ ③ 3학년

※지도하시는 학년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4. 귀교에서 자유학기를 실시하는 학기를 표시해주십시오.

- ☐ ① 1학년 1학기 ☐ ② 1학년 2학기 ☐ ③ 2학년 1학기 ☐ ④ 2학년 2학기
☐ ⑤ 3학년 1학기 ☐ ⑥ 3학년 2학기

◎ 다음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귀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표시하고 종류를 적어 주십시오.

학교 예술교육	종류
<input type="checkbox"/> ①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예술동아리	
<input type="checkbox"/> ② 자유학기 예술 활동	
<input type="checkbox"/> ③ 학교예술교육사업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회, 연극 동아리)	
<input type="checkbox"/> ④ 방과후학교, 자율동아리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2. 귀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예술 향유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만 표시해 주십시오.)

※ 본 연구에서는 예술 향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술 향유는 ‘예술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한 개인의 지적, 정의적, 실천적 과정 및 그 결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예술 향유 능력은 ‘예술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한 개인의 지적, 정의적, 실천적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 향유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는 능동성, 긍정적 정서, 참여의 세 가지이다. 능동성은 예술 향유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스스로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성이며, 긍정적 정서는 예술 경험이 예술 향유자에게 좋아함, 기쁨, 즐거움, 희망 등의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참여는 향유자가 직접 향유 대상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1. 음악, 미술 교과 수업	①	②	③	④	⑤
2-2.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예술동아리	①	②	③	④	⑤
2-3. 자유학기 예술 활동	①	②	③	④	⑤
2-4. 학교예술교육사업(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회, 연극동아리)	①	②	③	④	⑤
2-5. 방과후학교, 자율동아리	①	②	③	④	⑤
2-6. 기타	①	②	③	④	⑤

3. 2번 문항에서 ④나 ⑤에 응답하신 경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3-1. 음악, 미술 교과 수업	
3-2.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예술동아리	
3-3. 자유학기 예술 활동	
3-4. 학교예술교육사업(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회, 연극동아리)	
3-5. 방과후학교, 자율동아리	
3-6. 기타	

4. 학생들의 예술 향유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주체	지원 내용
국가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학교	
지방자치단체(광역시, 기초)	
기타	

- 설문에 끝까지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